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누웠더니 불난 침대

(It Was on Fire When I Lay Down on It 번역논문)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 영 과

오 연 정

2017년 8월

누웠더니 불난 침대

(It Was on Fire When I Lay Down on It 번역논문)

지도교수 박 경 란

오 연 정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7월

오연정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2017년 7월

It Was on Fire When I Lay Down on It

Oh, Yeon Jeong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Kyung Ra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July 2017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누웠더니 불난 침대

로버트 풀검

발렌타인 북스 · 뉴욕

감사의 글

책 한편의 번역과 논문 작업이 마무리 되어 이제 감사하는 일만 남겨두고 있다. 감사의 글을 쓰는 것은 한 편의 논문이 나오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되었던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상기시킴으로써 새로이 나아갈 힘을 얻게 한다.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감사의 글을 쓰는 것은 우리가 ‘무릎 꿇고 깊이 흐르는 강물 속에 있으면서도 갈증을 느끼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며, 인생이라는 ‘모험의 강’에서 여태껏 어디를 지나왔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를 생각해보게 한다. 그러한 마음가짐에서 이 글을 쓴다.

가장 먼저 실질적으로 번역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대학원에 입학할 무렵과 학위 수업을 앞둔 지금의 나를 비교할 때 교수님들의 지도가 없었더라면 책 한편을 번역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지도교수님이신 박경란 교수님께서서는 한 번 만나 볼 때마다 단어 하나하나 빠짐없이 살펴보시고 조언을 해주셨고, 김재원 교수님께서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번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마음으로 격려해 주셨으며, 김원보 교수님께서서는 학업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리고 지금 내 옆에서 선풍기 바람을 쐬며 낮잠을 자고 있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논문을 쓰는 내내 곁에 있어주면서 몸과 마음이 헛헛하지 않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는 쉽사리 보이지 못할 미완성의 번역문을 읽고 또 읽어 보면서 어색한 문장들을 집어내어 열띤 토론을 벌여 주었다. 남편의 운문을 거쳐 쉽고 편안하게 읽힐 수 있도록 거듭난 문장들이 많다.

또한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아직 품에 안아 보듬고 보살피야 할 딸을 시집보내고서 밥은 제대로 해 먹고 있을지, 논문은 잘 쓰고 있을지 걱정을 하셨다. 그 사랑의 힘으로 되든 안 되든 번역을 시작하였고 이 지난하고 고독한 여정에서 지쳐있었을 때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저자 로버트 폴검 씨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작가의 이야기에 많은 공감을 하게 되면서 나 또한 그가 바라보는 방식으로 삶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것이 번역을 하는 내내 어둠 속 등불과 같은 지침이 되어주었

다. 작가가 전하려고 하는 종교와 문화를 초월한 보편적인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양 언어와 양 문화 간의 이질정보보다는 유사성을 드러내고자 하였고, 각각의 대상과 개념을 하나로 정의내리고 국한시킴으로써 그것들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를 한데 엮어서 독자들의 마음에 ‘이야기’를 짓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려고 애썼다.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 되어 인쇄를 앞두고 있다. 탈고한 원고를 출판사에 보내는 것은 마치 아이를 신부수업 학교에 보내는 것과 같았던 작가의 말이 떠오른다. 마지막은 아쉬움이 남기 마련인 때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기약하기에 또한 설레는 순간일 것이다.

7월의 어느 일요일 오후. 집 밖에서는 아이들의 재잘대는 소리가 찹통 같은 더위를 찌르고, 집 안에서는 타자 소리가 낮잠 자는 이의 꿈을 두드린다. 이 평화로움이, 내가 숨을 쉬고 있음이,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음이, 이 모든 것이 감사하다.

Abstract

This paper is a translation of the book *It Was on Fire When I Lay Down on It* by Robert Fulghum. This translation is intended for the Korean readers who have been waiting for this particular bestseller to be translated into their language.

This volume picks up where the writer left off in his debut book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In this collection of essays, the writer continues to tell with wit and humor about the lessons he learned from observations and remind us of simple things that truly matter the most.

One of the recurrent themes of the book is comedy. Readers laugh at the heroes and heroines while reading the insightful anecdotes in the comfort of knowing that it is someone else who is in “comic despair” —but not without some “painful self-recognition.” We know that we all are the irrational Medea as depicted by the ancient Greek dramatist Euripides. Reading the stories, readers cannot help but ask themselves these questions: Why did he lie down on the burning bed? Why was she sitting on her own ticket that would get her up and moving? And why do we look for a drink while standing knee-deep in a flowing stream?

This is a dilemma that we all live with. “Psychiatrists make a lot of money off this dilemma, and theologians make a lot of noise. But not only is it unresolved, it is unresolvable,” says the author. And he advises us to lay claim to the bed we choose as our own and get on with it; to suspend our judgement more often; to forgive others and ourselves; and to free ourselves from whatever is bothering with laughter.

Such laughter is what the writer calls “unquenchable laughter.” As long as the readers keep up the laughter, the comedy becomes a happy ending.

And so do their lives.

나는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강하며
신화가 역사보다 더 강하다고 믿는다.
나는 꿈이 사실보다 더 강하고
희망이 언제나 경험을 이기며
웃음이 슬픔의 유일한 약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나는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하다고 믿는다.

작가가 독자에게

나는 학생이었을 때나 교사였을 때나 학교에서 쇼애텔 *Show-and-Tell* 을 할 때가 가장 좋았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 아니라, 학생들 각자 자신의 소중한 무언가를 들고 와서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기 위해 매주 따로 마련된 바로 그 특별한 시간.

어릴 적 나는 다른 숙제에 들인 노력을 모두 합한 것보다 발표할 준비를 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쇼애텔은 학교에서 배운 많은 것들과는 달리 낯찼다. 그것은 나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교육이었다. 게다가 쇼애텔은 규칙이 많지도 않았다. 빨간 펜으로 검사를 받거나 벨이 울려서 제자리로 가야 하는 일 없이도 가능했다.

교사가 된 나는 이 아마추어들이 발표를 할 때 얻는 깨달음에 매번 놀라곤 하였다. 내가 잘 아는 줄로만 알았던 한 아이는 들고 온 종이가방에 손을 넣어 이상한 모양의 보물을 끄집어내고는, 내가 아무리 터무니없이 큰 기대를 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수준의 의미를 부여하곤 하였다. 그러한 순간에 가르침을 받았던 건 바로 교사인 나였다.

몇 번이고 나는 나에게만 진실하고 . . . 나에게만 소중하고 . . . 나에게만 중

요한 줄로 알았던 것들이 . . .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가치였음을 깨달았다.

쇼애텔은 다소 질서가 없고 예측이 불가능했다. 아이들의 발표는 전형적인 형식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그러한 결점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열정으로 다 가리고도 남았다.

이 책의 집필 원칙은 쇼애텔의 정신과 멀지 않다. 내가 일상에서 생각하고 느낀 것을 소재로 한 온전한 나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 책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에서 못 다한 이야기를 담았다. 당시 나는 ‘누웠더니 불난 침대’ 였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약속했다.

이 책의 형식 또한 책의 소재가 된 바로 내 삶의 모습을 반영한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에세이 모음집이 아니라, 한명 뿐인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실시간으로 적어 내려간 회의록이 수업 시간에 발표할 목적으로 약간의 모양새가 갖추어진 것이다. 아마추어의 작품. 가능하다면 직접 글을 읽어 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기에 부탁에 가까운 제안을 하려고 한다. 여러분은 친구가 멀리서 우편으로 보낸 편지를 받아들고 봉투를 뜯어 읽기 시작할 때 방에 있는 누군가가 “크게 읽어봐” 라고 말을 하면 소리 내어 읽어가다가 자신의 의견과 설명을 덧붙이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읽어주기를 바란다. 쇼애텔처럼.

—로버트 풀검



한 타블로이드 신문에 실린 이야기이다. 어느 작은 마을의 가정집 위층 창문에서 연기가 쏟아져 나와 소방대가 출동했다는 내용이 간결하게 서술되어 있었다. 대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 한 남자가 연기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사람을 구조하고 매트리스에 물을 끼얹고 나니 불을 보듯 뻔한 질문이 나온다. “어찌다 불이 났나요?”

“모르겠어요. 누웠더니 불이 붙어 있지 뭐니까.”

이 이야기는 마치 양말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 갈고리 달린 씨앗처럼 내 머릿속에 들러붙었다. 그리고 어느 책의 헌사에서 발췌하여 일기장에 적어 놓았던 구절 “*Quid Rides? Mutato nomine, de te fabula narratur.*” 를 떠올리게 하였다. 라틴어로, 호라티우스가 쓴 글에서 나왔다. 우리말로 옮기면 “왜 웃으시는가? 이름을 바꾸면 그대의 이야기가 될 진데.” 라는 뜻이다.

누웠더니 불이 붙어 있지 뭐니까.

이 글귀를 비명으로 써도 족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격이었다든가, 괜한 문제를 만들어 사서 고생을 하였다든가, 처음에는 귀신에 씌어서 하였으나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하게 되더라는 등의 글귀처럼 인생 이야기가 한 문장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삶의 본모습을 좀 더 평범한 상황에서 끄집어내자면, 점심으로 매일 똑같은 것을 먹는 게 지겹다며 불평을 하고 있던 어느 직장 동료와의 대화를 예로 들 수도 있겠다.

“그런데 도시락은 누가 싸시죠?” 내가 물었다.

“제가요.” 그가 말한다.

우리에겐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잘 이해하였던 훌륭한 인생 선배들이 있다.

성 바울은 “나는 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하려는 일들은 하지 못하면서 싫어하는 일들은 하고 있다니.” 라며 탄식하였다.

그리고 그리스의 극작가 에우리피데스가 쓴 극에서 메데이아는 자신의 아이들을 막 살해하려는 순간 “내가 지금 어떤 악행을 범하려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비이성적인 자아가 나의 의지보다 더 강하다.” 라고 말한다.

이 딜레마로 정신과 의사들은 때돈을 벌고, 신학자들은 시끄럽게 갑론을박을 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뿐더러 해결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 딜레마를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러한 가운데 이런 저런 불난 침대에 상습적으로 드러눕는 동지들이 있어 위안을 얻는다. 스스로 선택한 침대를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고 만족해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더욱 좋으련만.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

이 이야기에서 불난 침대에 누운 남성에 대한 것인데,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보면서도 저 이가 대체 왜 저러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 자기 자신의 행동조차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타인의 행동이야 오죽하겠는가? 왜 불난 침대에 누웠을까? 술에 취했던 걸까? 아팠을까? 자살하려고? 눈이 멀어서? 추워서? 둔한 사람이었나? 그냥 유머감각이 좀 이상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무엇 때문이지? 모르겠다. 더 많은 정보 없이는 판단하기 어렵다. 물론 어쨌거나 우리는 판단을 해버린다. 그러나 판단을 유보하는 일이 좀 더 많아진다면 우리는 서로를 더 많이 좋아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최초의 자녀들인 아담과 이브에게 경고하셨다고 성경에 쓰여 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문제가 생길지니. 이 뒷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 .

그리고 그 이야기의 일부가 여기 이 책에 있다.



나는 천 번 이상 결혼식을 올렸다. 목사로서 수많은 결혼식을 주례하면서 대개는 식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어 마치 내가 결혼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였다. 아직도 나는 늘 다시 식을 올리기를 기대한다. 왜냐하면 결혼식은 대개 놀라운 ‘코미디’ 이기 때문이다.

의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결혼식은 초보자에게 부담이 되는 예식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불운을 당기고 사람들의 감추어진 비이성적인 모습을 끌어내는 자석과 같다고나 할까. 여러모로 결혼식은 관계된 모든 이들의 부족한 면을 드러낸다.

전형적인 결혼식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엉망진창이 된 결혼식 이야기. 이야기가 흘러갈수록 내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믿기 힘들겠지만,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난다.

이 극의 중심인물은 신부의 어머니이다. 신랑 신부 또는 주례 목사가 아니라 어머니. 평소 예의바르고 이성적이며 똑똑하고 분별 있는 신부 어머니는 딸의 약혼 발표에 이성을 잃었다. 흔히 그렇듯 결혼에 불만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기쁨에 겨워하였다. 그리고 막이 내리기 전에는 자신의 기쁨을 나누어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으나 이 여인은 세실 B. 드밀¹⁾에게 제작 허가를 받았을

1) 『십계』 등을 연출한 미국의 영화감독

만한 대본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신부가 되는 공주님에게 걸맞을만한 호화로운 결혼식을. 그러나 모든 비용은 신부 어머니가 댔기에 이의를 제기하기란 어려웠다. 신부 아버지는 딸이 애인과 함께 달아나길 기도하기에 이르렀으나 그 기도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7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었기에 그녀는 아무리 세세한 부분도 우연 또는 인간의 실수에 의해 좌우될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기억해야 할 것들은 모두 머릿속에 새겼고, 티파티와 샤워파티²⁾ 그리고 디너파티를 치렀다. 나는 신랑 신부와는 딱 세 번 만났을 뿐인데 그녀는 매주 나에게 전화를 걸었고 청소아주머니 만큼이나 자주 내 사무실을 찾았다. (출장 뷔페 업체 담당자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준비를 돕고 있는 게 진짜 결혼식이 맞는지, 침략 전쟁은 아닌지를 물었다. 나는 침략 전쟁이 맞다고 말했다.)

18개의 악기로 편성된 관악단이 연주를 맡았다. (교회의 오르간 연주로는 절대 안 될 것이었다. 너무 ‘교회스럽기’ 때문에.) 신부가 원하는 살림살이 물품 목록은 동쪽으로는 멀리 뉴욕에 있는 매장에, 남쪽으로는 멀리 애틀랜타에 있는 매장에까지 등록되었다. 신부 들러리들의 의상은 주문 제작하였으며 신랑과 신랑 들러리들의 턱시도 역시 구매하였다. 다시 말하지만 대여가 아니었다. 구매였다. 그래도 성에 차지 않은지 신부 어머니는 약혼반지를 보석 매장으로 돌려보내어 더 큰 보석을 박아 은밀히 추가 비용을 지불하였다. 이 여인이 이성을 잃었다고 말했을 때 그 말 그대로였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큰 행사를 치르기 전날 저녁에 있었던 예행연습과 마찬가지로 워털루 전투 전날 밤 나폴레옹 진영에서 있었던 일과 다르지 않았을 것 같다. 그 어떤 것도 운에 맡기지 않았다. 내일의 승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결혼식은 그 누구도 결코 잊지 못할 것이었다. (아무도 워털루 전투를 잊지 못한 것처럼. 이제 와서 보니 같은 이유로.)

운명의 수레바퀴가 굴러, 마지막 한 시간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교회는 정장 차림을 한 하객들로 가득 메워졌고, 촛불을 충분히 켜서 빛을 되살리고 저녁을

2) 결혼 전 신부 친구들이 선물을 가지고 모여 축하하는 자리이다. 19세기 서양에서 신부에게 친구들이 결혼식과 신혼살림에 필요한 물품과 지참금을 모아 준 데서 유래했지만, 지금은 신부가 사전에 원하는 선물 목록을 매장에 가서 작성하면 친구나 지인들이 선택해 파티 때 선물해준다.

밝혔다. 성가대석에서는 웅장한 오케스트라 선율이 울려 퍼졌고, 오페라 가수가 화려한 프리미어 공연을 선보이는 가운데 우리의 위대한 신부 어머니가 중앙 통로를 따라 입장하였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만족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해냈다. 그녀는 얼굴이 상기되었다가 밝아지더니 미소 짓고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음악이 잦아들자 쉬폰 드레이프 드레스를 입은 신부 들러리 아홉 명(세어 보니 정말 아홉 명이었다.)이 긴 통로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보조를 맞추며 식장에 들어섰고, 프록 코트 차림의 신랑과 신랑 들러리들은 별 감흥을 보이지 않으며 입장하였다.

오, 마침내 관악단의 결혼행진곡이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이제 신부가 입장한다. 먼저 네 명의 작은 공주님들이 신이 나서 꽃잎을 뿌리며 걸어 나왔고, 그 뒤로 양증맞은 소년 두 명이 반지를 하나씩 들고 따라 나왔다. 그리고 하객들은 기대를 품고 일어서서 신부 쪽을 바라보았다.

아, 신부여. 신부는 며칠째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시간째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몸에는 더 이상 아드레날린이 남아있지 않았다. 신부 들러리들이 하나 둘 입장하는 동안 교회의 리셉션 홀에 아버지와 단 둘이 남겨진 신부는 미식가들을 유혹하는 먹거리가 잔뜩 놓인 테이블을 따라 걷다가 분홍색, 노란색, 녹색 빛깔의 작은 박하사탕 몇 개를 아무생각 없이 집어 먹었다. 그런 다음 견과류가 담긴 은그릇 마다 손을 넣어 피칸을 골라 먹었다. 이어 치즈볼 한두 개와 검정 올리브 몇 개, 시럽에 졸인 아몬드 한 줌, 칵테일용 이쭝기개가 꽃힌 작은 소시지, 베이컨에 돌돌말린 새우 두어 개와 간 파테³⁾를 바른 크래커를 먹었다. 그리고는 먹은 것을 삼키려고 핑크 샴페인 한 잔을 들이켰다. 신부 아버지가 건넨 것이었다. 진정하라고.

신부가 입구에 서자 하객의 눈에 들어온 것은 웨딩드레스가 아니라 신부의 표정이었다. 창백하였다. 중앙 통로를 따라 들어오고 있는 것은 핀이 뿔뿔히 터지기 일보 직전인 수류탄이었던 것이다.

3) 고기의 간을 곱게 다지고 양념하여 차게 해서 상에 내는 것으로 빵 등에 퍼 발라 먹는다.

신부는 구토를 했다.

신부 어머니 옆을 지나던 바로 그 때.

여기서 ‘구토를 했다’는 말은 교양 있게 숙녀다운 모습으로 자신의 손수건에다가 먹은 것을 조금 *꺼웠다*는 말이 아니다. 토했다. 대체 이 단어를 대신할만한 좋은 단어가 없다. 성단소 정면에다 호스로 물을 뿜어내듯 배출했다. 신부 들러리 두 명과 신랑과 반지를 든 어린이 하나와 나에게.

나는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꽤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한다. 전부 다 녹화해 두었기 때문이다. 비디오카메라 세 대로. 신부 어머니는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에피타이저와 샴페인 그리고 품위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토해 낸 신부는 아버지의 품안으로 힘없이 쓰러졌고, 신랑은 서 있던 곳에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채 굳어버렸다. 그리고 신부 어머니는 정신을 잃고 고꾸라지면서 봉제인형처럼 널브러졌다.

곧이어 제단 앞에서는 마르크스 형제들⁴⁾의 쇼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소방 훈련과도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다. 신랑 들러리들은 영웅이라도 되는 냥 허둥지둥 뛰어다녔고, 꽃을 든 작은 공주님들은 큰 소리로 울어댔으며, 신부 들러리들은 훌쩍거리었고,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출구로 향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것도 눈치 채지 못한 관악단은 연주를 계속하였다. 신부는 의식을 되찾았으나 또 다른 의식 상태로 빠져들었다. 갓 구토한 냄새가 교회 안으로 퍼져 끼질 듯 흔들리는 촛불의 향과 섞였다. 나는 나폴레옹과 워털루 전투가 다시 생각났다.

단 두 사람만이 미소 짓고 있었다고 한다. 한 사람은 신랑 어머니였고, 다른 한 사람은 신부 아버지였다.

우리는 어떻게 하였을까? 현실로 되돌아갔다. 하객들은 잠시 연회장으로 안내되었으나 평범한 상황의 결혼식에서만큼 먹고 마시지는 못하였다. 신부는 위로를 받고 씻은 뒤에 들러리 의상을 입은 다음 기운을 차린 신랑의 품에 안겨 뽀뽀세례를 받았다. (이것 때문에라도 신부는 신랑을 언제까지나 사랑할 것이다. “기쁨

4) 1905년대에서 1949년 사이 뮤지컬과 영화계에서 활동한 미국의 가족 코미디 예능 단체

때나 슬플 때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그는 진심이었다.) 출연진은 중단되었던 곳에서 다시 모였다. 플루트 하나로 연주한 아리아가 조용히 울려 퍼졌고, 결혼 서약과 맹세의 키스가 이어졌다. 결혼식 때 으레 그렇듯 모두가 울었다. 무엇보다 식이 진행되는 내내 신랑이 신부를 품에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다정하게 신부에게 키스를 하였기 때문에.

기억에 남을 만한 결혼식이었는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들의 결혼식이야말로 대성공이었다. 참석한 사람들 모두 이 결혼식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여느 부부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실은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 올해로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고 개구쟁이 아이 셋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다. 최고의 명장면은 지금부터다. 이 불운하였던 결혼식이 있는 지 10년째 되던 날 파티가 열렸다. TV 세트 세 대가 준비되었고 진수성찬이 마련되었으며 가까운 친구들이 초대되었다. (사고 현장에 비디오카메라 세 대가 있었던 것을 떠올리시길. 그래서 영상 세 개를 동시에 상영하게 된 것이었다.) 이 이벤트는 너무 웃겼는데, 특히 실황 해설과 녹화된 프레임을 하나씩 재생하면 보기에 좀 거북해지는 스톱 모션이 있어 그러하였다. 그런데 사람들의 환호와 건배를 불러일으킨 장면은 다름 아닌 신부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남편의 얼굴에 미소가 어리는 장면이었다.

이 부분을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하는 이유는 파티 때문이 아니다. 다름 아닌 파티를 연 사람 때문이다. 그렇다. 그 사고로 인해 불명예를 안게 된 신부 어머니. 아직도 여전하지만 요새는 많이 내려놓고 사는 이 여인은 그 사태를 일으키는데 일조한 남편과 모두를 용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도 용서하였다. 영상을 보면서 그녀만큼 신나게 웃은 사람이 없었다.

그녀가 갖춘 덕목은 이것이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금도 똑같이 미소 짓고 있는 이 남자가 그녀와 사십 년간 함께해온 까닭이며, 그녀의 딸이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는 이유이다.



존 피어폰트는 실패로 점철된 삶을 살다가 죽었다. 오랜 기간 거듭되는 남모를 실패로 영혼이 쇠약해지면서 1866년 여든하나의 나이에 워싱턴 D. C. 주의 하급 관리로 생을 마감하였다.

시작은 꽤 좋았다. 자신의 조부가 건립에 일조한 예일대를 졸업하였고,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교직에 몸을 담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는 교육자로서 실패하였다. 학생들에게 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조계로 눈을 돌려 실무수습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변호사로서도 실패하였다. 의뢰인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했고, 높은 수입료를 받을 사건을 수임하기에는 정의에 대해 너무 깊이 염려하였다. 그가 다음으로 택한 직업은 포목상이었다.

그러나 그는 사업가로서도 실패하였다. 수익을 널만큼의 값을 부르지 못했고, 신용과 관련하여 그는 너무나 너그러웠다. 한편 그는 시를 쓰고 있었는데 출판은 되었으나 생계를 꾸려갈 만큼 충분한 인세를 받지 않았다.

그는 시인으로서도 실패하였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는 멀리 하버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보스톤에 있는 홀리스 스트리트 교회로 파송되었다. 그러나 금주법을 찬성하고 노예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영향력 있는 교인들과 관계가 틀어지는 바람에 사임을 당하고 말았다.

그는 목사로서도 실패하였다. 정치가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일인 듯 보

였고, 매사추세츠 주지사 선거에서 노예제폐지당 후보로 선출되었다. 그는 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은 그는 자유토지당⁵⁾의 기치 하에 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 그리고 졌다.

그는 정치인으로서도 실패하였다. 남북 전쟁이 발발하자 매사추세츠 주 제22 연대의 군목(軍牧)으로 자원입대하였다. 그러나 2주 후에 그곳에서의 일이 건강에 큰 무리를 준다는 것을 깨닫고는 퇴역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예순 여섯이었다. 군목으로서도 버틸 수 없었던 것이다.

누군가가 워싱턴에 소재한 재무부에 별 볼일 없는 행정 보조 일자리를 알선해 주었고, 그렇게 그의 생애 마지막 5년을 보잘것없는 서무 담당으로 보냈다. 그 역시 그가 아주 잘하는 일은 아니었다.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으므로.

존 피어폰트는 실패로 점철된 삶을 살다가 죽었다. 하려고 했던 것이나 되려고 했던 것 모두 이루지 못하였다. 매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 시에 자리한 마운트 오번 묘지에는 그의 무덤임을 표시한 작은 비석이 있다. 화장암으로 된 그의 비석에는 그가 시인이자 목사였으며 철학자이자 자선가였다고 새겨져 있다.

시간이 이만큼 흐른 지금 누군가는 그가 실패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사회 정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베푸는 인간이 되고자했던 열망, 시대가 직면한 커다란 문제에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인간 정신의 힘에 대한 신념, 이러한 것들은 헛된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그가 실패로 여겼던 대부분의 것들이 결국에는 이루어졌다. 교육 개혁이 이루어졌고, 법적 절차가 개선되었으며, 신용법이 개정되었고, 무엇보다 노예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다지 특별한 이야기도 아닌데 말이다. 19세기의 많은 개혁가들이 비슷한 삶을 살았고, 비슷한 실패와 비슷한 성공을 맛보았다. 그런데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에서 존 피어폰트는 실패하지 않았다. 매년 12월이 오면 우리는 그의 공적을 기린다. 우리의 가슴과 머릿속에서 평생 고인을 추모한다.

그 추모란 사실 노래다.

5) 1848년에서 1852년 사이에 존속했던 미국의 정당이다. 휘그당과 민주당의 옛 노예제 반대론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예수나 천사, 심지어는 산타클로스에 대한 노래도 아니다. 그저 말 한 필이 끄는 썰매를 타고 차가운 흰 눈이 덮인 겨울의 어둠을 빠르게 헤쳐 나가는 소박한 즐거움, 그리고 썰매를 타는 내내 친구들과 함께 웃고 노래하는 소박한 즐거움을 담은 매우 단순한 곡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징글벨.’ 이 징글벨을 존 피어폰트가 썼다.

가장 소박한 기쁨을 노래한 곡, 세계의 3억 내지 4억 명의 사람들이 아는 노래(한 번도 경험해본 적은 없지만 상상해볼 수는 있는 것에 대한 노래), 피아노의 현이 울리고 우리 영혼의 심금이 울리는 순간 모두가, 아이이건 어른이건,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노래를 만든 것은 실패가 아니다.

어느 눈 내리는 한겨울 오후 존 피어폰트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교회 신자들을 위한 작은 선물로 이 곡을 썼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원한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최고의 선물을,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놓이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그 어떤 선물보다도 커다란 기쁨의 선물을 남겼다.

(추신: 1987년 겨울, 워싱턴 주 캐스케이드 산맥의 메타우 밸리에서 나는 마침내 숙원을 이뤘다. 눈이 3피트까지 쌓여 있었고, 기온은 0도에 머물렀으며, 하늘은 화창하였다. 썰매에는 덮개가 없었고, 회색 얼룩말에는 빨간 마구와 벨이 달려 있었다. 우리는 눈밭 위를 빠르게 질주했고, 그러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존 피어폰트씨, 감사합니다. 노래 가사 전부가 사실이었어요.)



현재 개를 키우고 있거나 한 번이라도 개를 키워본 적이 있다면 절대로, 거듭 말하건대 절대로 이 이상은 읽지 말라. 다음 챕터로 넘어가라. 아래의 내용을 읽다보면 기분이 나빠질 것이다. 게다가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하게 될 것이고, 어차피 이해를 못할 것이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이 누구에게나 다 적합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내 말을 믿어라.)

하지만 개를 키우지 않고 있고 키울 생각도 없다면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겠다. 지금 부터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언론에는 결코 등장하지 않는 목소리 없는 소수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다. 개들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기분을 거슬리게 할까 두려워 검열되고 마는 그런 의견을.

나는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다. 한 마리도. 강아지도 고양이도 새도 물고기도 키우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당히 책임 의식이 있는 시민이다. 공공장소에서 예의를 지키고, 세금을 내며, 이따금 교회에도 가고, 어린이와 노인 모두에게 친절하다. 또한 나는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은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애완동물은 나와 맞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개를 좋아하지 않는다.

한번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디너파티에서 그 말을 꺼냈다. 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사실 하려던 것보다 조금 크게 말하긴 했지만 정말로 문제를 일으키려던 것은 아니었다. 이 분야에서의 성적은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급작스러운 침묵에 귀가 멍해졌다. 의자에 올라서서 ‘나 광견병 환자에

요!’ 라고 소리를 질렀더라도 이보다 큰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개중에 몇은 아직까지도 나를 멀리 한다.

그러나 반드시 집에서 개를 키워야만 훌륭한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의 거처에서 개를 키우거든 나의 축복이 있을 지어다.’ 라는 말이 없다. 사실 성경에서는 애완동물에 대해 별 언급이 없다. 그렇다고 개가 독립 선언문이나 헌법, 또는 국민의례에 등장하는 것도 아니다. 개 없이도 천국에 갈 수 있고 공직에 선출될 수 있다.

(어쩌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것은 힘들 지도 모르겠다.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이 개를 키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언제나 영견(令犬) 한 마리는 있다. 둘 또는 셋인 경우도 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개를 키워야 하는 모양이다. 나는 여전히 노년의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자신이 키우던 비글의 귀를 잡고 들어 올려서는 앞뒤로 흔들어 큰 소리로 짖어대게 하던 모습을 아직도 그리워한다. 린든 전 대통령은 말했다. “이렇게 하면 좋아하더라고. 개들한테 좋은 거야.” 나는 그의 아시아 정책이 똑같은 전제에 기반을 두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이것은 민감한 주제이며 또 본래 주제에서 벗어난 것일 테다.)

그런데 어째서 녀석들을 싫어하느냐고? 알려주겠다.

우선 이유는 설명할 수 없으나 나는 선천적으로 ‘애완동물을 끌어당기는 병’을 타고났다. 가까이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녀석들은 거대한 힘에 의하여 내게 이끌려온다. 개중에도 크고 추하며 짓고 무는 녀석들이 내게 온몸으로 달려든다. 이 정도는 나도 감당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다른 녀석들도 나를 찾아내고 만다. 꼬리를 이리저리 흔들면서 침 흘리는 녀석들은 내 손과 얼굴로 자꾸만 다가와 핥아대고 침을 흘리면서 쿵쿵댄다. 하던 일이나 집중하려고 해봐도 녀석들은 내 몸 위에 올라타 앞발로 할퀴면서 크게 짖어댄다. 내가 무얼 한 게 아니다. 맹세할 수 있다. 이 중에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다. 게다가 내가 녀석들에게 그런 짓을 하지도 않았다.

다음으로는 강아지 똥 문제가 있다. 자세한 묘사는 피하고 딱 한 가지만 말하면 나는 이 분야에 있어서도 어떤 ‘선천병’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일이 하도 빈번하게 발생해서 마치 강아지용 기저귀를 신발에 단 채 세상에 태어나기라도 한 것 같다. 한 번은 이웃집 개가 우리 집 잔디밭에 남긴 상당한 양의 배설물을

봉지에 담아 이웃집 현관 앞에다 조심스럽게 쏟아냈다. 결국 이웃집 양반은 아침 신문을 가지러 실내용 슬리퍼를 신은 채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가 그것을 밟고 말았다.

그것을 갖다 놓은 사람이 나라는 확신은 없는 것 같지만 그 일이 있는 후로는 그 집 개가 우리 집 잔디밭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였다.

어쨌든 이 주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한 것 같다. 이러한 사정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요, 이해를 못하겠다면 더 말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다.

또한 긴 말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는 사람들이 개에게 말하는 방식이 있다. 나는 이것이 무척이나 부끄럽다. 정말로 부끄럽다. 녀석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특히 사람들이 녀석들에게 말을 걸고 복화술사라도 되는 양 다른 목소리를 내어가며 대신 답을 할 때. 무슨 말인지 알 것이다. 들어본 적이 있을 테니. 심지어 녀석들조차도 이상하게 여긴다. 인간들이 복화술을 할 때 녀석들의 반응을 보라.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있다는 사실에 식겁해 한다. “우리 강아지 맘마 먹고 싶어쥬요? 아니, 우리 강아지 밖에 나가고 싶어쥬요.”

이 나라에서 개밥으로만 해마다 2십억 달러를 쓴다는 사실을 아는가? 인간 아기의 이유식에다 쓰는 액수의 약 두 배다. 녀석들을 위한 먹거리는 마트에서 판매되는 건조식품 매출의 약 11%를 차지하고, 일반 마트에서는 30미터 이상의 진열 공간을 애견 먹거리와 애견 용품으로 채워 넣는다. 강아지 버거와 스낵, 닭고기를 주원료로 하는 사료, 강아지 간식, 그리고 기타 등등. 언제 한 번 살펴보시길. 일 년에 소비되는 반려동물 식품은 총 340톤이나 된다. 그리고 내가 아는 수의사의 말에 의하면 전체 애완견의 40%가 심각한 과체중이란다.

반려동물 분양가와 사육비, 수의진료비, 의약품 지출비, 비타민제 비용 등을 모두 합해보라. 여기다 개목걸이와 개밥그릇, 큐빅 박힌 개줄, 스웨터, 애견 향수(그렇다. 애견용 향수도 있다.) 등 액세서리 구입비도 더해보자. 추가로 애견 미용실 이용비와 애완견 산책 도우미 고용비, 배설물 처리 도구 구입비에 사진 촬영비도 넣어보자. 이것들을 모두 합산하면 1년에 미국인들이 반려견에 쏟아붓는 돈이 약 70억 달러에 이른다. 70억 달러 말이다.

게다가 미국 개의 90%는 전 세계 75%의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산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애완견 대부분이 미국 어린이의 23%(이 아이들은 정부의 공식 빈곤선 기준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보다 먹고 사는 형편이 더 낫다.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이 모든 반려견들을 키우고 그렇게 모시듯 하는 것일까? 서로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일까? 인간과는 나눌 수 없는 종류의 사랑이 필요해서일까? 권태 또는 고독을 쉽게 느끼거나 감정에 휩싸이기 쉬운 수렵·채집인의 피가 몸속 깊이 흐르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무엇 때문이지? 개 두 마리를 키우는 옆집 양반은 나의 긴 열변을 차분히 듣더니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마 그런가보다.

내가 개에 대하여 최고로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 것은 태국 북부 산악지역에 있는 아카족이라는 원시부족 마을에서였다. 우리가 돼지와 닭을 키우듯 아카족은 개를 키웠다. 그들은 소를 유능한 동료로 여기며 이름을 지어주고 절대로 잡아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는 먹었다. 이들에게 개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그저 식량이었다.

개를 다르게 볼 수도 있다.



나에게는 ‘보물’ 이라고 적힌 골판지 상자가 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작업실 안의 높은 선반위에 보관된 그 상자가 보인다. 올려다보면 보인다는 것이 나는 참 좋다. 이 상자에는 나만의 보물들이라 할 수 있는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 담겨 있는데, 그것들은 내가 이따금씩 충동적으로 물건들을 한바탕 정리하고 내다버리는 와중에도 살아남았다. 뿐만 아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사를 할 때, 그리고 이 다락방에서 저 다락방으로 물건들을 날라 옮길 때에도 그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였다. 상자 안의 것들은 도둑이 들더라도 무사할 것들이다. 한 푼도 안 되는 것들이기에. 하지만 집에 불이 나기라도 한다면 나는 이 상자를 집어 들고 뛰쳐나갈 것이다.

상자에 담긴 기념품들 중에는 도시락 크기의 작은 종이봉투가 있다. 봉투의 윗부분은 강력 접착테이프와 스테이플 그리고 클립 여러 개로 밀봉되어 있지만 한 쪽이 너털너털해져서 찢어지는 바람에 안의 내용물이 보일 정도다.

내가 이 도시락 봉투를 보관한 지는 14년쯤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봉투의 진짜 주인은 내 딸 몰리이다. 몰리는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아침마다 자신과 오빠들 그리고 내가 먹을 도시락을 싸는 데 재미를 붙였다. 몰리가 싸준 도시락 봉투에는 샌드위치와 사과, 우유살 돈이 각각 들어있었고, 가끔은 쪽지나 군것질거리도 담겨져 있었다. 어느 날 아침에는 집을 나서려는데 몰리가 도시락 봉투 두 개를 건넸다. 하나는 평소와 다름없는 도시락 봉투였고 다른 하나는 강력 접

착테이프와 스테이플과 클립으로 단단히 봉해져 있었다. “봉투가 왜 두 개니?”
“하나는 좀 다른 거예요.” “뭐가 들었지?” “그냥 이것저것이요. 함께 가져가세요.” 이 문제로 길게 씨름하고 싶지 않았던 나는 서류 가방에다 봉투 두 개를 모두 쑤셔 넣고 아이에게 뽀뽀한 뒤 서둘러 집을 나섰다.

12시가 되어 진짜 점심 도시락을 허겁지겁 먹어 치운 뒤에 물리의 봉투를 뜯고 내용물을 쏟아냈다. 리본 달린 머리 고무줄 두 개, 작은 돌멩이 세 개, 플라스틱 공룡 장난감 하나, 몽당연필 하나, 아주 조그만 조개껍데기 하나, 동물 모양의 크래커 두 개, 구슬 하나, 작은 인형 하나, 키세스 초콜릿 두 개, 그리고 동전 열 세 개가 나왔다.

웃음이 나왔다. 어쩌나 귀엽던지. 그리고는 온갖 중요한 오후 업무를 위해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놓인 남긴 음식과 물리가 담은 쓰레기들을 포함한 전부를 쓸어 담아 쓰레기통에 버렸다. 거기에는 내게 필요한 것이 없었다.

그날 저녁에 신문을 읽고 있는데 물리가 다가와 내 곁에 섰다. “내 봉투 어디 있어요?” “무슨 봉투?” “음, 제가 오늘 아침에 드린 거요.” “사무실에 뒀는데, 왜?” “그 안에 이 쪽지를 넣어 두려고 했는데 깜박했거든요.” 그러면서 쪽지를 건넸다. “그리고 이제 돌려받고 싶어요.” “왜?” “봉투에 있는 것들은 제 거예요, 아빠.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들이요. 갖고 놀고 싶으실까봐 드렸는데 이제 돌려받고 싶어요. 봉투를 잃어버리신 건 아니죠, 아빠?” 딸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다. “아니야. 그냥 집에 들고 오는 걸 깜박했을 뿐이란다.” 나는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내일은 가지고 오세요, 알았죠?” “암, 그래야지. 걱정하지 마라.” 딸아이가 안도하며 내 목을 끌어안자 나는 봉투에 들어가지 못한 그 쪽지를 펴 보았다. 거기에는 “사랑해요, 아빠.” 라고 적혀있었다.

아, 이런!

나는 딸아이의 얼굴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물리의 말대로였다. 그 안에 든 것은 뭔가 “좀 다른 것” 이었다.

물리는 나에게 자신의 보물을 준 것이었다. 일곱 살짜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전부를. 종이봉투 안에 담은 사랑을. 그런데 나는 모르고 지나쳤다. 뿐만 아니

라 쓰레기통에 버리기까지 하였다. ‘거기에는 내게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는 이유로. 아, 하나님.

나에게 아빠 자격이 없다고 느낀 것이 이때가 처음은 아니었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멀었다. 그렇지만 딱히 해야 할 일도 없었다. 그래서 나갔다. 참회의 순례를 위하여. 학교 관리인 아저씨가 오기 직전에 도착한 나는 쓰레기통을 집어 들고 그 안의 내용물을 책상 위에다 쏟아 부었다. 한참을 골라내고 있는데 관리인 아저씨가 자신의 일을 하러 들어왔다. “무얼 잃어버리셨소?” “네, 정신머리요.” “거기 잘 있을 거요. 어떻게 생긴 거요? 나도 같이 찾아 드리리다.” 처음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말을 하더라도 이보다 더 바보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말했다. 그는 웃지 않았다. 대신 미소를 지으며 “나도 아이가 있어요.” 라고 하였다. 그렇게 우리 바보형제는 함께 쓰레기를 뒤졌고 보석들을 찾아냈다. 그가 나에게 미소를 지었고 나도 그에게 미소 지었다. 이런 일은 결코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결코.

공룡 장난감에 묻은 머스터드소스를 씻어냈고, 전부 구강 청결제를 뿌려 양과 냄새를 제거하였다. 그런 다음 공 모양으로 구겨져 있는 갈색 종이봉투를 정성스레 펴서 제 구실을 하계꿈 모양새를 갖추고 그 안에다 보물들을 담았다. 그리고는 다친 고양이마냥 자못 조심스럽게 봉투를 들고 집으로 갔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물리에게 돌려주었다. 물리는 묻지 않았고 나도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았다. 봉투는 썩 좋은 상태가 아니었으나 물리의 물건들은 전부 들어있었으니 그것으로 된 것이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물리에게 봉투에 든 물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물리는 식탁 위에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어 일렬로 세웠다.

딸아이가 이야기를 마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물건 하나하나마다 이야기가 있었고 추억이 있었고 꿈과 상상 속 친구와 관련이 있었다. 어떤 것들은 요정들이 가져다주었다고 하였다. 키세스 초콜릿은 내가 준 것이었는데 언젠가 필요할 때에 쓰려고 보관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이어가는 동안 나는 적절한 시점에 “그랬구나.” 라고 몇 번 맞장구 쳐주었다. 그리고 정말로 진심으로 공감하였다.

놀랍게도 물리는 며칠 뒤에 또다시 그 봉투를 내게 건넸다. 똑같은 내용물이

든 똑같이 지저분한 봉투를. 나는 용서받은 듯 하였고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내가 아빠라는 사실이 좀 더 편하게 다가왔다. 그 후로도 몇 달 동안 그 봉투는 이따금씩 나와 출근길을 함께 하였다. 언제 받고 언제 못 받는지는 분명치 않았다. 나는 이것을 ‘좋은 아빠 상’으로 여기게 되었고, 다음 날 아침에 상을 받기위해 전날 저녁에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였다.

시간이 흘러 물리는 다른 것들로 관심을 돌렸다. 새로운 보물이 생겼고 . . . 나와 의 게임에는 흥미를 잃었으며 . . . 어른이 되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나? 나는 여전히 그 봉투를 받은 채로 있다. 어느 날 아침 물리가 그 봉투를 주었고 다시는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

때때로 이 달콤한 인생길에서 누군가 나에게 베푼 사랑을 모르고 지나치지는 않았을지 생각해보곤 한다. 한 친구는 이것을 ‘무릎 깊이의 강물에서 있으면서 목말라 죽는 꼴’이라고 하였다.

물리의 해진 종이봉투는 저기 저 상자 안에 있다. 아이가 ‘보세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랍니다. 가지세요. 당신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사도행전 3:6).’ 라고 했던 그 때 그 상태 그대로.

처음에는 모르고 지나쳤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봉투다.



“젊은 양반, 이 나무는 임자가 있어.” 저 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더러 젊은 양반이라고 부른 것도 그렇지만 막 오르려던 나무에 이미 임자가 있다는 말에 나는 당황하였다.

고분고분 지상으로 내려온 나는 나뭇가지 사이를 올라다보았다. 과연 나무 위에는 한 할머니가 있었다. 흰 머리는 노란 손수건으로 질끈 묶여 있었고 청바지와 운동화 차림에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다. 할머니는 이 커다란 느릅나무 가지가 세 갈래로 뺨어나가는 곳에 마치 나무 정령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곧 내려올 모양새가 아니었다. “자네 나무를 찾아봐.” 친절하지만 단호한 음성이었다. “네, 할머니.”

공원 관리원이 관목을 다듬고 있기에 다가갔더니 내가 묻기도 전에 대답하였다. “예, 알구말구요. 나무 위에 어떤 할머니가 계시지요.” 그리고 덧붙여 설명하기를 할머니는 연세가 65세 쯤 되었고 은퇴를 하였으며 페더럴 에비뉴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만 봄과 여름에는 공원의 나무에서 살다시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언젠가는 소방서에서 할머니로 하여금 ‘해’에서 내려오시도록 해야 할 것이나 지금으로서는 할머니 본인이 나무 타는 일을 잘 알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나무에 오르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할머니는 그저 나무에 오르는 게 좋으신 거다.

그 마음은 나도 잘 안다.

너무도 잘 알기에 이달 조지아 주 애틀랜타 시 국제나무타기연맹에 대하여 알게 되고 나서는 회원 가입을 하고 회비를 납부한 뒤 회원카드를 소지하게 되었다. 내가 연맹에 가입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이곳에서 나무타기를 위한 안전 장치와 기술을 많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분명 내게 필요한 것들이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나무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다. 나뭇가지 사이로 곤두박질치면서 양 팔꿈치가 다 까졌고 머리를 부딪쳤다. 의사는 뇌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진단을 내렸는데, 그와 더불어 자존심도 꽤나 상하였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무얼 하고 계셨던 겁니까?” 의사가 물었다. “가지치기?”

(나는 길게 뜬을 들이면서 생각을 하였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물어보겠지, 사실대로 말을 하면 나는 이해받지 못할 것이고, 지어내서 말을 하면 나부터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음…….” 이라고 하고는 말았다.

나무 타기는 내가 남몰래 즐기는 취미이다. 그 뿐이다.

그렇지만 도무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것은 말로 설명되는 것이라기보다 몸으로 겪어봐야 아는 것이다. 분명 원시적인 어떤 것, 나의 DNA에 저장된 가장 원시적인 열망을 달래는 무언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수십만 년을 나무 위에서 생활하지 않았다. 그래서 늙은 느릅나무 가지가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는 지점에 편안하게 앉아 있자면 마치 집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느낌, 그리고 제대로 있어야 할 곳에 왔다는 느낌말이다.

나무 위에다 지은 집에도 똑같이 ‘당연한’ 느낌이 있다. 아이들이 널빤지를 엮어다가 나무 몸통 높은 곳에 못으로 고정해서 만들어 위태위태해 보이는 보금자리, 어른들은 남몰래 마음속으로만 올라가 보곤 하는 그곳 말이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나무 위에다 만든 집에서 살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나무를 타는 것이 조금 힘들어졌다. 중년 남성으로서 그럴만한 힘도 없으려니와 사회에서 합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없다. 가지를 치려고 나무에 오르는 것은 괜찮다. 모양새가 나쁘지 않다. 고양이를 구출한다거나 연을

꺼내오기 위해 나무에 오르는 것도 괜찮다. 이것도 흉하지 않다. 하지만 취미로 . . . 또는 그저 기분이 좋아서가 그 이유라면 . . . 글썄 . . .

그렇더라도 나무 위에 오르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이야말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더군다나 이로 인하여 뇌 타박상을 입었을 경우라면. 착지하고 나서 한동안 눈앞의 것들이 두 개로 보였는데, 여기까지는 재미있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구토를 한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구토는 절대 재미있을 수가 없다. 살면서 숙취로 가장 고생했을 때의 고통을 두 배로 늘려보라. 그것이 바로 뇌진탕이다.

의사는 몇 일간 휴식을 취하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따르기는 쉬웠다. 어차피 늘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기.

그런데 나더러 나무를 멀리하라고 하지 않는가. 여기서 정신 건강에 중요한 것들에 대한 의사들의 지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

사실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팔을 흔들 필요가 없을 뿐 하늘을 나는 것과 약간 비슷하기 때문이다.

번거로운 상황은 땅바닥에 부딪히는 데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의사는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땅바닥에 부딪히지만 마세요.” 그렇게 말하였더라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중력이다. 땅바닥에 부딪히게 되는 이유는 중력 때문이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중력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어 이 말을 꺼냈다. 바로 중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력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2인치씩 달이 지구에서 멀어진다. 이 말 인즉슨 해마다 포테이토 칩 한 개 만큼 몸무게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땅에 부딪힐 때 충격이 덜하게 된다. 지금으로부터 5천억 년 후에는 거대한 나무에서 떨어지더라도 땅바닥에 부딪히지 않게 될 것이다. 공중에 떠서 날아가게 될 것이다. 미래가 기다려지지 않는가. 적어도 어떤 측면에서는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말이니. 알고 싶을 것 같기에 하는 말이다.

어쨌든 오늘 또다시 나무 위에 올라갔다. ‘해장술’ 이라고 해두자.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나무 위에서 보내게 되기를, 행복하였던 그 옛날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세상 만물에 대하여 생각했다. 부처는 말년에 어느 나무 아래에 오래도록 앉아 있다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데 나무 위에 올라 나뭇가지 위에 걸터앉았더라면 어떤 깨달음을 이루었을까? . . .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나무 위에서 보내게 된다면 중력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뀌게 될지도 모른다. 어르신들의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향을 나타내는 의미로. 상상해보라. 4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 여러분과 나, 그리고 우리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동네 공원에서 나무마다 올라가 있는 모습을. 사색하고 서로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을. 그리고 어느 자장가에서처럼 나뭇가지에 매단 아기 요람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가입을 원하시나요? 우편번호 30307,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시 국제 나무타기 연맹, 사서함 번호 5588



선생님은 말이 없다. 내가 이려고 있다니 세상에 맵소사,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고무장갑을 끼고 하얀 봉지에 손을 넣어 뇌를 꺼냈다. 진짜 인간의 뇌를.

학생들도 말이 없다. 선생님이 정말로 저러시다니 세상에 맵소사,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

저것을 넘겨받으면 나는 그냥 죽게 될 거야, 라고 학생들은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뇌를 건넸고, 학생들은 죽지 않았다.

뇌를 다시 넘겨받은 선생님은 미식축구를 하듯 테이블 반대편의 고무장갑을 낀 쿼터백에게 뇌를 던졌고, 쿼터백은 다시 고무장갑을 낀 타이트 엔드⁶⁾에게로 보냈다. 타이트 엔드가 뇌를 테이블 위로 떨어뜨리자 웃음이 터졌다. 뇌가 공처럼 툭툭 튀었다.

상황 설명을 하자면 이렇다. 소묘 수업 초반부에 나는 예술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뇌 과학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사진과 도표와 해부도를 가지고 강의하고 있었다. 뇌의 크기에 대한 감을 얻기 위하여 멜론을 주머니 받거나 하였는데 뇌는 어딘지 모르게 조금 막연한 면이 있었다. 학생들의 표정이 멍해졌고, 그것은 곧 따-분-해지기 시작했다는 말이었다.

6) 미식축구에서 공격팀의 포지션 중 하나

교육적 권태가 찾아온 순간, 한 1학년 여자아이가 말했다. “원하시면 학교에 사람의 뇌를 가지고 올게요. 아빠가 아주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순식간에 학생들 모두의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모습이란! “재가 뭘 하겠다고?!”)

알고 보니 이 학생의 아버지는 진짜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수인데 연구실에 유리병에 담긴 뇌가 아주 많아서 기쁜 마음으로 진짜 뇌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이라는 말이었다. 물론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지. “학교에 뇌를 가지고 오거라!” 그리고 교실을 나서는 학생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너희들은 모두 정신머리를 챙겨 오도록!”

과연 일주일 후에 ‘쇼애텔의 영원한 여왕’, 그 1학년 여자아이가 뇌를 봉지에 담아 들고 나타났다.

“저, 풀검 선생님, 어떠세요?”

‘아연 실색’이라는 단어가 쓰일 적절한 상황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러하였다. 학생들이 말하는 엄청나게 ‘우~와~’ 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다.

“선생님의 귀와 귀 사이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말했다. “지금은 완전히 생고기로 되어있고, 어제 먹은 발로니 샌드위치와 감자 칩, 그리고 초코 우유를 연료로 기능하고 있지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과거에 하였고 앞으로 하게 될 모든 것이 바로 이 고깃덩어리를 통과해요. 선생님이 만들었고 선생님이 사용하지요. 이것은 지구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이랍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손에 들고 있던 그 뇌는 아무 처리도 안 된 날 것이 아니었다. 포름알데히드에 보존된 것이었다. 그리고 사실 끈적끈적 하다거나 징그럽지도 않았다. 열은 베이지 색이었고 약간 축축하면서 고무 찰흙처럼 매끄럽고 부드러웠다. 그리고 우리가 주거나 받거나 한 딱 그 멜론만한 크기였다.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진짜 뇌는 무게가 거의 1.4kg이나 나간다는 것이었다.)

“이제는 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요. 호흡을 하고, 피를 운반하고, 단백질을 신체 곳곳에 공급하는 일은 전부 뇌의 화학작용과 전기 자극을 통한 것이랍니다. 일종의 모터지요. 모터에 대해선 우리도 알지요.”

“그런데 이 1.4kg나 되는 생고기 모터에는 선생님이 아는 모든 5행 희시⁷⁾와 칠면조 요리 레시피, 중학교 시절 탈의실 냄새, 슬펐던 일들 모두, 픽업트럭의 더

7) 19세기 영국에서 유행한 5행의 희시(戲詩). 1, 2, 5행과 3, 4행이 각각 압운한다.

블 클러치를 밟는 법, 아내가 젊었을 때의 얼굴, $E = MC^2$ 나 $A^2 + B^2 = C^2$ 와 같은 공식들, 초서가 쓴 캔터베리 이야기의 서시, 맏아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 울던 소리, 딸꾹질 치료법, 성 올라프 대학교의 응원가 가사, 50년 간 꾸민 꿈, 신발 끈 묶는 법, 대구 간유의 맛, 반 고흐가 그린 해바라기 그림과 듀이의 도서 분류 체계에 대한 이해와 그것의 사용법을 담고 있어요. 전부 다 이 고깃덩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1제곱센티미터 크기의 뇌에는 백억 비트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1초에 5천 비트의 정보를 처리한다고 해요. 그리고 용해된 바위 덩어리인 지구, 언젠가는 태양에 빨려 들어가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지구에서 까마득히 오랜 세월 동안 진화해왔어요.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내 말이.”

“우~와~” 하고 학생들이 입을 모아 탄성을 질렀다. 선생님은 리듬을 탔다. 됐어!

다시 한 번 뇌가 천천히 그리고 엄숙하게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다. 교실은 또 다시 고요해졌다. 우주의 신비가 눈앞에 있었고, 그 신비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다.

최근 25년간 진행된 뇌과학 연구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명제는 다음과 같다.

인간 두상이 각기 다르듯 그 내부의 생김새도 전부 다르다.

주위를 둘러보면 무수히 다양한 인간 두상이 보일 것이다. 피부, 머리카락, 나이, 민족적 특성, 크기, 색, 모양이 모두 다르다. 그리고 머릿속을 보면 그 다양성이 더욱 확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지식, 학습 방법, 정보처리 방법, 기억과 망각의 대상, 기능 및 대처 전략이 너무나 다양하다. 여기에 더해서 저 밖에 ‘존재’ 하는 ‘세상’은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이 투사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은 곧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 하는 인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동일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거의 믿기 힘들 정도다. 기껏 해야 우리는 존재에 대한 암묵적 동의하에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종류의 정보는 조금씩이나마 나와 함께 사

는 사람들에게 좀 더 너그러워지게 한다. “어째서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지?” 하고 반대를 하기보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세상에! 굉장한데!” 라고 반응하게 한다.

미주리 주 어딘가의 연구실에 병에 담긴 채 보존되어 있는 아인슈타인의 뇌가 떠오른다. 그의 뇌에 특별한 점이 있는 지를 알아보려고 떼어내어 연구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뇌는 특별하지 않았다. 우주의 신비를 가린 창에 금을 낸 것은 그의 도구가 아니라 그 도구를 가지고 그가 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미국 프린스턴에 있는 고등학술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을 당시, 한 손님이 찾아와 그의 실험실을 보여 달라고 하였다. 이 위인은 미소 짓더니 만년필을 들고는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다. (우~와~).



괴짜 춤 *Geek Dancing* 에 대해 아는가? (아니, 철자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리스 *Greek* 춤이 아니라 괴짜 *Geek* 춤이다.) 사실 괴짜 *geek* 란 단어는 사전에도 올라 있는데, 괴상한 행위를 하는 카니발 무용수를 가리킨다고 되어 있다. 이를테면 살아있는 닭의 머리를 물어뜯는 등의 행위를 말이다. 현대 은어로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사람, 즉 관심을 갖고 지켜볼만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쓰인다. 젊은이들은 이 단어를 나이가 많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고 있으며, 여기에는 일종의 존경의 의미가 들어있다. 조금 이상하지만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정말 그러한 것 같다. 우리 나이든 사람들은 상당수가 좀 별나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러 유전자 코드에 의해 머릿속의 스위치가 올라가고 나면, 입을 옷을 고르려고 옷장 안을 살펴보다가도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리게 된다. 이 시기는 예순 즈음 찾아오는데, 이때부터는 서슴지 않고 별난 행동을 하게 된다. 마트에 가려고 현관문을 나설 때 실내화를 신고 있더라도 되돌아가서 신발로 갈아 신지 않는다. 신발 따위 아무렴 어떠랴. 또는 아주 편하긴 해도 심히 낡고 찌적지한 목욕가운을 입은 채로 우편함을 확인하면서 누가 보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는다. 아니면 초인종이 울릴 때 거울을 보고 자신의 상태를 살피지 않는다. 그냥 문을 연다. 때를 못 맞춘 손님이 잘못된 것이므로. 그 손님이 누구든지 간에 말이다. 그래서 이제는 옷의 배색이 따로 놀게 되며, 이부자리

를 매일 정돈하지 않게 되고, 삶이 낡은 차와 같아진다. 굴러서 목적지까지 갈 수만 있으면 그만이지 차 외관을 누가 신경이나 쓰랴? 어떤 사람들은 이 경지를 꽃잎이 지고 한물간 시기라고 표현한다. 또 어떤 이는 지혜가 꽃피는 시기라고 한다. 마음에 드는 쪽을 택하시길.

그런데 피자 춤에 대하여 이야기하려던 참이었다.

기력이 없고 삶이 정체되어 일종의 ‘사회적 약자 우대조치’가 필요할 때 나는 춤을 추는 곳으로 간다. 술에 취할 목적으로 가서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어대는 술집이 아니라 춤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춤을 추러 가는 그런 곳 말이다. 나는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이제껏 춤을 진지하게 추는 사람치고 괜찮지 않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춤꾼들의 생각지도 못한 진면모를 발견할 때마다 매번 즐겁다. 살이 찌서 몸매가 망가진 데다 생긴 것도 별로이지만 춤에 대해서는 자못 진지한 커플이 무대에 올라 천사처럼 왈츠를 추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기분이 좋아진다. 길거리에서 그러한 생김새의 사람들이 보이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려다가도 내 안의 착한 내가 “아마 춤꾼들일 거야.” 라고 말을 하면, 그들에 대해 그리고 나에 대해 더 좋은 감정이 들곤 한다.

어쨌든 피자 춤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인 ‘올빼미 선술집’에서는 매주 일요일 밤 6시 반에서 9시 반 사이 초창기 재즈 음악이 흘러나온다. 그리운 옛 시절에 시카고와 뉴올리언스에서 유행하였던 스윙을 ‘피자’ 밴드가 연주하는 것이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사십대 이상의 블루칼라 노동자들로 월요일 7시 30분까지는 출근을 해야 하기에 맥주는 한 병만 마시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춤꾼들이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고 그 날의 우리 동네 ‘피자’ 챔피언 찾기를 즐겨한다. 보이지는 않으나 실내화를 신고 목욕 가운 차림을 한 것을 상상해볼 수 있는 노인, 머리는 벗겨지고 흰 머리가 자란데다 키는 작고 주름살투성이인 노인, 걸을 때 몸이 약간 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노인,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치면 오로지 양로원에서만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노인 말이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이곳에서 보인다면 그는 춤꾼이다. 피자 춤꾼.

이들은 보통 ‘괴짜’ 아내를 동반한다. 괴짜 아내는 남편보다 조금 젊고, 춤을 추는 날이면 언제나 볼륨감이 있는 머리를 하고 나타나는데 50년 간 변함없이 그래왔다. 구두를 살펴보자. 중간 높이의 굽에 발등을 감싸는 스트랩이 달린 검정 구두를 신고 있다면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 그리고 곧 무엇을 하려는 지는 뻔하다.

음악 소리가 커지고 괴짜 춤꾼이 괴짜 아내의 손을 잡고 절뚝거리듯 무대에 선다. 이것은 일종의 ‘쇼’로 관중을 ‘뉘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시작되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그의 품으로 그녀가 다가서자 시간은 거꾸로 흘러 다시금 신데렐라와 왕자가 된 그들은 무대 위를 흐르는 음악 속으로,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을 흐르는 음악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파트너와 이런 식으로 춤을 출 수 있으려면 약 40년의 시간이 걸린다. 말없이 완성된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이렇듯 여유 있고 우아할 수가 있을까. 괴짜 춤꾼은 춤이 서투른 면이 있었으나 그의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괴짜 아내는 보이지 않는 제안에 응답하여 빙글 돌아나갔다가 회전한 뒤 돌아왔다. 이따금 그들이 눈을 마주칠 때 관중은 저 무대에 제법 행복한 결혼 생활이 펼쳐지고 있음을 느꼈다. 이들과처럼 할 수 있으려면 서로를 오랫동안 사랑해야 할 것이므로.

때로 괴짜 남편은 다른 여성에게 춤을 권한다. 그러면 대개 또 다른 남성이 괴짜 아내에게 춤을 신청한다. 이들 괴짜 춤꾼들은 어떤 이와 춤을 추든지 간에 그 상대를 상당히 멋있어 보이게 해준다. 그리고 장담컨대 기분도 상당히 좋게 해준다. 한 번은 이와 같은 날 저녁에 어느 81세의 괴짜 여인이 나에게 춤을 추자고 하였다. 나는 최선을 다해 추었고 그녀는 줄곧 내 곁에 있어주었다. 그리고 나의 안내를 받아 자리로 돌아가면서 그녀는 “어쩐 그렇게 춤을 잘 추시우?”라고 말했다. 이 칭찬은 일주일 동안 삶의 활력이 되어주었다.

나는 괴짜 춤꾼이 되고 싶고 그렇게 될 작정이다. 그래서 나의 괴짜 아내와 함께 춤 동작을 연습하고 있다. 사람들이 최대한 오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스스로도 모범이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나는 침대에 누워 조용히 죽고 싶지는 않다. 어느 멋진 밤 마지막 막으로 춤을 춘 뒤 의자에 앉아 미소 지으며 세상을 떠나고 싶다.

호피 인디언들에 대하여 들은 이야기가 떠오른다. 호피 인디언들에게는 기도

와 춤이 크게 다르지 않다. 둘 다 장수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많은 일을 겪은 뒤에도 건재한 호피 인디언들이기에, 그들이라면 필시 장수의 비결을 알고 있지 않을까 싶다. 그들은 또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면 심장이 평온해야 하며 춤을 추는 날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옳은 말씀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수년간 성탄 연극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우선 성탄절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바뀌어, 주일 학교 학생들이 각자 집에서 조용히 성탄절을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마지막으로 전력을 다해 성탄극을 준비했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성탄극이 열리는 주에 풍진과 수두 그리고 홍콩 독감이 유행하였고, 성탄극 날 밤에는 진눈깨비를 동반한 폭풍이 몰아쳐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이 발생하는 바람에 몇몇 성도들이 일을 쉬어야 했으며, 행사를 위해 빌린 양들 중 한 마리는 설사병에 걸렸다. 물론 이 정도야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요셉과 두 명의 동방박사가 연극 도중에 구토를 하고 천사들은 용케도 울음을 터뜨리면서 동시에 바지에 오줌을 지리는 것이 아닌가. 설상가상으로 성가대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조심성 없이 걸어 다니는 바람에 지상의 평화가 아니라 화재의 공포와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그 날이 그렇게 엉망이었다고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어쩌면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 같은 해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교회의 나이든 여성 성도들 상당수는 그 같은 소동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성탄극을 또 하자는 말은 입도 병긋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치 콜레라가 다시 유행하여 그로 인한 고초를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향수는 질었고, 이 같은 의례의 고초를 겪어보지 않아서 설득이 통하지 않는 젊은 엄마들의 간청을 듣고 나니 나이든 여성 성도들의 머릿속이 향수

로 어지럽혀졌다. 이제는 그들의 자녀들이 기회를 가질 차례였던 것이다.

“좀 더 알아보고.” 라는 말로 일관하던 사람들이 어느새 낡은 침대 시트와 카드보드지 그리고 닭 깃털로 천사 의상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동방박사의 의상으로 적당한 목욕 가운을 찾지 못하자 몇몇 아빠들은 새 목욕 가운을 사온 다음 낡은 느낌을 주려고 트럭을 후진해서 깔아뭉쳤다. 한 젊은 엄마는 임신 중이었는데 성도들이 애정 어린 말투로 12월 초에는 꼭 출산해서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였고 산모는 노력하겠다고며 굳게 약속하였다.

천사 성가대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진짜 밀짚을 채운 진짜 여물통을 구했다. 이번에는 살아있는 양은 쓰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으나 어느 진취적인 영혼이 용케도 작은 염소 두 마리를 빌려왔다. 정말로 대단하였던 것은 마리아가 타서 입장할 산 당나귀를 빌려 온 것이었다. 우리들 중 누구도 살아있는 당나귀가 사람을 태우고 교회 성단소를 거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으나 당시에는 그것이 아주 괜찮은 생각 같았다.

그러나 한 가지에 대해서는 온전한 정신으로 판단을 하였다. 성탄극을 날이 밝은 일요일 오전에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서로의 행동을 살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천사 성가대 학생들이 어둠이 무서워서 울거나 바지에 오줌을 싸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양초도 쓰지 않기로 하였고 최종 리허설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성탄극은 좌우간 좀 부자연스럽게 질질 짜는 맛이 있어야 하고, 게다가 누구도 이 전부를 두 번이나 하려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대망의 그 날이 왔고 모두가 교회에 도착하였다. 개중에는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던 남편들도 있었는데 십중팔구 인근에 버스 사고가 났을 때 구경을 가게 되는 것과 같은 동기에서 왔을 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다. 적어도 처음에는 말이다. 묶여있던 끈이 풀리면서 염소가 주차장에서 탈출을 하는 바람에 목동들이 한바탕 로데오를 선보이긴 하였으나, 우리는 큰 소리로 캐럴을 불렀고 천사 성가대는 첫 곡을 거의 정확한 음정으로 제창하였다. 베들레헴의 별이 여물통 위에서 빛나자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할 차례가 되었다. 마리아는 빌려온 당나귀를 타고 등장하였는데,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임산부의 출산이 늦어지는 바람에) 누더기 인형을 안고 있었다. 그런데 이 당나귀가 바로 실패의 원인이었다.

당나귀는 성단소의 문을 통과하면서 두 번 주저하는 걸음을 하였고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는 움직이려하지 않았다. 다리를 땅에 박고는 사후경직이 훨씬 지난 상태 마냥 온몸이 시멘트처럼 굳어버리면서 행진을 멈추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라면 당나귀가 다시 움직이도록 해봄직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일요일 오전 교회에서 여성과 아이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조치에는 한계가 있었다. 성모 마리아는 고삐를 당겨보기도 하고 발로 힘껏 차보기도 하였으나 소용없었다.

예배 복장을 하고 맨 앞줄에 앉아 있던 교회 재단 이사장이 구출에 나섰다. 성단소는 광을 낸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한 남성이 고삐를 잡아 당겼고, 이사장은 당나귀 엉덩이 뒤쪽에 쭈그리고 앉아 그 뻗뻗한 짐승을 밀어서 천천히 안으로 미끄러뜨렸다. 1인치씩 품위 있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자 성가대 지휘자가 녹음기를 켜고 필라델피아 관현악단이 연주하고 물론 태버내클 성가대가 부른 웅장한 합창곡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당나귀와 두 남성이 교회 중앙에 이르렀을 때 녹음기의 퓨즈가 나가면서 갑자기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 정적의 순간 당나귀 엉덩이 뒤에서 부아가 치민 목소리가 들려왔다. “망할 놈의 자식아, 좀 움직여!” 그러자 곧 교회 뒤쪽에서 당나귀를 밀던 사내의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레온, 그 꼴사나운 입 좀 다 물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당나귀가 시끄럽게 울어대기 시작하였다. 만약 이날 우리가 멍청이를 뽑는 선거를 치렀다면 후보로 지목되었을 이들이 꽤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표는 고르게 나누어 가졌을 것이다.

살아가는 모습을 보노라면 우리는 정말로 재미있는 존재가 아닐 수 없다.

교회에서 성탄극을 다시 개최한 이후로 수년이 지났지만 나는 그 성극이 마지막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웃었던 기억이 짜증났던 기억보다 오래 가기에. 그리고 언제나 희망이 이번에는, 올해에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기에.

이런 게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한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삶이고, 다만 이러한 삶의 모습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날인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되풀이할 것이다. 열광하고 당황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화가 날 것이다. 또한 신이 나고 희망에 차고 조용히 기뻐할 것이다. 웃고 울고 토라지고 숙고할 것이다. 술에 취해서 극단적인 언행을 할 것이다. 포옹하고 입맞춤하고는

영망진창으로 만들 것이다. 돈을 흥청망청 써댈 것이다. 그리고 항상 누군가는 구토를 하고 바지에 오줌을 지릴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노래는 몇 소절만 부르고 음정은 대부분 맞추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일을 하고 또 하고 또 반복할 것이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영망진창인 성탄극 그 자체이므로.

그리고 일어날 일은 그냥 일어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한다. 적어도 내가 아는 어떤 이가 증명해 보였듯이 문제는 일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에서 비롯된다.



‘숙고’를 해본 적이 있는가? 예수 탄생 이야기에서 이 단어를 본 이후로 줄곧 ‘숙고’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왔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숙고하였다.”고 성경에는 쓰여 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볼 때 그녀가 숙고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 마구간의 뒤 칸에서 한 십대 소녀가 막 아이를 낳았으나 아버지가 대체 누구인지 혼란스럽다. 그리고 남편은 그 지역의 통치자인 헤롯 왕이 영아들을 살해하기로 한 사실과 세금에 대해 구시렁거린다. 이것만으로는 생각할 거리가 충분치 않다는 듯 점성술사들과 목동들과 천사들이 쉽 없이 찾아와서 질문과 선포와 합창을 하고 간다. 게다가 마리아와 좁은 공간에서 움짱달짝 못하고 있는 동물들은 말을 한다. 히브리어를 말할 줄 아는 소는 혼치 않지만 그 소들은 할 줄 알았던 모양이다. 이로 인하여 분명 무엇인가 할 거리가, 깊이 생각할 거리가 생겼을 것이다. ‘숙고’는 마리아가 하고 있었던 것을 완벽하게 묘사한 단어라고 하겠다.

그 옛날 읍도 노년에 잣더미에 앉아 그와 같은 생각하기를 많이 하였다. 그리고 요나, 그는 김이 자욱한 어둠 속, 반쯤 소화된 오징어와 위액이 차오른 고래의 뱃속에 앉아 있었다. 이들도 분명히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숙고를 한다. 매년 새해 연휴가 끝난 뒤 3~4일 간, 특별한 일이 없기에 특별한 기간이 되는 그 시기에. 마침내 모든 것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첫날. 친척들이 다녀갔고, 크리스마스도 왔다 갔다. 어찌 흘러갔든 간

에, 좋았든 나빴든 그저 그러하였든, 지나갔다. 한 해의 마지막 날도 새해의 첫날도 모두 끝났다. 시끌벅적하게 놀며 보냈든 그냥 잠이나 자면서 보냈든 다 끝났다. 연휴 기간에 너저분해진 것들을 치웠고 집안 정리를 했고 남은 음식물은 쓰레기와 함께 배출하였다. 세금을 신경 쓰기에는 너무 이르고 정원을 손질하기에도 너무 이룰 때다.

그렇다고 모든 게 다 멈춰 선 시기인 것은 아니다. 일요일 오후 동네를 거닐다 보면 삶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 봄의 새싹이 나무에서 움트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리고 수선화와 크로커스는 화단 깊숙이 파묻힌 뿌리에서 무언가의 움직임を感じ고 있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도 자신의 뿌리에서 어렴풋한 떨림을 느끼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느새 낮이 길어졌다.

숙고는 근심하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혹은 명상하는 것도 아니다. 무엇인가 궁금하여 깊은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올해 숙고의 날 오후에 나는 생각했다.

오래 전 사랑했던 여인들에 대해 생각했다.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변했을까? 내가 아까운 사람을 놓친 것일까? 찾아내어 전화를 걸면 어떻게 될까? (“여보세요, 나야!” “누구세요?”)

지금은 모르고 있으나 내년 이맘때면 세상을 떠나고 없어 숙고하지 못하게 될 모든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다. 지금 미래를 아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내년 이맘때에도 세상에 존재하긴 할 것이나 부모의 욕망에 휘둘리며 현재를 살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떨까?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들, 특히 부당한 처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다. 이들에게도 희망이 있을까?

숙고의 날 생각하기를 하던 중에 나는 나 자신과 ‘비밀’ 협정을 맺었다. 새해 결심과 같은 바보 같은 다짐이 누군가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기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무언의 다짐, 어긴 것을 들켜더라도 비난할 사람이 없도록 혼자만 알고 있다가 무엇을 하기로 하였든 지키지 않는 그런 다짐 말이다. (한 번은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잘 한 일들을 전부 나열한 다음 그것을 새해 결심의

형식으로 바꾸고 낱자를 소급해서 적었다.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졌다.)

숙고하기를 하다가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렸다. 겨울 방학이 끝나고 개학하면서 맞는 첫 주에 나는 몰래 마음속으로 올해에는 더 잘 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그리고 며칠 동안은 정말로 더 잘 했다. 어려서는 관심을 끄는 일이 많기에 항상 그 모습을 유지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며칠은,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지속되는 며칠 동안은, 정말로 더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말이다.

이제 중년에 접어들어 보다 신중하고 어렵풋하면서 경험에 비춘 생각에 잠겨 거의 무의식적으로 똑같은 다짐을 한다.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과 교황과 모든 인류, 우리는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이야기가 생각난다. 어느 사내가 왕의 말을 발견하였는데 그 말이 왕의 말 인지를 모르고 갖고 있다가 왕에게 발각되어 붙잡혔다고 한다. 왕의 말을 훔친 죄로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한 그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다가 아뢰었다. “별은 기꺼이 받을 것이오나 왕께서는 말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이까? 그러하시다면 말하는 말로 인해 더욱 위대한 왕이 되실 것이 온데.” 그러자 왕은 손해 볼 게 있는지를 따져보고는 “알겠노라.” 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그에게 1년의 말미를 주었다. 사내의 친구들은 그를 바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 혹시 모를 일이야. 왕이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세상이 끝날 수도 있고, 왕이 잊어버릴 수도 있지. 그리고 어찌면, 정말 어찌면, 말이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네.”

그래서 아내가 나더러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물었을 때 “말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소.” 라고 하였던 것이다. 궁금하여 깊이 생각할 거리를 준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시나요?” 비행기에서 만난 낯선 이에게 던지는 기본적인 질문. 학부모 포틀럭 모임이나 기업의 카테일파티, 또는 서서 돌아다니다가 담소를 나누는 자리라면 어디서든 이 질문이 나온다. 정중하게 베일로 감추었으나 사회적 지위를 밝히기 위한 신분 조사이다. 이 질문의 행정상 서술방식은 간결하다. ‘직업’란을 채우십시오. 국세청은 이 방식을 선호한다. 딱지를 떼어주는 경찰이나 여권 발급 대행사 그리고 은행도 마찬가지이다. 돈을 받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식이다.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는 지를 물으면 대개 본인의 신원을 요약한 가로 9센티미터 세로 5센티미터의 뾰뾰한 종이를 준다. 이름과 회사명, 직책, 주소, 거기다 전화번호와 텔렉스 번호, 케이블 번호, 팩스 번호 등 수많은 숫자들이 적힌 명함 말이다. 요새는 명함이 없으면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여기질 않는다. 하지만 나는 명함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여행 도중에 만난 이의 명함에 유니코의 시스템 분석 담당 부사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런데 진짜로 하시는 일은 뭔가요?” 내가 묻자 그는 내가 그의 명함을 제대로 보지 않기라도 했다는 듯 명함의 직책을 가리켰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제 말은 만일 제가 부사장님을 종일 따라다닌다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느냐는 것인데요.” 그는 오랫동안 이야기 하였

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스스로도 알고 있을지가 의심스럽다.

내가 답할 차례가 되었을 때 나에게는 명함이 없었다. 그 작은 종이에다 나를 표현해내기란 불가능해보였던 탓이다. 내가 하는 일은 뭐랄까 좀 복잡하고 설명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개는 그 질문을 피해서 진실이지만 완전한 진실은 아닌 단순한 무언가를 골라서 답을 하곤 한다. 하지만 나는 이 전술로도 궁지에 빠진 적이 있다.

이른 아침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비행기 안, 옆 좌석에 앉은 여성 승객에게 나를 청소부라고 소개하였다. *(내가 삶을 어떻게 보내왔는지를 생각해보면 상당 부분이 청소와 정리정돈과 쓰레기 버리는 일로 채워져 있다. 물론 청소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많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을 것이고, 책을 읽도록 내버려 둘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말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작은 신문사에서 주부 칼럼을 쓰는 일을 하고 있었고, 남은 비행시간 동안 집안 살림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어 기뻐하였다. 덕분에 나는 카펫의 얼룩을 지우는 방법에 대하여 바라지 않았던 것 까지 알게 되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녀는 내가 일요일에 전도하게 될 교회의 성도였다. 그 사실을 나는 강단에 섰을 때 세 번째 줄에 앉은 그녀를 보고서야 알았다. 또한 그녀는 처음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고, 비행기 안에서 청소부라고 한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고가 유연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또 한 번은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1등석으로 좌석이 옮겨지면서 눈길을 끄는 외모의 시크교도 신사 옆에 앉게 되었다. 값 비싼 보석을 많이 달고 있었고 고급 옷차림을 하였으며 금니를 내보이고 있었다. *(상류 계급의 상인이 아닐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가 예의 그 무슨 일을 하느냐는 질문을 하였을 때 나는 떠오르는 대로 신경외과 의사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그가 기뻐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연이! 나도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진짜 신경외과의사였다. 얽힌 것을 푸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으나 우리는 방콕으로 가는 내내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10초 동안은 귀머거리에 병어리가

기도 한 사람 이고픈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교훈을 얻고서 다음 번 비행기를 탔을 때였다. 호감 가는 이가 옆 좌석에 앉아 있기에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재미로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각자 자신의 직업을 꾸며내어 시카고에 도착할 때까지 연기를 하는 것이었다. 그가 좋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을 간첩이라고 선언하였고, 나는 수녀가 되기로 하였다. 우리는 미칠 듯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살면서 이만큼 즐거웠던 대화도 없었다. 그는 아내가 “여보, 비행은 어땠어요?” 라고 물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트워드 정장을 입은 수녀가 있었는데 말이야 . . .”

그러나 정작 기겁할 정도로 이 대화에 깊은 인상을 받은 이들은 우리 뒷좌석에 앉아있었던 그린베이에 사는 중년 부부였다. 이들 부부는 수녀와 간첩의 이야기를 충격과 침묵 속에서 듣고 있었다. 이들이야말로 “비행은 어땠어요?” 라는 질문에 진정 할 말이 있을 것이었다. 이 중년 남편은 공항 탑승동에서 나를 지나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수녀님.”

서류 양식을 작성하면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한번은 은행에서 국세청 문서의 직업란에다 ‘왕자’ 라고 썼다. 바로 그날 아침에 아내가 “여보, 당신 가끔은 진짜 왕자님 같다니까.” 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왕자처럼 굴 때가 있다. 그래서 그날따라 왕자라는 느낌이 들기에 공란에다 그렇게 적었던 것이다. 그러나 은행 직원은 ‘왕자’ 라는 직업을 처리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정체성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되는 것에 대하여 친구처럼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게 되었다. 즉, 직업이란 돈을 받고 하는 일인가, 아니면 그 보다 크고 폭넓고 다채로운 것, 다시 말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혹은 나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문제와 관계되는 것인가?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삶을 사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생계를 꾸려가는 것과 가치 있는 삶을 꾸려가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나에게 좋은 삶을 사는 것과 그저 좋은 삶을 사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직함은 ‘무슨 일을 하시나

요?’에 대한 답으로서 전혀 충분치 않다.

1940년 이전 시기의 순수미술계에서 ‘불박이’로 여겨지는 마르셀 뒤샹도 그 표준화된 질문이 내포한 의미에 똑같이 곤혹스러워하였다. 그는 “나는 호흡가(呼吸家)요.”라고 답하곤 하였다. 다른 무엇보다 숨쉬기를 가장 많이 하고, 또한 아주, 아주 잘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면 사람들은 대개 그 외에 또 무슨 일을 하는지를 묻기 어려워하였다.

물론 나도 이해한다.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는 이에게 매년 200쪽짜리 자서전을 나눠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하여 돈을 벌기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큰 기쁨을 주거나 자신이 인류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일로 답을 한다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면 복 받은 줄 알고 감사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다.)

관점을 조금 바꿔서 무슨 일을 하느냐는 질문에 일상적인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기준으로 답을 해보자. 나라면 수면가(睡眠家)나 오수가(午睡家)라고 할 것이다. 잠을 자고 그 일을 매우 잘 하는 사람 말이다. 올림픽에 낮잠 자기 종목이 있다면 나는 분명 금메달을 목표로 할 것이다. 24시간 중 8시간을 침대에서 자면서 보내고 매일 오후 30분 간 낮잠을 잔다. 이것은 인생의 1/3도 넘는 시간이다. 내가 살아서 75세가 되면 25년 이상을 자는데 쓴 것이 된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한 장소에서 보내면서 하는 활동도 또 없다. 또한 잠 들어있는 동안은 누구도 나로 인하여 아파하거나 고생하지 않으며, 수면은 환경에도 전혀 해가 없는 활동이다. 이 활동을 얼마나 잘 하는 지에 따라 돈을 벌었더라면 나는 정말로 대단한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사람들의 수면 시간이 길어지거나 하다못해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만이라도 늘어나게 된다면 세상은 더욱 살기 좋아질 것이다. 깨어있을 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도 베개에 침을 흘리며 자는 동안에는 신경 쓰이지 않는다.

오늘 나에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가수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노래를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어떨 때엔 친구들이 돈을 줄 터이니 노래하지 말아 달라고 까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래를 부

르는 것이 참 좋다. 샤워할 때나 출근하면서, 일하다가, 점심 식사하러 가는 와중에, 또는 라디오에서 아는 노래가 흘러나올 때 나는 노래한다. 노래는 내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내게 이 열정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함께 주지는 않으셨다. 짐작케 평해서 내 음정은 ‘애매’ 하다고 할 터이니. 머릿속에서는 음악이 들리는데 그것이 제대로 재생이 안 되어 그렇다. 그래도 내 귀에는 좋기만 하다. 살면서 뮤지컬 주연을 해보려고 수도 없이 지원하였으나, 매번 나는 코러스가 제격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는 유별나게 나만의 방식(?)으로 부른다는 이유로 코러스 파트에서조차 제명되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의 아빠라는 사실이 참 좋았는데, 어려서 음악에 대한 잣대가 없었던 우리 아이들은 못한다는 잔소리 없이 나와 함께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다. 가사를 다 모르더라도 음정을 못 맞추더라도 상관없었다. 완전히 새로운 곡을 만들어냈기에. 우리 가수들은 사소한 것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가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그뿐이다.

가끔 무슨 일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 정부기관의 일을 한다고 말할까 싶을 때가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부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시민이므로. 대법원 판사직처럼 이 일도 평생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복지도 내게 달렸다. 그러므로 선출직을 지망하는 사람들에게 책무를 다할 것을 기대하듯, 나 역시 나의 업무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나는 나의 업무 성과에 대하여 떳떳하고 뿌듯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는 일’이란 말 그대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다. 1988년 가을 이 글을 쓰는 시점에 계산해보니 여태껏 살아오면서 먹는 데 35,000 시간을 썼고, 이동하는 데 30,000 시간을 썼으며, 이를 닦는데 2,508 시간, 기타 자질구레한 일들을 처리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수선하고 수리하고 공과금을 납부하고 옷을 갈아입고 신문을 읽고 회의에 참석하고 병으로 앓는 등의 일에 870,000 시간을 썼다. 그리고 일터에서 217,000 시간을 보냈다. 더하기 빼기를 다 하고 나면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좋아하는 일들을 어떻게든 끼워 넣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온갖 나머지 일들을 하는 시간에 같이 넣어야 한다.

이 때문에 내가 삶의 의미를 고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심오한 것은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살면서 매일, 매시간, 무슨 일이든 그 일을 하는 와중에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사실 이제는 나에게도 명함이 있다. 무엇을 기입해야 할지 드디어 생각이 난 것이다. 한 단어로 ‘풀겸’ 이라고. 그것이 나의 업이다. 그리고 이 명함을 건네면 즐거운 대화가 이루어진다. 내가 하는 일은 가장 나답게 사는 것이다. 그것은 아들로써 아버지로써 남편으로써 친구로써, 노래하고 춤추고 먹고 숨 쉬고 자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목욕하고 수영하고 달리고 걸으면서 살아간다는 뜻이다. 또한 예술가로 작가로 화가로 교사로 목사로 시민으로 시인으로 카운슬러로 이웃으로, 꿈꾸고 바라고 웃고 여행하고 순례하는 등등의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당신과 나, 우리는 무한하고 다채로우며 크고 모순적인 살아 숨 쉬는 기적이다. 자유로운 존재이며 하나님과 영원한 우주의 아이들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 이다.



미국 고등학교에는 대개 운전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있다. 운전 교육 훈련소의 상사라고나 할까, 힘만 들고 보상은 없는, 교직원 서열에서 타이핑 교사 정도의 대우를 받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직업이다. 운전 훈련 교사는 말하자면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다. 학부모들은 결코 그와 면담하는 일이 없다. 교직원들은 그를 내부 조직에 끼워주지 않으며, 학생들은 그를 필요악으로 생각한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굽실거리야 하는 또 한명의 어른. 반 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며,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큰 꿈이나 재능 또는 기술이 없다.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간이라도 운전을 가르쳐보고 싶다. 이제는 운전 교육에 대하여 페리 옹처럼 생각하고 있기에 영광스러울 것이다. 학생들이 그를 그렇게 부른다. ‘페리옹’ (진짜 이름은 아니다)이라고. ‘운전 사부’ 나 ‘오비완 케노비’ 라고 부르기도 한다.

오비완 케노비는 스타워즈 3부작에 나오는 현자의 이름이기에 학생들에게 그를 그렇게 부르는 이유를 물었더니, 나더러 직접 타서 확인해보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하였다.

잭 페리. 키가 크거나 작지도 않고, 뚱뚱하거나 마르지도 않으며, 늙거나 젊지도 않고, 이성애자나 동성애자처럼도 보이지 않는 매우 평균적인 외모의 소유자. 그는 뭐랄까 평범한 사람이다. 길거리에서 눈에 띈다거나 만에 하나 주의를 끄는 것을 하여 경찰의 용의자 선상에서 범인으로 지목될만한 인물이 아니다. 전직 해

군 중사에 퇴임을 하였으며 아내가 있고 장성한 아이 넷을 두었다. 개신교도이며 취미로 정원을 가꾼다. 자동차와 아이들을 좋아해서 운전 교사가 되었다.

(다음의 대화는 내가 페리씨와 나는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재구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 내가 공유하고자 하는 바는 이 대화에서 드러나는 정신이다. 무뚝뚝한 남자 책은 실제로 내가 기술한 것보다 훨씬 말이 적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생각을 하다가도 손사래를 치며 “그 다음은 아시겠지요.” 라고 하는 식이었기 때문이다. 이 글을 보여주자 그는 자신이 실제로 말한 것보다 더 낮다고 하였다. 하지만 조금도 잘못되었다고는 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그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말할 때보다 들을 때가 훨씬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 선생님이 바로 그 운전 교사로군요?
- 음, 그게 제 직함이긴 합니다. 네.
- 진짜 하시는 일이 뭔지 궁금합니다. 학생들 말로는 페리씨가 학교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 중 한 명이라고 하더군요. 어떤 학생은 “짱 멋진 샘” 이라고 했고요.
- 정말 알고 싶어요?
- 정말 알고 싶어요.
- 이런 말은 주제넘게 들리겠지만 저는 제가 무당이라고 생각해요. 젊은이들이 통과 의례를 거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요. 제 임무는 학생들로 하여금 인생의 이 시기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거의 열여섯이예요. 학부모나 교사가 인정하는 것보다 삶과 성, 술, 마약, 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죠. 게다가 육체적으로도 이미 자랄 만큼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젊은이들이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줄 문화적 의례가 없어요. 의식을 거행한다거나 옷차림 또는 역할이 바뀌는 일도 없고,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 성인이다, 라고 밝혀주는 공식적인 발표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란 겨우 운전 면허증을 주는 겁니다. 차가 생기면 뒷좌석

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해요. 더 이상 승객이 아닌 거죠. 본인이 운전대를 맡게 됩니다. 어디로든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이제 힘이 생겼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학생들과 하는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힘이요.

- 하지만 자동차 조작법을 실제로 습득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 아, 그건 운전 실습 와중에 조언을 듣는 것과 운전 매뉴얼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게다가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들 합니다. 저는 운전면허시험에 통과해야 한다는 등의 말은 많이 하지 않아요. 대개 저절로 되거든요.
- 그렇다면 운전 실습 중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시죠?
- 성인이 되어 생기는 힘과 기회, 책임에 대해서요. 그리고 꿈과 희망과 두려움, 즉 ‘언젠가’와 ‘만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저는 주로 듣는 쪽입니다. 제가 학부모나 선생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웃이나 정신과 의사도 아니니까요. 게다가 학생들은 저와 단둘이 차에 앉아서 운전 연습을 할 때 말고는 저를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게는 안심하고 말을 해도 되는 것이지요. 학생들은 제게 사랑과 돈과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가 그 나이였을 때 어떠했는지를 물어봅니다.
- 제 주행 연습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실력이 늘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는 나갔다. 그리고 과연 그러했다. 운전 실력이 늘었고 더불어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와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

‘운전 사부’와의 만남은 어느 옛 이야기가 들려주는 심오한 진실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 이 이야기를 모른다면 진작 들어봤어야 할 것이고, 설령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따금씩 다시 들어도 좋을 이야기이다.

이탈리아에서 온 한 나그네가 프랑스의 샤프트르라는 마을에서 건설 중인 대성당을 보러 갔다고 한다. 날이 저물 무렵 마을에 도착하여 공사 현장에 가보니 일꾼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나그네는 먼지를 뒤집어 쓴 일꾼에게 그곳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는 자신이 석공이라며, 돌을 깎는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대답했다. 다른 이에게 물었더니 그는 석유리판을 만

드는 일을 하며 사는 유리공이라고 하였다. 또 다른 일꾼은 철을 두드리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대장장이라고 하였다.

나그네는 공사 중인 건물의 깊은 어둠 속을 헤매다가 어느 노파와 마주쳤다. 빗자루로 무장한 그녀는 그 날 작업에서 생긴 돌 조각과 나무 부스러기, 유리 파편 등을 쓸어내고 있었다. 그가 물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노파는 하던 일을 멈추고 빗자루에 기대어 우뚝 솟은 아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나 말이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당을 짓고 있다오.”

나는 종종 샤프트르 마을 사람들을 생각한다. 그들은 완성된 모습을 결코 보지 못할 것임에도 그 일을 시작하였다. 자기 자신보다 커다란 무언가를 위해서 지었다. 그들에겐 커다란 꿈이 있었다.

잭 페리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학생들이 성장한 모습을 보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그러하다. 하지만 페리는 그가 있는 곳에서 그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바람직한 세상의 모습을 꿈꾸고 실현해 나간다.

샤프트르의 노파는, 운전을 가르치면서 그만의 조용한 방식으로 인류의 과업을 위하여 성당을 짓는 한 인간의 정신적 스승이었다. 그에게서 아이들은 차를 달리고 인생을 달리는 법을 배운다. 조심스럽게.



설거지를 하고 싱크대를 물로 헹구고 나면 싱크대 바닥 거름망에는 내가 당분간 그 ‘물질’ 이라고 부를 것들이 남아 있게 된다.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지성인이라면 그것을 배수관을 타고 내려가기에는 너무 큰,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 섬유질로 이루어진 음식물 분자의 혼합물일 뿐이라고 할 것이다. 저녁식사 이후에 생기는 ‘비듬’ 이라고나 할까.

게다가 그 지성인라면 그 물질이 먼저 조리 시 고열로 살균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제와 개수대의 뜨거운 물로 세척이 된 후 헹구지기까지 하였다고 할 것이다. 아무 문제없다.

그러나 설거지를 하기 위해 끌려간 십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이 같은 설명이 거짓말임을 알고 있다. 싱크대 거름망 밑바닥에 있는 그 물질은 유독성 폐기물, 즉 치명적인 독이며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다. 다시 말해서, 이보다 더 찼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내가 열세 살 때 어머니를 존경하였다면 그 몇 가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어머니는 싱크대에 맨손을(맨손 말이다!) 넣어 그 치명적이고 끈적끈적한 오물을 꺼내고는 쓰레기통에 털어 넣곤 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어머니가 젖은 쓰레기봉투를 맨손으로 뒤적이다가 잃어버렸던 찻숟가락을 찾는 모습도 보기도 하였다. 미친 용기라고나 할까. 어머니는 먹다 남은 스크램블 에그와 야채수프에 섞인 커피 찌꺼기 덩어리에서 그 숟가락을 찾아냈다. 나는 어머니가 그 것

을 내게 건네며 씻으라고 하셨을 때 거의 실신할 뻔하였다. 그 어떤 십대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장갑과 마스크, 스테인리스 집게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그 손가락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다.

한 번은 학교에서 ‘oudure’ 라는 불어 단어를 발견하였다. 선생님이 그 단어의 의미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이라고 하였을 때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알았다. 매일 밤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싱크대 바닥에서.

설거지를 할 때 어머니에게 새로 배운 단어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이 바보 같은 아들이, 라고 하는듯한 눈초리를 보내시고는, 내가 방금 저녁으로 먹은 음식도 지금 뱃속에서 그와 같은 상태로 ‘썩고’ 있을 것이고, 게다가 그 음식물은 나의 ‘배수관’ 을 통과하기 전에 세척도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셨다. 만약 어머니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과 단면 두께가 2인치에 폭이 4인치인 각목으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하셨더라면 나는 한 대 맞는 쪽을 택하였을 것이다.

나는 집에 음식물쓰레기처리기와 자동식기세척기를 들이자고 오랫동안 열심히 로비를 하였다. 그 오물을 만져야 하는 불상사가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발생하지 않도록 이 기기들이 발명되었음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부모님이나 객관적인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는 싱크대 배수구의 물질이 목숨을 위태롭게 하며 신체에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확신했다. 나병이나 그 보다 더한 병이 생길 수도 있었다. 만에 하나 사고로 그것을 만지기라도 했을 경우, 만진 손을 뜨거운 물에 담가 비누로 씻고 물로 헹구기 전에는 그 손으로 다른 신체 부위를 만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물질이 엉기어서 흐물흐물해졌다가 괴생물체로 변이하여, 밤중에 싱크대 밖으로 기어나와 온 집안을 활개 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냥 고무장갑을 끼면 되지 않느냐고? 왜 그러시나. 고무장갑은 계집애 같은 사내들이나 쓰는 것이다. 게다가 어머니는 맨손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아버지는 평생 싱크대에서 1미터 이상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버지더러 게으르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 찌꺼기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아버지도 알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 번은 저녁 식사를 하고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다. 예수께서는 절대로 설거

지를 하신다거나 싱크대의 오물을 처리하실 필요가 없으셨을 거라고. 아버지도 그 말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나눈 유일한 신학적 대화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훨씬 더 끔찍한 물질로 변기가 막혔을 때 고무압축기를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아버지가 그 일을 할 때에 나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 알고 싶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어른이다. 게다가 어른이 된 지도 한참이 지났다.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상황을 상상 해본다. 우선 학생들에게 어른이, 부모의 곁을 떠나 자립한 시민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라고 물어 볼 것이다. 모두가 열의에 차서 손을 들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른이라면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알려 줄 것이다.

- 싱크대 거름망 씻기
- 변기 뚫기
- 똥오줌을 싼 아기 씻기기
- 콧물 닦아주기
- 아기가 바닥에 내팽개친 시금치 이유식 닦아내기
- 오븐과 유지차단 장치⁸⁾와 로스팅팬 닦기
- 고양이 상자 비우기와 강아지 똥 긁어내기
- 쓰레기 내다버리기
- 오수 퍼내기
- 거리에서 차에 치인 애완동물 물어주기

나는 졸업생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성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줄 것이다. 이쯤에서 몇몇 학생들은 더 이상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 역시 진실과 대면하게 될 것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 목록에서 열거한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할 수도 있다. 내 아내는 의사인데, 가끔씩 자신이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게 이야기한다.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말하지는 않겠다. 나부터 몰랐으면 하니까. 이따금 그런 일

8) 배수설비에서 유지류의 유입을 차단하는 장치

들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면 불편하다.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럽기도 하다.

오물 치우기의 제 몫을 기꺼이 하겠느냐는 것이 시험이다. 그리고 제 삶에서 나온 쓰레기는 자신이 치운다는 것이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어른이 되기 전에는 부모가 자신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쓰레기를 치우는 일은 절대로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른의 대열에 합류하고 나면 사랑하기 때문에 치운다. 여기서 사랑의 대상은 내 가족만이 아니다. 인류라는 가족이다.

진부한 말이지만 변치 않는 사실이다.

어른이 되는 것은 더러운 일을 하게 되는 것.

누군가는 해야만 한다.



내가 아는 한 여인은 변화가에서 고급 장난감 가게를 운영한다. 그녀가 말하길 지갑을 잘 여는 고객들은 대부분 잘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 사장들인데, 직원들이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 오전 중에 가게를 들른다고 하였다. 장난감 가게 전문용어로는 이들을 ‘헤폰 지갑’ 이라고 부른다. 제일 좋은 장난감이 아니면 안 되며, 결코 가게를 빈손으로 나서는 일이 없다. 그녀는 거리를 걸어오는 모습만 보고도 알 수 있다고 한다. 안달이 난 듯하면서 단순해 보이는 표정을 띠고 즐거운 목적의식을 가지고 걸어온단다. 분명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러 오는 것이다. 이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지도 않는다. 연중 어느 때고 찾아온다.

누가 그렇게 통이 클까?

바로 할아버지들이다. 그리고 대개는 첫 손주를 본 할아버지들이다.

장난감 판매원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나 할까.

그리고 나도 할아버지이다. 이 말인즉슨, 내가 최근에 손녀에게 사줄 인형을 고르느라 상당히 많은 시간을 장난감 가게에서 보냈다는 뜻이다.

(걱정 마시길. 손녀에 대해 길게 이야기 하지는 않겠다. 아직 손주가 없다면 이 이야기는 정말로 듣고 싶지 않을 것이고, 만약 이미 손주를 봤다면 자기 손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뿐일 테니까. 그 아이가 실은 우리 아이보다 더 대단한 아이일 테고,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

이것이 할아버지가 되면 누구나 겪게 되는 안 좋은 점이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도 많지만, 사진을 보여주면서 길게 강의하는 듯한 이야기를 정말로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사진 좀 보여줄까요?”)

이야기를 계속해보면, 요새 인형들은 내가 25년 전에 마지막으로 샀을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 우선 요즘 인형들은 대개 ‘해부학적으로 정확’해서, 점원들은 항상 인형의 치마를 들치거나 바지를 내려서는 격양된 목소리로 “보세요. 진짜 같죠?” 하며 보여주고 싶어 안달을 낸다.

인형을 사면서 이럴 때가 가장 곤혹스럽다.

머리로는 이러한 변화가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점원이 그것을 보여주려고 할 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것과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고 거부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당혹스러운 일인지 모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의 견해를 따르겠다. 아마도 할아버지들이 이 의무적인 실연에 위협을 느껴 손님이 아무도 없을 오전 시간대에 장난감을 사러 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장난감 제조업체는 신체 부위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단계를 훨씬 넘어섰다. 인형이 할 수 없는 것이 별로 없으니 말이다.

‘간지럼 타는 아기’ 인형은 겨드랑이를 문지르면 웃는다.

‘어머나’ 라는 인형은 배를 누르면 비명을 지르면서 머리카락이 쭈뼛하게 선다.

‘오줌 싼 아기 돌보기’ 라는 인형은 기저귀 발진이 생긴다. 게다가 이 아기는 발진을 낫게 하는 로션과 더불어 애초에 발진을 일으키는 로션과도 세트로 나온다.

그밖에 ‘갓난아기’ 인형도 있다. ‘병원에서 갓 태어난’ 듯한, 실물 크기의 보들보들하면서도 주름투성이인 좀 못생긴 아기 말이다. 손목에는 환자기록 밴드를 찢고, 공갈 젓꼭지를 물고 있으며, 그리고 기대하시라, 탯줄이 잘려나간 배꼽에는 거즈를 대고 있다. 이 아기 인형은 먹고, 마시고, 칭얼대고, 기저귀를 더럽히며(해부학적으로 정확함은 물론이다), 짹 누르면 토한다. 그리고 남자 아기, 여자 아기, 흑인 아기, 백인 아기로 나온다(피부색이 노랗거나 붉은 아기는 없다. 하지만 안 될 게 뭐가?)

인형의 이러한 사실주의적 추세는 박수를 받을 만하다.

인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인형을 매우 사실적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떡다 갑자기 토하고 동시에 설사도 하면서 밤새 울어대는 ‘아픈 아기’ 인형은 어떤가?

아니면 주기적으로 몸 전체에 우둘투둘한 붉은 발진이 돋고 3일간 밤낮으로 기침을 해대는 ‘질병에 걸린 아기’ 인형은?

아니면 ‘엄마’ 라고 하는 대신에 ‘싫어, 싫어, 싫어, 싫어!’ 라고 소릴 질러대는 ‘까다로운 아기 인형’ 은 또 어떤가?

아니면 태엽을 감아 놓으면 기저귀를 가는 동안 그 해부학적으로 정확한 신체 부위를 갖고 노는 ‘당혹스러운 아기’ 인형도 있을 수 있다.

아기 인형의 최종적인 형태는 이러한 특성과 행동을 모두 보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어린이들이 아기를 낳으면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는지를 알게 될 테고, 자라서 진짜 아기를 갖는 것에 대하여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결국 미국의 인형 제조업계는 인구 통제에 이바지하는 강력한 집단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쉽사리 일어나리라고는 기대하지 마시길. 인형이 실물과 비슷해질수록 판매량은 떨어진다고 장난감 가게 여주인도 인정하니 말이다.

앞서 말한 ‘갓난아기’ 인형은 반값 세일에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

심지어 첫 손주를 본 할아버지들도 사려 들지 않는다.

첫 손주를 본 할아버지들은 특히나 그런다.

그렇다. 이들은 여러분들의 예상이 딱 들어맞는 그것을 살 것이다. 풍성한 드레스를 입고 발레리나의 모습을 한, 티 없는 피부의 비현실적으로 어여쁜 아가. 게다가 해부학적인 디테일은 생략한(고맙지만 사양한다), 그 귀엽고 앙증맞고 보들보들한 인형을 말이다.

완벽함이야말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다.

그들의 손녀처럼.



‘여우다! 텔리-하 *Tally-ha!*’ 그렇다. 텔리-호 *tally-ho* 가 아니라 텔리-하 *tally-ha*. ‘하하하’ 하고 웃는 소리의 ‘하’ 말이다. 여우 사냥에서 여우를 발견했을 때 사냥개를 추기는 소리를 변형한 것으로, 영국사냥사보타주협회(HSA; Hunt Saboteurs Association of England)의 구호이다. 그리고 영국사냥사보타주협회는 영국 귀족들이 예로부터 즐겨온 스포츠인 여우 사냥에 보기 드문 관심을 보인 평민 부대이다.

자세히 살펴보자. 여우 사냥을 위해서는 상류 귀족들을 모아야 한다. 이들은 웃긴 옷차림을 하고 다리 긴 말의 몸통에 착 달라붙은 안장에 올라탄다. 그리고 붉은 재킷을 걸친 사냥 마스터가 구리 나팔을 불어 지휘를 하고, 수십 마리의 사냥개들이 교대로 여우를 추적하면, 그 뒤로 귀족들이 모두 시골 사냥터를 질주하여 나무울타리와 산울타리를 넘고 황야와 언덕을 지나 계곡과 들판을 건넌다. 이윽고 여우가 발견되면 사냥개들이 물어뜯어 갈기갈기 찢는다. 이 광경에 기수들 모두가 매우 즐거워하는데, 그것은 사냥개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말들과 여우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겨우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사냥 클럽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상류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종종 왕실이 있고, 공주나 공작이 한둘이 있어야 사냥 클럽으로 인정이 된다.

최근 이 유쾌한 소동에 끼어든 사람들이 영국사냥사보타주협회의 회원들이다. 오로지 사냥의 흥을 깨기 위해서 모인 열성분자 2천여 명. 이들은 여우 편에 서

서, 인간의 야생동물 학대에 반대한다. 그리고 여우 사냥을 ‘먹지도 못할 것을 쫓는 용납할 수 없는 만행’ 이라고 말한다.

이들의 목표는 여우 사냥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사냥꾼들을 당혹스럽게 함으로써 많은 여우들이 몸 성히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회는 이스라엘의 비밀정보국 수준의 조직력을 갖추었다. 사냥클럽 조직위가 아무리 신중에 신중을 기하더라도, 협회가 항상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냥 일정이 잡힐 때마다 협회가 전투를 개시하기 때문이다. 아래는 이들이 전개하는 전술과 활동의 일부이다.

기수들이 한 날 한 장소에서 모이지 못하도록 가짜 일정을 알리거나 회원들마다 서로 다른 일정을 알고 있도록 한다.

게릴라처럼 숲속에 매복해 있다가 거짓 나팔을 불어 기수들을 헛갈리게 하고, 때로는 심지어 기수로 위장한 채 말에 올라타서는 엉뚱한 방향으로 돌진한다.

사냥하기 전날에는 사보타주 협회 회원 몇 명이 숲을 헤치고 들을 가로질러 수 마일을 걸어 다니면서, 사냥개의 주의를 흐트리도록 나무와 울타리에 인공 여우 향을 뿌리고 동시에 곳곳에다 육즙이 풍부한 생고기를 떨어뜨린다.

게릴라 요원들은 마을의 공습경보를 울리고 작은 연막탄을 던져서 기수들을 불안하게 하고, 심지어는 기수들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말을 모두 풀어 놓기도 하였다고 한다.

또한 여우가 짖는 소리와 개들이 으르렁대는 소리를 녹음한 것을 틀어놓고 사냥개들과 기수들 모두의 주의를 흐트리기도 하였다.

한번은 사냥개를 전부 트럭 안으로 유인한 뒤 수 마일을 주행하기도 하였다.

협회 회원들은 또한 마구 보관실에 기어들어가 안장이란 안장에는 전부 꿀을 발라두었고, 심지어는 수 마일에 걸쳐 놓여 있는 여물통에다 붉은색 염료를 담아 놓기도 하였다. 그 바람에 사냥꾼들은 말로 하여금 피처럼 보이는 것을 마시게 해야 했다.

인근 마을의 공유지에서는 여우 분장을 한 사람들이 귀족 차림을 한 사람들을 쫓는 광경을 작게 연출하기도 하였다.

사냥이 한창일 때 헬리콥터를 타고 상공을 날아다니면서 생똥맛은 동요와 바보 같은 웃음소리를 녹음한 테이프를 재생하는 계획도 있었다.

게다가 들은 이야기로는 사냥이 끝나고 열린 가든파티에서 협회 회원들이 알몸으로 뛰어다녔다고도 한다. 궁둥이에는 가짜 여우꼬리를 달고, 물론 개처럼 짖으면서 말이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협회의 활동 계획은 항상 언론에 알려지고 있으며, 기자들은 기꺼이 현장에 와서 모든 과정을 기록해간다. 몇 번이고 여우 사냥꾼들은 멍청한 야만인으로 그려지고, 그들의 이름은 전부 공개된다. 유쾌한 일은 아니다.

사냥 클럽의 회원들은 사냥사보타주협회가 아니꼽지만, 그렇다고 경찰과 변호사를 부르면 스스로가 더욱 우스운 꼴이 되고 말며, 게다가 사냥의 흥이 깨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협회 회원들에게는 이 모든 작전 수행이 가져오는 결과가 큰 즐거움이다. 일을 성사시킨 후에 마을의 술집에서 파티를 여는 것과 일부 사냥꾼들이 여우 사냥에 대한 흥미를 잃는 것, 그리고 적지 않은 수의 여우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말이다.

나는 사냥사보타주협회가 좋다. 여우를 보호하는 것이 내게 특히 중요한 일이라서가 아니다. 또한 학대라면 종류를 막론하고 반대하기 때문도 아니다. 다름 아니라 이들의 정신이 실로 대단하기 때문이다.

너무나 많은 경우 선을 행하는 것은 일종의 엄숙함을 수반한다. 그러하기에 악에 대항하여 장난과 꾀, 즐거움, 웃음을 무기로 싸우는 것은, 그 악이 아무리 별 것 아닌 것일 지라도, 특별한 재주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한 재주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그 재주가 드러날 때,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진보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쉬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우리가 이 재주를 살려 더욱 신명나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기만 한다면, 정의를 실현하고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지 않을까.



이제부터 말하려는 내용은 십계명과 머피의 법칙의 중간 그 어디쯤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도 알고 있을 테지만, 하나님께서는 노년의 모세에게 사막에 높이 솟은 산으로 올라오라 이르시고는 강력한 글이 새겨진 단단한 석판 두 개를 주셨다. 십계명이었다. 하나님은 ‘여기 꽤 좋은 생각 열 가지가 있으니 어떠한지 보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 계명을 지켜라, 지키지 않을 경우 응당한 대가가 따를 것이다.

다른 한쪽의 극단에는 유쾌한 냉소주의자의 전형인 머피가 있다. 머피는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하여간 잘 안 될 것이라고 말했던 인물이다. 어떤 사람들은 머피가 낙관주의자였다고 생각한다.

중간자의 입장에서 나는 ‘폴검의 행동규범’을 소개하려고 한다. 물론 하나님과 머피가 언급하지 않은 것들로 되어있다. 또한 십계명처럼 엄격하지도 않고, 머피의 법칙처럼 끝없는 변형 때문에 포기할 염려도 없다. 나의 행동규범은 아홉 개가 전부이다. 열 번째 규범은 아직 구상 중이다. 그리고 열한 번째 것도.

1. 아이가 레모네이드를 팔고 있거든 사주어라.
2. 어떤 투표든 할 수 있으면 하라.
3. 스물다섯 번째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하라.

4. 돈의 여유보다 시간의 여유를 택하라.
5. 늘 경치가 좋은 길로 가라.
6. 구걸하는 거지가 있거든 무엇이든 주어라.
7. 그리고 모든 길거리 음악인들에게 돈을 주어라.
8. 언제나 누군가의 발렌타인이 되어라.
9. 마을에 서커스단이 오면 구경을 가라.



1963년

산골짜기마냥 좁게 난 마트 통로의 깊숙한 곳에서 소규모 버스 사고에 잇따라 공습이 벌어진 듯한 소리가 들린다. 대걸레와 빗자루로 무장한 채 뛰어가는 아르바이트생의 뒤를 쫓아가보면, 젊은 아빠와 세 살배기 아들, 엮어진 쇼핑카트, 피클 코너 제품 상당량이 바닥에서 한 무더기로 뒤엉켜 있다.

아이는 비닐봉투에 담긴 잘 익은 토마토를 깔고 앉아있고, 좋게 말해 ‘상당한 채액 손실’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중이다. 눈물, 콧물, 이마에 작게 난 찰과상에서 생긴 피, 입에서 질질 흘린 침으로 뒤범벅이 돼서는, 입을 크게 벌린 채 이상한 소리(만약 개가 이 소리를 들었다면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 갔을 것이다)를 내고 있다. 게다가 바지에는 오줌을 샀고, 이 사소한 비극이 극에 달하기 전에 토를 하고야 말 것 같다. 아이의 표정이 토하기 직전에 ‘비켜,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는 듯한 표정이다. 게다가 피클 국물이 아이를 에워싸고 호수를 이루는 바람에 현장에 도착한 마트 119팀의 구조가 힘들게 되었다.

크게 다친 데는 없었다. 한편, ‘뚝 그치지 않으면 맘매한다!’ 는 식의 태도가 무용지물임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는 이런 참사를 당하고도 놀라울 정도의 침착함과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가 차분한 이유는 가정을 버리고 뛰쳐나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그냥 아이를 두고 나와 차를 몰고 남부지역 어딘가로 가서는 이름을 바꾼 다음 신문 배달부나 야간 식당의 요리사로 취업하는 것이다. 세 살 배기를 상

대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상관없다.

물론 언젠가는 이 모든 게 다 즐거웠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는 아이를 낳은 것이, 결혼을 한 것이, 성인이 된 것이,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이 아들놈을 제대로 작동하는 모델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 내심 유감이었다. 이런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말하지 않을 것이고 말할 수도 없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이기에 전혀 즐겁지가 않다.

아르바이트생과 마트 관리인 그리고 불어난 구경꾼들은 그를 매우 딱히 여기고 위로한다. 시간이 흘러 주차해둔 차에 탄 그는 질질 짜는 아이를 안고 잘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 아이를 침대로 옮겨 눕히고 이불을 덮는다. 자고 있는 아이를 오랫동안 쳐다본다. 아버지는 가정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는다.

1976년

그때 그 남성이 우리 집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구 욕을 뱉었다가 울고 불고 한다. 손에는 구겨서 뭉쳤다가 다시 펼치기를 여러 번 하였던 흔적이 남은 편지 쪼가리가 들려있다. 열여섯 살이 된 바로 그 아들내미가 보낸 것이다. 자랑스러운 아들 . . . 이었다. 오늘의 편지가 오기 전까지는.

아들은 아버지가 싫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한다. 집을 나가겠다고 한다. 아버지가 끔찍해서. 아들이 생각하기에 아버지는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아버지는 얼간이다.

지금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생각이 좀 이랬다저랬다 하고 있는데, 썩 좋지는 않다.

집 밖의 날씨는 화창하다. 완연한 봄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집 안은 지옥의 묵시록의 악몽에 가깝다. 아버지 노릇하기의 다음 단계가 시작된 것이다. 예의 그 오이디푸스의 유령이 그의 인생을 막 짓밟고 지나갔다. 언젠가 먼 훗날에는 이 날을 떠올리면서도 웃음을 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고통만이 있을 뿐이다.

그는 진정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아버지이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그의 아들도 쓸 만한 녀석이다. 부전자전이라고들 한다. 그러니 천장에 대고 소릴 지를밖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라고.

글쎄,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지, 그밖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으랴.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유를 찾아봐도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혜는 겪은 후에 생기는 법. 폭풍우에 우박이 내려도 바보처럼 서서 감내해야 할밖에 별 수가 없다.

1988년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다. 이제 스물여덟이 된 아들은 결혼을 해서 똑같이 세 살배기 아들을 두었으며, 가정을 이루고 일을 하는 등 남들처럼 살고 있다. 아버지는 선이 되었다.

일주일에 세 번, 오전 여섯 시경이면 이들 부자가 조깅하는 모습이 보인다. 차가 뽀비는 길을 건널 때면 아들이 좌우를 살피는데, 한 손으로는 다가오는 차로 인한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팔꿈치를 붙들고 있다. 부자가 아침을 향해 언덕을 달려 오를 때면 웃음소리가 들린다. 그리고는 집으로 전력질주를 하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제치지 않고 속도를 맞춰 나란히 달린다.

부자는 서로를 많이 사랑한다. 그게 보인다.

그리고 서로를 몹시 아낀다. 함께 많은 일을 겪었으나, 이제는 괜찮다.

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이야기는 그 옛날 옛적에 마트에서 있었던 일이다. . .

현재

이 이야기는 영원하다. 수천 년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고, 문학에는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비극적 결말을 맞는 사례가 허다하다. 아들이 집을 떠나 은혜를 원수로 갚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아 다시는 보지 못하는 이야기. 하지만 때로 (내 생각에는 ‘중중’) 아들은 그만의 방식으로 그에게 적절한 때에 돌아와 아버지를 끌어안기도 한다. 이러한 결말 역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탕자의 아버지가 보장할 것이다.



나의 아들은 어머니이다.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였고 아이 하나를 두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부부답게 양육에 대하여 남녀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믿는다. 아들은 손녀의 양육에 대하여 제 몫을 다 하고 있으며, 아들 내외는 각자 손녀와 동일한 시간을 보낸다. 내가 아들을 ‘어머니’ 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전에는 주로 어머니들이 해왔던 일들을 아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팔과 가슴으로 품은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고, 씻긴 다음 옷을 입히고, 보살피고, 받아주고, 들어주고, 북돋워주고, 보호하고, 달래고, 또 끔찍이 사랑한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아들을 존경한다.

손녀는 겨우 한 살이다. 여태까지는 잘 해왔으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기에 나는 아들에게 어머니로 산다는 것에 대한 조언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에게 하는 조언이다. 며느리는 자신이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다. 게다가 나는 어머니 노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여성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이것과 관련하여 나는 몇 차례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였다. 설명을 하자면 이리하다.

살면서 25년 동안 5월의 두 번째 일요일만 되면 곤혹스러웠다. 교회 목사로서 어떤 식으로든 어머니날을 주제로 설교하여야 했던 탓이다. 그것을 피할 방도는 없었다. 시도는 했다. 참고로 말해두지만 우리 교인들은 사실 꽤 개방적이어서 설교는 전적으로 나의 재량에 맡긴다. 그런데 이들도 5월의 둘째 주 일요일에 관해서라면 아래의 어느 솔직한 여성 성도의 말로 요약되는 그러한 기대를 품고

마는 것이었다. “어머니날에는 저희 어머니를 교회로 모시고 오려고 해요, 목사님. 목사님은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머니에 관한 내용을 다루셔야 하고요, 말씀이 좋아야 해요.”

농담으로 놀리듯이 내뱉은 말이긴 하나, 또한 진심이 담긴 말이었다.

해마다 나는 제대로 해보려고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나에게도 어머니가 있고, 꽤 많은 어머니들을 직접 겪어서 알고 있다는 사실은 별반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 번도 어머니 노릇을 해본 적이 없으니 무엇을 알겠는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맹세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라고 했다가 ‘다른 한편으로는’ 하면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적당히 얼버무리는 식의 설교를 하려고 애를 썼다.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자주 인용하였고, 감성적인 시를 낭송하였으며, 위험한 농담이나 쓸데없는 조언은 피했다. 그러나 이 날 결국 나는 어머니에 대하여 좋은 말만 하고 싶은 말은 하지 않는 위선자, 또는 어머니 은혜의 지대함과 만고불변함을 극찬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놈이 되고 말았다. 목사로서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지나가는 말이지만, 어머니날은 대목이 되었다. 감사 카드 1억 4백만 개가 팔리고(개중에 유머가 담긴 카드는 거의 없다.),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을 사고 어머니를 모시고 외식을 하는데 7십억 달러가 소비된다. 그리고 난과 화분은 썸에서 제하더라도 장미꽃만 6천만 송이가 팔린다. 크리스마스과 부활절 다음으로 상업적으로 가장 활기를 띠는 명절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통신사의 경우 크리스마스 날 다음으로 어머니날에 일이 제일 많다. 이 날이 만들어 내는 상업적 힘은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5월 둘째 주 일요일에 집중되는 강력한 힘은 이밖에도 있다. 기억에 농축되어 있으며 가슴과 마음과 정신에 영원히 살아있는 힘. 이 힘은 또한 심각한 것들이기도 하다. 어머니날은 ‘코미디’가 되지 않는 날이다.

아직도 잊히지 않는 어느 일요일, 나는 훌륭한 어머니를 두었거나 본인이 훌륭한 어머니이거나 또는 어머니로 산다는 것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훌륭하십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세 부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 .

그런 다음 나는 논란을 빚을 만한 질문 몇 가지를 던졌다. 손을 들어 달라는 말은 하지 않고서.

1. 여러분 중에 어머니날이 오면 이보다 더 불편할 수는 없을 정도로 가식을 떨게 되는 분이 계십니까?
2. 어머니를 달갑게 여기지 않거나 사무치게 미워하기까지 하는 분, 또는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모습이 지독히도 싫은 분이 계십니까?
3. 자신의 아이가 못마땅하거나 끔찍하게도 미운 분이 계십니까?
4. 자신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분이 계십니까?
5. 어머니날에 입양, 낙태, 이혼, 자살, 거부, 알코올 중독, 소외, 학대, 근친상간, 슬픔, 사별과 같은 문제, 아니면 계모나 시어머니와 같은 단어, 또 아니면 어머니와 관련하여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불쾌한 말들을 생각하고 떠올리게 되어 마음이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아직 못 다한 질문들이 남아 있었으나 질문지를 읽어감에 따라 교회 안이 매우 조용해져있었다. 성도들은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고, 그것으로 보아 그들이 혹은 내가 감당하려는 것 이상의 진실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음이 분명하였다. 질문을 멈춘 나는 성도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은 나를 바라보았다. 괴로워보였다. 그리고는 앉았다. 강단 위의 의자가 아니라 그 아래 성도들이 앉은 자리에. 그 질문들은 긴 여운을 남기기에 충분하였고, 그해 5월 둘째 주 일요일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았다. 교회의 창밖으로 내리는 추운 봄비도 한뭉을 하였다. 당시엔 이 모든 진실을 들춰내는 것이 매우 괜찮은 생각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 . .

예배가 끝난 후 우리 교회를 방문한 한 여인(얼굴에 온통 ‘은혜 깊은 어머니’ 라고 쓰여 있었다.)이 내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젊은 양반, 자네보다 훌륭한 사람들도 오늘 아침 자네가 말한 것보다 못한 내용을 던지시 비추었다는 이유로 곤장 지옥에 떨어졌어. 이 날을 망치다니 부끄러운 줄 아시오.”

그래서 내가 어머니로 산다는 것에 대해 말하기가 좀 두렵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우리 어머니가 종종 했던 말처럼, 단지 도우려 했을 뿐이거든.

이제는 더 이상 일요일 목회를 하지 않는다. 게다가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 어머니로 살고 있는 아들에게 조언을 해줘도 괜찮은 입장이 되었다. 이 조언은 첫째 아들에게 전하는 것이기도 하다. 곧 결혼을 할 예정이고 예비 며느리와의 금슬이 좋은 것으로 보아, 녀석도 이제 어머니로 살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럼, 어머니로 사는 것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을 두 아들에게 전한다.

1. 아이들은 애완동물이 아니다.
2. 아이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삶은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삶과 다르다.
3. 아이들의 행동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4. 아이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기록으로 남기지 마라. 그런 것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상책이다.
5.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것이 행복의 온상이다.
6. 사춘기가 지나면 아이들의 방에 들어가지 마라.
7.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아이들의 우정과 사랑에 간섭하지 마라.
8.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아이들이 항상 부모를 지켜본다는 사실을 걱정하라.
9. 아이들에게 배워라. 아이들은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10. 아이들 사랑은 오래 하고, 독립은 일찍 시켜라.

끝으로 한 마디 덧붙이자면, 여러분은 스스로가 어떤 부모였는지 그리고 부모 노릇을 잘 하였는지 못 하였는지를 절대로 알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그리고 이 점에 대해,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 살아있는 동안 내내 걱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식이 자식을 낳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을 보다보면 어느 정도는 답을 얻을 것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어머니날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잊지 말고 아들에게 꽃
과 카드를 보내야겠다.



내가 쓴 에세이집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를 못마땅해 하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 말로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좋은데 딱 거기까지라는 것이다. 친구는 ‘좋은’ 정도를 넘어서야한다고 생각한다.

그의 말이 옳다. 유치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배워야 할 것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나는 유치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배웠다. 선생님이나 어른들은 결코 알려주지 않을 것이기에. 아, 이들은 분명 알고 있다. 하지만 안다는 사실을 절대로 말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알아내거나 친구들로부터 배워야 한다.

이 정보는 맨 처음 에덴동산의 뱀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지식의 나무’에 달린 금단의 열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먹어 보렴. 마음에 들 거야.”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곤경에 빠지게 될 것이나, 먹지 않으면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 지식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내가 열세 살이 되기 전에 배운 것과 지금의 내가 알고 있는 것. (원해서 알게 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친구 루시의 말마따나, 이제는 어른이 돼서 하는 말이지만 때로는 그 때 몰랐던 것을 지금도 몰랐으면 할 때가 있다.)

성(性). 나는 여자애들이 남자애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네 걸 보여줘. 그럼 내 것도 보여줄게’ 하며 놀 때엔 한편으로는 겁에 질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야릇한 기분에 도취되었다. 또한 성과 관련된 그 철자 네 개짜리 단어가 대단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단어를 벽에다 쓰면 어른들이 펼쩍 뛰었다.

범죄. 어머니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법이나 들어가면 안 되는 곳(문이 잠긴 집 안의 벽장이나 방과 후의 학교 건물 등)에 들락날락하는 법을 터득하였다.

그리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나쁜 짓을 해도 항상 걸리는 것은 아니며 무사히 넘어갈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어찌다 걸릴 때에는 가끔씩 거짓말을 하는 법도 배웠다. 왜냐하면 내 말을 진짜로 믿으실 때도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믿지 않으실 경우에는 왜 그랬는지 나 스스로도 모르겠다고 하면 되었다. 이 말을 믿으실 때도 있었다. 하지만 알리바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벌을 받았고, 그 벌도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지는 않았다. 게다가 어떤 식으로든 내가 한 짓에 대한 결과를 감내해야 한다면, 벌을 받더라도 후회되지 않을 정도의 일을 해버리면 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눈물로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가 있었다. 그 눈물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으므로.

하나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지는 않는다. 반면 기도를 정말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우리와 거래를 하시기도 한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한동안은 착하게 굴어야 하겠지만, 그 뉘그러한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나는 이런 식으로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을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선생님을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더니 정말로 병이 난 것이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힘. 세상 어딘가에는 힘만으론 안 되는 곳이 존재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덩치 큰 아이들의 말이 법이었다.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듣게 하려면 때로는 폭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나를 때리지 않았던가? 기본 규칙은 간단하다. 항상 나보다 작은 놈을 때린다.

기술. 나는 이 사이로 침을 빨는 법을 익혔고, 성냥을 가지고 노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알게 되었으며, 포커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속임수를 써서 이길 수 있는지를 터득하였다. 이밖에도 집에서 몰래 빠져 나가는 방법을 생각해냈으며, 열쇠를 복사하려면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알아냈고, 부모님

이 집에 안 계실 때 차를 몰고 차 진입로를 왔다 갔다 하는 기술을 익혔다.

끝으로 죽음. 나는 생물체가 죽는다는 사실과 곤충, 도마뱀, 지렁이, 쥐와 같은 생물들을 내가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죽지만, 나는 결코 늙지 않을 것이므로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아느냐고?

우선 맨 마지막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안다. 나 역시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만큼 나이가 들어버렸다. 그리고 나도 남들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부모가 되었다. 내 아이들도 유치원을 나왔고, 그들만의 뒷골목 교육을 마쳤다. 첫째 아들은 이제 성인이 되었으나 나와 나이 차이가 스물세 살 밖에 나지 않아서 서로의 어린 시절에 대해 크게 당황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이제 아들은 안다. 그 뱀에 대하여. 그래서 아들이 어려서 나 모르게 온갖 나쁜 짓을 했다고 말했을 때, 다 알고 있었지만 나도 그 나이 때 그랬다는 것을 생각하니 골치 아프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다고 했다.

부모가 되면 자애로운 위선자가 되고 만다. 부모 노릇이 다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가 털어놓고 나면 속이 후련해진다. 껄끄러웠던 부분이 해소되고, 서로를 더욱 인간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는 알고 있으나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은, 유치원에서 배운 교훈은 자신의 삶과 상관이 없는 경우에는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눌 것이 전혀 없고 인생 자체가 부당한 경우에는 나눔과 공정의 미덕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철조망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지구의 아이들을 떠올려본다. 더러운 쓰레기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세상을 그렇게 만든 것은 그들이 아니고, 그들은 이 난장판을 치울 수도 없다. 이 아이들은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다. 물이 없어서, 또는 비누가 없어서.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씻을 손이 없다. 이 아이들은 따뜻한 쿠키와 시원한 우유를 모른다. 오래된 음식물 찌꺼기와 배고픔만을 알 뿐. 몸을 감쌀 담요도 없고, 눈을 감는 것이 위험하기에 낮잠을 잘 수도 없다.

이 아이들의 유치원은 물감놀이를 하고 자장가를 부르는 곳이 아니라, 성인 등급 영화와 같은 가혹한 일상이 펼쳐지는 곳이다. 이 아이들의 선생님은 아이들을 보살피는 상냥한 여성이 아니라 고통과 공포 그리고 불행이라는 이름의 냉담

한 현실이다. 세계의 다른 모든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도 괴물을 이야기한다. 환한 대낮에 자신의 두 눈으로 본 진짜 괴물을. 이 아이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우리는 알고 싶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것이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들이 아님을.

선과 악, 그리고 희망과 절망의 경계선은 세상을 ‘우리’와 ‘그들’로 나누지 않는다. 그 선은 우리 모두의 한복판을 가로지른다.

나는 당신이 이 세상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있는 지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고 있기에 무엇을 할 것인지가 알고 싶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희망하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다. 희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할 것인지가 알고 싶다. 나는 당신이 박애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당신의 땀이다. 길고 힘든 언덕을 오르기 전 어느 마부가 말했듯이. “함께 갈 사람들은 내려서 미십시오. 그럴 거 아니라면 저리 비키시오.”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가만히 앉으라니까!” 어머니다. 지겨운 소리. 학교 선생님들도 똑같은 소릴 했다. 그리고 나 역시 내 차례가 되자 자식들과 학생들에게 똑같이 말했다. 어른들은 왜 이 말을 하는 것일까? 어른들이 가만히 앉아있으란 대서 정말로 가만히 앉아있는 아이들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어.’ 라고 몇 번 해 보고서 안 되면 ‘앉아서 입 다물고 있어!’ 라거나 ‘입 다물고 앉아 있어!’ 라고 하게 되는 모양이다. 한번은 어머니가 이 두 버전을 연달아 말했는데, 입만 살았던 나는 어머니께 입을 다무는 것과 가만히 있는 것 중에 대체 어느 쪽을 먼저 하길 원하시느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 표정을 지었다. ‘이 아이를 죽이면 감옥에 가겠지. 하지만 그 편이 나을지도.’ 라고 하는 표정을. 이런 순간에 어른들은 아주 나직한 음성으로 음절 단위로 끊어가며 말을 한다. “꿀-도-보-기-싫-으-니-씩-나-가!” 그러면 아무리 반쯤이 같은 아이더라도 벌떡 일어나 사라진다. 그리고 어머니는 가만히, 아주 가만히 앉아 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는 행위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러한 생각이 이 글을 쓰는 지금, 1988년 12월 1일, 나의 머릿속을 맴돈다. 이 날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었던 것만으로 사회 변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때를 기념한다.

1955년의 이 날, 42세의 한 여성이 퇴근 후 귀가하고 있었다. 대중 버스에 오른 그녀는 운임을 내고 맨 앞자리 빈 좌석에 앉았다. 앉으니 편안하였다. 다리가

아팠었기에. 그런데 버스가 승객들로 붐비자 운전사가 그녀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버스 뒤로 이동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가만히 있었다. 운전사는 일어서서 “일어나라니까!” 하고 소리쳤다. 그래도 가만히 있었다. 가만히. 그러자 운전사가 버스에서 내려서 경찰을 불렀다. 그리고 경찰이 와서 그녀를 감옥으로, 그리고 역사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었다.

로자 팍스 *Rosa Parks*. 그녀는 사회운동가도 급진주의자도 아니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린, 그저 조용하고 보수적인 기독교인에, 재봉사라는 괜찮은 직업을 가진 여성이었다. 사람들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녀가 한 역할에 대하여 온갖 감동적인 문구를 늘어놓지만, 로자 팍스가 그 날 버스를 탄 것은 문제를 일으키려 해서도 아니었고 자신의 입장을 대중에게 밝히려 해서도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머릿속에는 집으로 간다는 생각 밖에는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품위를 가지고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로자 팍스는 더 이상 어느 누구에게도 ‘깜퐁이’ 취급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아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 밖에는 없었다.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지 않는 행위를 잘 하는 것에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단순함이 있다. 모든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하였다. 붓다는 나무 아래에 가만히 앉아 있었고, 예수는 정원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으며, 무하마드는 동굴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간디와 킹 목사를 비롯한 수천 명의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 행위를 사회 변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도구로 완성시켰다. 비폭력 저항과 명상, 기도는 전부 동일한 것이다.

이 방법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통한다.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말하는 대신에 자신부터 아주 가만히 그리고 조용히 앉아있으면 된다. 그러면 아이들은 곧 당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것이다.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학생들은 그 고요한 정적에 몹시 당황해한다. 때로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길 때도 있다.

가만히 앉아 있는 행위는 어른들에게도 통한다. 로자 팍스가 버스를 타고 다녔던 바로 그 노선에서 이제는 누구든지 버스의 아무 좌석에나 앉을 수 있게 되었고, 이곳의 운전기사 중에는 흑인들도 있으며 성별에 관계없이 버스를 몰고 있

다. 그리고 로자 팩스를 버스에서 끌어내렸던 거리는 이름이 바뀌어 ‘로자 팩스 길’ 이 되었다.

가만히 앉아 있는 행위를 성례(聖禮)로 삼고 이를 기반으로 한 종교가 탄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신도가 되는 방법은 간단하다.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에 모임 필요는 없다. 찬송가를 부른다거나 회비를 낼 필요도 없고, 신조를 지키지 않아도 되며, 전도사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포틀럭 저녁 모임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 하루에 한 번, 15분 간, 자리에 앉아,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다. 어머니가 말씀하였듯이.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이 성례를 행한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지도 모른다. 온갖 의자와 공원의 벤치 그리고 소파가 전부 교회가 될 것이다.

로자 팩스는 이제 70대가 되었다. 주로 흔들의자에 앉아있는 그녀는 디트로이트에서 가족과 함께 조용히 은퇴 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녀가 가만히 앉아 있었던 행위를 기념하는 것들은 수 없이 많지만, 최고의 기념비는 피부색이 서로 다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바치는 살아있는 헌사이다. 매일 저녁 수천대의 버스에 올라 평화로이 앉아서 집에 가는 모습으로.

천국이 정말로 있다면 로자 팩스는 분명 천국에 갈 것이다. 그녀가 진주 빛 문 앞에서 천사의 안내로 입장하는 순간을 상상해본다.

“아, 로자 팩스 씨, 기다리고 있었습시다. 어려워 말고 아무 자리에도 편히 앉으세요.”



이제부터 하려는 피에 관한 이야기는 베이글에서 비롯한다. 베이글은 전기 토스터에 손쉽게 들어가지 않는다. 아니면 들어갔다 하더라도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 가정은 완벽하게 입증되었다. 최근에, 우선 베이글을 반으로 자른다. 가로로, 즉 자르기 힘든 쪽으로. 이것도 손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아주 예리한 정육점 칼과 집게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 하지만 큰 도움은 못 될 것이다. 도리어 손가락을 베고 싶다면 그야말로 안성맞춤인 상황이다.

손을 베었을 때의 정상적인 반응은 메딕 원 *Medic One*⁹⁾에 전화를 걸고 싶은 것일 것이다. 피는 곧 응급상황이므로. 하지만 어떻게든 패닉 상태는 모면하였다면, 가만히 서서 싱크대에다 피를 조금 흘릴 때 존재론적인 순간이 찾아 올 것이다. 이 정도 상처로는 죽지 않는다, 손가락은 이전에도 베어 보았지 않나. (그리고 어차피 욕실 수납장의 반창고 상자에는 반창고가 없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포장할 때 스카치테이프가 동이 나면서 반창고를 써 버렸으므로.) 진정하라. 어서 숨을 가다듬어라. 그리고 피를 흘려라.

보라, 피는 곧 멈출 것이다. 몸 안에 내재된 메딕 원이 놀라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편, 싱크대에는 매우 아름다운 빛깔을 띠는 물감이 있다. 미술용품점에서 튜브에 담아 살 수는 없는 짙은 선홍색의 물감이다. 게다가 그것은 홈메이드 물감이다. 우리의 몸 밖에 있는 것 중에서 이것과 가장 가까운 것은 바닷

9)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전화를 걸면 도움을 주는 미국의 응급의료재단

물이다. 우리가 바다 밖으로 나오면서 바닷물의 화학적 특성을 내면화하였으므로. 우리 몸속에는 이것이 5L 정도 흐르는데, 500ml를 뽑아서 누군가에게 쥐버리더라도 바로 보충이 된다.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더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에 관한 많은 것들이 그러하듯, 피도 연구하면 할수록 더욱 더 굉장하고 신비롭고 경이롭다. 혈액의 55%는 액체이고 45%는 고체인데, 고체 성분으로는 적혈구와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이 있다. 적혈구만 해도 25조 개가 존재하며, 적혈구를 붙여서 일렬로 나열하면 지구를 세 바퀴 감을만한 길이의 끈이 된다. 이 피가 우리의 몸 안에서 6만 마일에 달하는 혈관 속을 흐르면서 체온을 조절하고, 에너지와 무기질, 호르몬, 그리고 화학 물질을 필요한 곳에다 공급하는데, 이 과정은 쓰레기 수거 사업을 포함한 모든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에서 부러워할 만큼 효율적이다.

이제 출혈이 멎었다. 피가 16 단계에 걸쳐 단백질을 폭포수처럼 방출하여 댐을 건설하고 혈류를 차단하였기 때문이다. 상처를 입은 시점에는 병원균과 싸우기 위하여 백혈구가 모여들었고, 다른 혈액 성분들은 이미 복구 자재를 운반해 왔으며, 회복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엔돌핀이 분비되었다. 정말로 아프지 않다.

5분간 참을성 있게 거기 서있으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생각과 계획, 조직 또는 노력이 없이도 말이다.

매우 아름답다. 당신의 피는.

매우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이다.

경의를 표할만 하다.

생명이다.

확고부동한 사실.

(한 가지 쪼고 넘어가자면, 이 깨달음의 순간에 가족 중 누가 걸어 들어와 피 묻은 베이글과 칼, 엉망진창으로 난장판이 된 부엌, 연기 나는 빵이 낀 토스터기, 그리고 싱크대 안을 멍하니 주시하고 있는 당신을 보았다면,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 설명하라. 학생이 오면 선생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아스피린이 어떻게 약효를 발휘하는지에 대하여 다 알지 못합니다. 아스피린의 효능은 알지만 그것의 원리는 몰라요.” 디너파티에서 한담을 나누는 와중에 어느 기초의학자가 나에게 말했다. 잠깐만, 이 사람은 의과학자이고, 본인의 호주머니에서는 정부의 보조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런데도 아스피린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인가? 이것은 잡담이 아니다. 사실이다. 이 남자는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 의사처럼 차려입은 TV 광고 모델도 모른다. 오랫동안 존재해온 거대한 신비인 것이다.

천 년 전 중국의 의사들도 진통제를 처방하였다. 당시 중국 의사들은 “버드나무 껍질을 씹으시고 아침이 되면 저를 부르십시오.” 라고 말했다. 버드나무 껍질에는 아세틸살리실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스피린이다. 아세틸살리실산보다 발음하기도 쉽고 버드나무 껍질보다 식도로 넘기기도 쉬운 아스피린.

의과학자와 같은 사람들도 아스피린과 같은 평범하고 단순한 것에 놀라워한다는 사실은 상당한 위안을 준다. 신비는 우리 집 구급함처럼 가까운 곳에 존재한다는 것이니까.

나는 오래 전 업무 일지에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상의 신비’ 라는 제목의 목록을 만들어 놓은 일이 있었다. 어느 과학 전문지에서 ‘우리는 물이 땅에서부터 나무의 줄기를 거쳐 어떻게 앞으로 이동하는지를 알지 못 한다.’ 는 내용의 글을 읽은 것이 계기였다. 놀라웠다! 나는 그 원리를 이미 밝혀낸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록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아주 단순하면서도 평범한 것들의 원리를 규명하지 못했다는 전문가의 글을 읽을 때마다 목록에 기입하였다.

목록에 두 번째로 오른 것은 비둘기들의 귀소 본능이었다. 이어 그 흔하디흔한 감기가 뒤를 이었고, 다음은 탈모였다. 그러나 물리학 강의를 듣던 중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¹⁰⁾에 관한 글을 읽고 나서는 나의 목록이 허접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전자는 어디에나 있음에도 우리는 전자가 파동인지 입자인지를 알지 못하며, 알아 낼 수도 없다. 전자가 헤아릴 수 없는 대상이라면, 글썄, 세상에 오묘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나는 새로운 목록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는 ‘우주의 신비를 엿볼 수 있는 증거들’ 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전자의 오묘함은 우주의 근본적인 무질서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지구는 자전축이 22미터 가량 흔들린다.¹¹⁾ 마치 기울어진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팽이의 축 자체가 요동치는 것처럼.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지구는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메스꺼움이 느껴진다면 아마 이 때문일 지도 모른다.

한편 우리는 지구가 느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¹²⁾ 그래서 이따금씩 시계를 조정해서 윤년을 끼워 넣어야 한다. 이것의 원리는 밝혀졌다. 하지만 지구의 요동에 대해서는 이론은 많으나 아무도 해명하지 못하였다. 우주의 신비.

과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허용 가능한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어떤 분야의 어떤 연구이든지 간에 조금씩은 모순이, 우주의 신비를 드러내는 증거들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명하는 것 보다는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사소한 불일치는 무시해버리는 편이 편했다.

10)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일정수준의 정확도 이상으로는 측정되지 않는다는 원리로서, 양자역학에 대한 추가적 가정이 아니라 통계적 해석으로부터 얻어진 근본적인 결과이다. 위치가 정확하게 측정될수록 운동량의 불확정도가 커지게 되고 반대로 운동량이 정확하게 측정될수록 위치의 불확정도가 커지게 된다.

11) 이것을 지구물리학에서는 챌들러 요동 *Chandler Wobble* 이라고 한다. 약 440일의 주기로 지구의 극점이 직경 수 미터의 불규칙한 원 또는 타원형의 모양으로 회전을 하는 극운동으로 미국의 천문학자 S. C. 챌들러가 발견하였다. 태양과 달 등 다른 천체가 미치는 외력에 의해 생기는 지구의 회전운동인 세차운동과 장동과는 달리 챌들러 요동은 거대 지진 또는 빙상 용해로 인하여 지구 내부의 질량 분포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발생한다고 여겨진다.

12)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는 365일보다 느린 365.2422일이 걸린다. 그래서 역법을 실제 태양력에 맞추기 위해 보통 4년에 한 번씩 여분의 하루, 즉 윤일을 더하게 되는데 그러한 해를 윤년이라고 한다.

과학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따뜻한 아침 시리얼을 아무리 오랫동안 잘 짓는다 하더라도, 그 안 어딘가에는 데워지지 않고 건조한 채로 남아있는 조그만 시리얼 덩어리 하나가 숨어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같다. 몇 년이 지나면 그러한 덩어리를 예상하고 받아들이도록 학습이 되고 그저 시리얼을 먹을 때 늘 있는 일이겠거니 하고 여기게 되는 것 말이다. 그런데 이제 보니 왜인 지가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갑자기 과학자들이 우리가 아침에 먹는 시리얼의 움직임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매번 잘 섞이지 않은 시리얼 덩어리가 남아있게 되는 듯한 이 현상은 아인슈타인의 간단한 공식 이후 과학적 사고에 가장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분야인 ‘혼돈 과학’의 관심사가 되었다.

혼돈 과학은 우주의 신비를 엿볼 수 있는 작은 단서들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혼돈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과학의 모든 분야와 경험의 전 영역에 걸쳐 존재하는 사소한 불일치가 그저 자그마한 오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정보의 실마리가 된다고 말한다. 현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다단한 패턴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혼돈 과학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과학자들은 구름의 형성, 페인트의 혼합, 교통의 흐름, 질병의 확산, 배수관 결빙 등과 같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일상적인 문제들로 관심을 돌렸다. 캘리포니아나 캐스케이드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근래에 꽤나 중요해진 문제인 지진의 주기와 화산 폭발도 혼돈 과학의 범주에 들어간다. 더 큰 패턴의 복잡성은 우리가 아는 모든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새로운 연구 분야를 일컫는데 쓰이는 명칭 자체도 적절하면서 오묘하다. 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과학진흥협회의 제 155차 전국 회의에 참석하여 혼돈 과학에서 다루는 다양한 주제에 관한 논의를 들었는데, 그 주제란 ‘프랙탈 핑거링’ *fractal fingering*, ‘기묘한 끌개’ *strange attractors*, ‘불포화 결합 결함’ *dangling bond defects*, ‘접힌 수건 미분동형사상’ *folded-towel diffeomorphisms*, ‘에덴 성장’ *Eden growth*, ‘부드러운 국수발 모양의 지도’ *smooth noodle maps*, ‘격자 동물’ *lattice animals* 등이었다. 이밖에도 혼돈 과학에는 시적이고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끝자락에 있는 것

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어떠한 거대한 진리를 느끼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표현할 언어 기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혼돈 과학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다. ‘혼돈’이란 쉽게 말해서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테면 우리는 시카고에서 개체가 으뜸으로 많고 최고로 오래되었으며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한 개미 군체와 같다. 이따금씩 똑똑한 개미들 몇몇이 함께 밖을 돌아다니면서 시카고를 이리저리 살펴해보지만, 이들은 보이는 것을 볼 뿐이다. 개미 둑에서 멀리 벗어날수록 신비한 것들이 펼쳐지는 듯하다. 최근 이 개미들은 그들의 세상에서는 본디 한적하였던 지역의 경계에 서있었다. 그 때 강력한 진동이 울리더니 사방에 어둠이 깔리면서 거센 바람이 몰아쳤다. 그것은 예측하지 못한 현상이었다. 개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지하였다. 그리고는 개미 둑에 돌아가 종전의 관념을 수정하게 할 우주의 새로운 현상에 대해 알렸다. 어떤 개미들은 이것을 ‘혼돈’이라고 부르기를 원하였다. 어떤 개미들은 ‘신비한 진동’이라고 일컫고자 하였다. 또 어떤 개미들은 ‘빅뱅의 역화’¹³⁾라고 하기를 원하였다. ‘하나님의 진노’로 하자는 개미도 있었다. 새로운 과학이 탄생하였다. ‘심오한 섭리의 장서’, 그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개미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들이 서 있던 곳은 철도 대피선(代避線)이었으며, 평소 자주 사용되지 않다가 하필이면 그 날 화물 열차가 다가온 것이었음을.

개미들이 맥이 빠질만한 사실은 이들은 결코 시카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반대로 고무적인 사실은 자신들이 끝없이 신비로운 무언가의 한 복판에 있음을 감지하고 있으며,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욱 더 신비로워지리라는 것이다. 개미들은 그들의 천성에 따라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 자신들의 지식의 한계를 밀어내어 그 끝자락에 이른다. 그리고는 미지의 것에 이름을 붙여 헤아릴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기 수월하게 한다. 이것이 개미들의 방식이다.

13) 내연 기관에서 실린더로부터 흡기관이나 기화기 따위로 불꽃이 거꾸로 흐르는 현상

혼돈 과학은 과정, 즉 가만히 있으려하지 않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나는 혼돈 과학이 마음에 든다. 나는 온갖 것에 우주의 무질서가 서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좋다. 우리가 인지하는 순서대로는 해명할 수 없는 딸꾹질과 예측 불가능성, 돌연변이 경향, 존재의 중심에 신비와 경이로움의 닳을 내리도록 작용하는 사소한 오묘함과 같은 무질서 말이다. 또한 내 손에 들린 아스피린과 머리 위에 떠 있는 구름이 내게 그러하듯 전문가들에게도 여전히 신비로운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좋다.

혼돈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내 삶이 대체로 혼돈의 상태이기에. 그러므로 나는 우주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우주는 우리 집처럼 아늑하다.



우리는 그 사건을 ‘포옹 대역병’이라는 명칭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 역병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완전히 바로 잡는 길로 보였던 그 옛날 70년대에 우리 교회를 휩쓸었다. 이 역병의 근원은 ‘주일 아침 예배객 환영을 위한 모임’이었다. 이들은 교회 정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모두 하나하나 껴안아 주기로 하였다. 사람들이 들어서자마자 사랑과 환영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를 바랐던 것이다. 일단 2주간 일요일마다 해보고 반응을 지켜보기로 하였다. 그런데 사태는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지고 만다.

어떨 때엔 무려 여섯 명의 사람들이 일요일 오전 교회 현관에서 움직이는 형체가 보이면 껴안을 태세로 서 있었다. 이 환영을 위한 모임은 심지어 ‘지정 포옹인’, ‘포옹인 대표’, ‘안아 주세요’, ‘나는 인간입니다’, ‘주님은 밝고 명랑하게 포옹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판을 목에 걸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살짝 오두방정을 떨면 그것이 인간관계의 윤희유 역할을 하여 사람들이 실제로 포옹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사태는 견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말았다. 건수가 없을 때면 포옹인들은 서로를 상대로 껴안는 연습을 하였다. 의자 한두 개를 껴안는 이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쏟은 커피를 닦으려던 청소부도 껴안았다. 길 잃은 개가 들어와도 껴안았고, 근처에 있는 감리교 교회인 줄 잘못 알고 들어온 사람들도 껴안았다. 심지어 커피언¹⁴⁾을 껴안은 사람도 있었는데, 따뜻하기도 하고 마

음이 편안해지는 소리가 나서 그리하였다고 한다. 소문에 의하면 단지 포옹을 받으려고 왔다가 교회에 들리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간 교구민들도 있었다고 한다. 포옹 광신자들. 전염병이 창궐하였다. 포옹 대역병!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포옹 받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다. 다소 조용하고 말이 없던 한 교인은 나와 교회의 재단 이사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포옹 혐오증이 생겼다고 말했다. 다른 성도들이 포옹을 하지 못하게 막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교회에 들어설 때면 기쁨의 습격을 받을까봐 불안하다고 하였다. 부엌문으로 조용히 들어가 보려고도 했으나, 포옹 광신도가 된 한 요리사가 그를 껴안았고 그러다가 양복에 닭고기 육수를 쏟았다고 하였다. 한번은 포옹하는 오전 예배객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안경은 벗겨져 땅에 떨어지고 발가락은 밟혔는데, 포옹인 한 명에게 항복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도 껴안아야만 할 것 같은 사회적 압박을 느꼈다고 했다. 포옹인들이 있으면 화장실에 가는 것도 불안하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그가 불평만 한 것은 아니다. 건설적인 제안도 하였다. 교회를 들어서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만 한다거나 악수 정도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입구를 따로 만든다든지, 사람들이 포옹하는 이미지 위에 빨간 대각선이 그어진 표식을 새긴 의료경보 팔찌¹⁴⁾를 차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유행을 근절코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 ‘익명의 포옹자들’이라는 단체를 조직 한다든지, 교인들에게 ‘껴안지 말아 주세요.’ 라든지 ‘손대면 안 돼요.’ 라든지 ‘더러워요.’ 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나눠주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그는 자신이 포옹을 피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엄지손가락을 입에 물고 입장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포옹인들도 이에 대해서는 어찌 할 바를 몰랐다고 한다. 그 외에도 우산을 펼친 채 들어가는 것이나 코흘리개 아이를 안고 들어가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사들과 내가 이 우려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으려는 사이 자유분방한

14) coffee um,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주로 쓰이는 대형 커피 추출기

15)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비영리 조직인 의료경보재단에서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팔찌로서, 한쪽 면에는 MedicAlert 이라고 쓰인 로고가 박혀있고, 다른 한쪽 면에는 천식 등 회원들의 중요한 의료 정보와 고유 번호가 새겨져 있다. 회원들은 이 팔찌를 항상 차고 다니며,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구조요원 등은 목걸이의 고유 번호를 가지고 재단이 보유한 환자의 의료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입맞춤의 첫 물결이 들이닥쳤다. 어느 성도가 성공회 성당에 갔다가 그곳에서 손을 잡고 축도(祝禱)의 노래를 한 후 서로의 뺨에다 뽀뽀를 하는 ‘평화의 입맞춤’이라는 의식을 목격한 모양이었다. 대단한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포옹인들은 모두 예배가 끝나면 서로를 안아 주는 것에 더하여 손을 잡고 서로의 볼에 평화의 입맞춤을 하기로 하였다. 과연 이들은 어느 일요일 오전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평화의 입맞춤을 시행하였다. 그 날로 말하자면 기억에 남을만한 일요일이었다. 우리는 평화 또는 그 밖의 다른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원치 않는 입맞춤을 할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교회 재단의 이사들은 포옹과 입맞춤에 대하여 하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다 보니 성단소 지붕에서 물이 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보다는 쉬운 문제 같아 보였다. 나는 일반 대중에 대한 애정표현의 문제 전반을 주제로 목회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한편으로는’ 했다가 ‘다른 한편으로는’ 하는 식의 설교, 그래서 나 역시 신도들처럼 혼란스러워지고 마는 그런 설교 말이다. 으아악.

70년대는 흘러갔으며, 원치 않는 애정표현은 구식이 되었다. 교인들은 여전히 서로를 포옹하지만 이제는 좀 더 신중해졌다. 이 변화는 제대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포옹의 목적이 바뀐 것이다. 한때는 그 목적이 포옹을 하는 사람의 자유를 표출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포옹을 받는 사람에 대한 배려를 표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받는 것에서 주는 것으로의 변화이다. ‘나를 봐 주세요.’ 에서 ‘당신을 보고 있어요.’ 로의 변화이며, ‘내가 원하는 것’ 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 이 무엇인지를 알아채는 것으로의 변화이다. 이것을 깨우치려면 두 사람이 서로 포옹하는 행위를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누군가를 두 팔 벌려 이해해 보아야 하는 것일지도.



“추수감사절에 대해 내게 거짓말을 했어요!” 대학에서 미국 역사에 관한 최신 수정주의¹⁶⁾ 견해를 접하고 있는 옛 제자가 학교에서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고등학교에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5학년 때 반 친구들과 연극으로 재현해 본 추수감사절 이야기를 마음 속 깊이 믿고 있던 그녀였다.

당시 그녀는 바닥까지 내려오는 벨루어 잠옷을 입고서 흘릴 듯이 아름다웠던 인디안 공주 포카혼타스의 역을 맡았다. 그리고 후에 마일스 스탠디시 *Miles Standish*¹⁷⁾의 역을 맡았던 다른 제자와 결혼을 하였다. 키가 흰칠한 금발의 미남이었던 녀석은 검은 색 골판지로 만든 커다란 모자와 은색 스프레이를 뿌린 운동화, 그리고 그해 10월에 우리 반 학생들이 멜로드라마를 무대에 올리면서 쓰고 보관해두었던 곱슬한 검은 콧수염으로 분장을 하여 매우 늙름하였다. 게다가 플라스틱으로 된 기관단총을 지니고 있었는데, 실은 크랜베리 주스가 충전된 물총임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것이 야외극에 약간의 긴장감을 조성하였다.

이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우리 조상 이야기에서는 길게 연결한 카드 테이블¹⁸⁾의 한 편에 청교도인들이 앉아있었고 다른 한 편에는 인디언들이 앉아있었

16) 역사수정주의란 한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기존의 시각을 재해석하는 역사학의 한 분야이다. 예를 들어 수정주의자들은 미국 초기 역사에 대한 주류 사학계의 전통적인 해석이 원주민들의 시각이 배제된 채 유럽계 백인 이주민들의 입장만이 반영되어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수정’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17)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인들이 개척한 플리머스 식민지의 군사 고문관으로 고용된 잉글랜드 육군 장교

다. 머리에 칠면조 깃털을 달고 얼굴과 팔에는 립스틱을 칠한 쪽이 인디언들이었다. 이들 모두는 고개 숙여 한 해의 추수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 차가운 칠면조 샌드위치를 먹고 루트비어 *root beer* 를 마셨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면 늘 부르게 되는 찬송가 ‘목장 위의 집’ *Home on the Range* 을 합창하였고, 막대 아이스크림과 리커리쉬 휘¹⁸⁾을 먹었다. 그런 다음에는 모두들 잠시 쉬러 나갔다가 레드로버 *Red Rover* 게임²⁰⁾을 하여 인디언들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믿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마땅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올라간 나의 어린 친구는 이 이야기가 실제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배웠다. 청교도인들은 상당히 보수적이면서 우익 성향을 띤 내숭쟁이들이었고, 인디언들에게만 무자비하였던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도 모질게 굴었던 파시즘 신봉자들이었다. 그들은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을 악으로 보았으며,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면서 노래조차하지 않았다. 때로는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서 화형을 시키기도 하였다. 과학과 교육, 춤, 초콜릿, 담배, 그리고 젊은 남녀가 사귀는 것을 배격하였으며, 라디오나 TV, 로큰롤, 드라이브 인²¹⁾을 용납하지 않았다. 오로지 교회와 근면함만이 허락되었다. 그래서 나의 어린 친구는 이 청교도인들을 혐오하였고, 어느 해에는 악의 화신인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부모에게 반항하여 그 날의 식사를 거부하였다.

이제 그녀는 대학생이 되었고, 바야흐로 1988년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껏 들어온 모든 거짓말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다. 이제는 알고 있다. 청교도인들이 항상 검은 옷만 입었던 것도 아니고, 미국을 건립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넌 것도 아니었으며, 공산주의자나 파시스트가 아니라 그저 어느 교회든 가고 싶을 때 어떻게든 갈 수 있도록 고향을 떠난 반항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마치 내 어린 친구처럼*.) 그들은 와인을 마셨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먹었으며, 담배를 피웠

18) 작고 가벼운 사각 테이블로, 주로 카드 게임을 할 때 쓴다.

19) 감초 뿌리의 추출물로 만든 말랑말랑하고 긴 파베기 모양을 한 캔디

20) 어린이 놀이의 일종. 두 팀이 어떤 거리를 두고 마주보고 나란히 서서, 빈갈아가며 상대팀 사람을 지명한다. 지명된 사람은 손을 잡고 서 있는 상대방의 옆을 돌파하려고 하며, 이에 실패하면 상대팀의 일원이 된다.

21) 자동차를 탄 채 이용할 수 있는 극장·식당 등

고, 섹스를 하였다. 젊은 청교도인들은 옷을 입은 채로 한 침대에 누워서 사이에는 판자를 세워놓고 자는 ‘번들링’ *bundling* 이라는 풍습을 따랐는데, 이쯤이야 침대 청소년 누구나 피해 넘어갈 수 있었다. 이후 청교도인들은 나의 어린 친구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하버드 대학을 건립하였고, 이곳에서는 청교도인들의 온갖 훌륭한 전통이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 (그녀가 말했다. “이제는 잘 때 판자는 사용하지 않아요.”)

게다가 청교도인들은 추수감사절을 지내지도 않았고 한 해의 추수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도 않았다. 배가 몹시도 고했던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에만 치중하였다. 멀리서 이웃이 찾아오는 일도 없었다. 애초에 청교도인들은 그들이 영국 국교회를 믿기를 바랐던 친척들로부터 도망쳐온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의 어린 친구는 이러한 해석상의 청교도인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과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었으므로.

참, 그리고 인디언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들 역시 추수감사절을 지내지 않았다. 사실 청교도인들과의 점심 식사는 한 번으로 족하였다. 그 이후로는 문제만 생겼을 따름이고, 먹을 양식도 충분치 않게 되었으니까. 나의 어린 친구는 매 학기마다 선무당들을 길러내는 최신 인기 강의인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 강좌를 듣고 있다.

이상으로 추수감사절 전화로 나눈 긴긴 대화를 짧게 요약해 보았다. 사실 그녀는 뉴잉글랜드에서 외로웠던 것이다. 청교도인들이 한때 그러하였던 것처럼.

대학생들과 대화를 하는 것은 언제나 유익하고도 호뭇한 일이다.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 알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역사는 혼란스럽다. 나의 어린 친구는 앞으로도 추수감사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그 밖의 인간사에 대한 온갖 이야기를 접하게 될 것이고, 그런 후에야 그림은 분명해질 것이다. 청교도인들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낀 것은 큰 진전이다. 나도 그들이 그녀와 비슷하였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나의 해석은 이러하다. 1621년의 어느 가을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청교도인들이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했던 생각은 매해 추수감사절이 끝날 때쯤 나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추수감사절이 마무리되어 기쁩니다. . . 이번에도 저희는 너무나 많이 먹었습니다. . . 하지만 아무도 배앓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 . 이제는 모든 것이 잠잠해졌고, 몸은 따스하고 피부는 보송하며, 편히 잠잘 곳이 있습니다. . . 삶은 계속됩니다. . . 그리고 지금은 이것으로 충분할 뿐 아니라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 . 그래서 저로서는. . . 감사를 드릴 따름입니다.”



유니테리언교²²⁾ 목사들은 종교가 다른 남녀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가 많다. 흔히 ‘다문화 결혼’ *mixed marriage* 이라고들 하는데, 종교적 배경이 서로 다른 경우만을 일컫는 말은 아니며, 인종이나 계급을 초월한 결혼 역시 ‘다문화’로 칭한다. 그러한 결혼식의 주례를 보겠다는 것은 지뢰밭을 무사히 건너려는 두 사람을 따라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에 대한 좋은 사례가 브루클린에서 온 너무나 사랑스러운 한 젊은 여성의 결혼식이다. 그녀의 가족은 대가족으로, 폴란드에서 이민을 온 유대인들이 뿌리를 내린 집안이었다. 그녀의 약혼남은 디트로이트에서 온 키가 흰칠하고 피부가 가무잡잡한 미남이었다. 그의 가족도 마찬가지로 대가족에 이민을 온 집안이었으나, 아일랜드계였고 로마 가톨릭교회에 다녔다. 신부의 가족 중에는 랍비와 칸토²³⁾가 있었으며, 신랑의 가족 중에는 신부 여럿과 수녀가 있었다. 그러한 두 젊은 남녀가 대학원을 다니기 위해 멀리 서부의 끝 시애틀까지 간 것만도 탐탁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이웃에 살면서 알고 지내던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한 일이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져서 급기야 결혼까지 하겠다는 것은 집안 망신 정도가 아니라 온 집안을 완전히 풍비박산 내는 일이었다.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브루클린 양과 디트로이트 군은 스물 한 살이었고 ‘사랑’에 눈이

22) 삼위일체론을 부정하고 신격의 단일성을 주장하는 기독교의 한 파

23) 유대교 회당의 성가대의 선창자

떨어 있었다. 이들은 ‘사랑’으로 모든 장애를 넘을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하지만 주례 목사로서는 확신이 없었다. 전에 다른 비슷한 연인들과는 지뢰밭을 무사히 건너지 못하면서 유탄에 그의 영혼이 상처를 입었던 탓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거의 결말에 이를 때까지 이들의 결혼 준비 계획은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어그러진다. 너무나 예상대로 흘러갔기에 이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내기를 해서 돈을 딸 수도 있을 정도였다. 둘에게 말을 해 줄 수도 있었지만 이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을 것이다. 때로는 스스로 겪고 깨달아야 하는 법. 아래는 이들이 생각해본 그 계획들이다.

계획 1 : 판사 입회하에 결혼을 하고 동부에 사는 가족들에게는 절대 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때 다시 ‘사랑’이 끼어든다. 이들은 자신들의 부모를 사랑하였다. 그런데 부모가 알게 되면(결국엔 어떻게든 알게 되리라.) 역장이 무너질 것이 분명했다. 더욱이 어떤 형태로든 종교적인 예식을 치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말이다. 그런 고로 . . .

계획 2 : 유니테리언 목사가 주례를 서는 가운데 식을 올리고 부모에게는 하루가 지난 다음에 알린다. 사랑의 도피의 절충안이었다. 이들의 부모는 유니테리언 신자들이 무엇을 믿는 지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어쨌든 종교 예식이었고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었다. 좋은 생각이었다. 여기서 풀검 목사가 등장한다. 그래서 . . .

계획 3 : 교회에서 목사 주례 하에 식을 올릴 예정이므로 단 두 명의 증인만을 세울 바에야 친구들 몇 명을 초대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기왕 친구들을 초대하기로 한 김에 초대받지 못하여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친구 몇 명을 더 초대 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하객 리스트에서 ‘친구’와 ‘지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경계가 모호한 지점에 이르렀으므로, 그냥 아는 사람은 전부 다 초대해 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리하여 일이 커지다 못해 이제는 성대한 결혼식의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그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려면 피로연이 있어야 했다(조출한 결혼식이라고 커피는 나가서 마시라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게다가 그 많은 하객들을 위하여 피로연까지 베푸는 마당에 결혼식은 초라하게 치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될 수는 없었다. 그건 안 될 말이다. 하얀 웨딩드레스와 대여한 턱시도, 꽃, 도우미, 사진작가, 반지 등 이 모든

것이 친구 몇 명을 더 초대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이다음에는 어떤 계획이 나왔을지 맞춰보시길. 그렇다.

계획 4 : 이렇게 온갖 난리법석을 다 피우면서 가족들을 초대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다. 지뢰밭이여, 우리가 간다.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지만, 결혼식을 준비하다보면 언제나 당초 예상보다 일이 커지게 된다. 한 번도 계획보다 조출하게 또는 예산에 맞게 치러지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하나를 하게 되면 또 다른 하나를 하게 되고 마는 식이다. 결혼생활 자체, 혹은 인생과 같다고나 할까. 하지만 그렇게 해선 안 될 이유도 없지 않은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일이라면 그냥 그렇게 커지도록 내버려 두자.)

기어코 이들은 지뢰를 밟고야 말았다. 굉장히 큰 것을. 양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결혼식에 초대를 하였다. 그 전화는 우리 집에서 걸었는데 그 날 이후로 전화기가 작동이 안 된다. 아마도 통화 중에 디트로이트와 브루클린까지 합선이 된 모양이다. 자식이 결혼을 한다는 소리에 양가 어머니는 한 목소리를 내었다. “네가 누구랑 결혼을 한다고? 누구랑? 누구!” 그리고선 한동안 말이 없더니 곧 목메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아버지들이 전화를 받았고, 그들의 말의 요지는 “당장 집에 들어와. 지금 당장!” 이었다.

이후 한 달간은 편지와 전화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양가의 삼촌들과 고모들, 이모들, 그리고 사촌들도 이 시끄러운 싸움에 말려들었다. 랍비는 30쪽 분량의 편지를 보내왔고, 신부들과 수녀는 기도를 하였다. 양가 가족은 참석하지 않으리라. 그런 결혼식에는 절대로. 가족들은 겁박을 하였고, 지옥 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으며,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만류하였다. 뇌물로 달래보려고도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 무엇으로도 이 연인들을 말릴 수는 없었다. 상속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그것은 양가에서 내놓은 최후의 협박 카드였다.

그렇다고 신랑과 신부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오랜 시간 풀림 목사의 사무실에서 있으면서, 신부는 소리를 질렀고 신랑은 욕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은 정해진 운명이었다. 그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칠 지라도 말

이다. 이들의 시련과 역경 역시 예정된 것이었으나, 이 연인들에게는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방패와 유머감각 혹은 낙천성이라는 비밀의 무기가 있었다. 이들은 울기도 하였으나 그만큼 자주 웃었다.

게다가 이들은 어렵게 성공을 이뤄 그 어떤 어려움에도 쉽게 굴하지 않는 강인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 부모는 자식들에게도 믿음이 있으면 물러서지 말라고 하였고, 자식들은 바로 그 가르침대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연인들은 서로를 믿었고, 단지 그뿐이었다.

이 팽팽하였던 균형을 깬 사람은 할머니였다. 신랑의 할머니. 하나님께 맹세코 하나뿐인 손자가 결혼을 한다는데 상대가 뉘 집 아무개이든지 간에 할머니가 참석하지 않을 수는 없다. 자신의 손길을 필요로 할 아직은 태어나지 않은 손주를 위해서라도. 게다가 며느리도 달갑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으나 결국에는 잘 풀렸으니 조연은 사양한다. 할머니는 진심이었다. 표도 끊었다. 할머니가 결혼식에 가신다. 경기 종료.

그리하여 도미노는 무너져 내렸다. 할머니가 가신다는데 모시고 갈 사람이 없어서야 안 될 일이다(당연히 할머니 혼자서는 못 가신다). 얼마 안 가 디트로이트에서 아일랜드계 가톨릭 신자 가족 전부가 결혼식에 참석키로 하였다. 브루클린 촌구석의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가족애가 무엇인지 보여줄 작정이었다. 그리고 신부인 디키 삼촌을 데리고 가서 가능한 한 식을 경건하게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브루클린에서 랍비 할아버지를 포함하여 유대인 서른다섯 명이 비행기 표를 끊었다.

결혼식은 노트담 대학 *University of Notre Dame* 과 예루살렘 공과대학 *Jerusalem Tech* 간의 신경전인 것 마냥 전개되었다. 물리학 용어로는 이것을 ‘임계질량 달성’ 이라고 부른다.

기어코 전부 다 결혼식에 오고야 말았다. 그러자 일이 복잡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랍비 할아버지는 식이 끝날 때 전통에 따라 히브리어로 축복서만이라도 낭독하게 해달라고 사정하였다. 아일랜드계 가톨릭 신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

는지, 할머니가 한때 경가극²⁴⁾ 공연을 하였으며, 축복서를 낭독하기 전에 할머니가 먼저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 를 불러야 한다고 극성을 떨었다. 히브리인들에게 병이 옮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책으로 말이다. 한쪽에서는 향을 피우기를 원하였고, 다른 한쪽에서는 식 도중에 와인을 마시고서 그 잔을 깨트리기를 원하였다. 신랑과 신부는 가족들이 무얼 하자든지 간에 그저 머리를 끄덕이다가 미소지며 “뭐든 좋아요.” 라고 할 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대망의 그 날이 왔다. 토요일 저녁(아무개들의 비위를 맞춰준다며 해가 저문 뒤에 식을 거행하기로 하였다.) 양가 하객들이 교회 안으로 행진하듯 걸어 들어와 중앙 통로를 두고 양쪽에 착석하였다. 아니, ‘착석하였다’ 기 보다는 ‘참호를 파고 들어갔다’ 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하리라.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나라면 6 대 5의 확률로 식 이후에 피로연이 아니라 난상토론이 벌어진다는데 내기를 걸었다.

아, 그러나 나는 또다시 ‘사랑’ 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디트로이트에서 온 아일랜드계 가톨릭 신자들은 신랑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에 못지않게 브루클린에서 온 폴란드계 유대인들도 신부를 사랑하고 있었다. 이들은 가족의 자랑이자 존중의 대상이 될 자격이 충분한 훌륭한 젊은이들이었다. 배우자를 고르는 일에 한해서는 너무나 생각 없이 결정을 하였지만 말이다. 게다가 가족 중에 가장 편견이 심하였고 결혼을 극렬히 반대를 하였던 이들도 신랑이 키가 흰칠한 미남이라는 사실을, 또는 신부가 매우 매력적인 아가씨라는 사실을 모른 채 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리고 눈먼 장님이 아니고서야 식 도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채지 못할 리 없었다. 혼인 서약을 낭독하는 내내 이들의 진심이 가득 묻어나왔다는 것을 말이다. 신부가 울먹이자 신랑은 신부를 껴안아 그 자신도 눈물을 흘렸고, 그렇게 교회는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다. 나는 눈물바다가 된 결혼식을 여럿 보았지만 이날 흘린 눈물은 대중목욕탕을 가득 채울 정도였다. 모두가 실컷 울다보니 이 모든 게 끝이 나 있었다. 주례 목사도 울었고, 심지어는 이단적인 예식 절차에 더럽혀질까하여 슬며시 현관에 나가 있었던 신부, 디키 삼촌도 눈물을 훔치고 코를 푸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한다.

당시 벌어진 일은 실로 단순하였다. 주례 목사가 신부에게 이 사람을 남편으

24) 가벼운 희극에 통속적인 노래나 춤을 곁들인 오락성이 짙은 음악극

로 맞이하여 무엇무엇 하겠느냐고 묻자 신부는 “네, 그럼요, 네!” 라고 대답하였고, 그 때 ‘기쁨’ 이 우리 모두를 훌쩍 뛰어넘어 안으로 들어왔다. 아주 익숙하고 고귀하면서 새롭고 즐거운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전해져왔다. 찢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들이나 알아채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것이 기쁨이었음을.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무언의 긍정이었음을. 그리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말로는 헤아릴 수 없기에.

그때였다. 올해로 78세인 아일랜드계 가톨릭 집안의 웃어른, 신랑의 할머니가 일어나 ‘아베마리아’ 를 불렀다. 할머니는 손자를 실망시키려고 이 먼 길을 온 것이 아니었다. 피아노 옆에 선 할머니는 크게 심호흡을 하더니 눈을 감고 훌륭한 노래를 선사하였다. 나는 여태껏 이 노래를 이 정도의 감성과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부르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대단하였다. 나이든 삼류 오페라 가수가 부를 법한 감정 과잉의 새된 노랫소리가 절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할 평생 단 한 번뿐인 기회에 자신의 삶의 정수를 음악으로 들려주고 있는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곡의 아름다운 마지막 음이 잦아들면서 묵직한 정적이 우리를 감쌌다. 그리고 눈을 뜬 할머니가 손자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단다, 아가야.”

그리고 브루클린 유대인들은 마음에서 우러난 기립 박수를 보냈다. 이들이 교회에서 몸가짐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지 몰라도, 그들은 음악을 알았고, 할머니가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불렀다는 사실도 알았다. 큰 사랑은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다. 기립박수가 그래서 나왔다. 대단해요, 할머니!

이에 뒤질세라 랍비 할아버지가 천천히 신랑과 신부의 곁으로 다가가 손을 뻗어 그들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브루클린의 모든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신랑 신부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축복을 받았고, 그쯤은 히브리어를 몰라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물론 바라는 바대로 아일랜드계 가톨릭 신자들도 랍비 할아버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립 박수를 보냈다. 멋져요, 할아버지!

그제야 목사는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기쁨’ 이 승리함으로써 이야기

가 해피엔딩으로 끝맺을 가능성이 농후해졌기 때문이었다. 해피엔딩. 우리는 이 생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해피엔딩을 희망한다. 그리고 이제 막 이야기 하나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려 하고 있었다.

식이 끝날 무렵이 되어서야 두 집안의 사람들은 이해하게 되었다. 궁극적인 것들을 헤아리기 위한 은유적인 표현들을 둘러싼 논쟁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동일한 가치관과 전통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들은 가족과 신앙, 사랑, 같은 하나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찬양할 수 있음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

신랑과 신부는 중앙의 통로를 따라 폴카²⁵⁾ 밴드가 대기하고 있는 피로연 장소로 내달렸다. 신혼부부는 춤을 추었고 모두의 박수를 받았다. 랍비 할아버지는 ‘오페라 가수’ 할머니에게 춤을 청하였고 하객들은 합성을 지르더니 곧 동참하였다. 그렇게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내 생애 그런 피로연은 처음이었다. 밤이 깊도록 오래 오래 춤추고 먹고 웃고 노래하는 피로연이라니. 그곳에서 그러한 피로연은 일찍이 없었다. 참으로 대단하였다!

3일 후 머리가 맑아진 나는 어떻게 이런 결말이 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의심 많은 목사가 틀렸고 신랑과 신부가 옳았다고. ‘사랑’은 편견보다 강력하였고, 결국에는 ‘사랑’이 해내고야 말았다. 내가 완전히 설득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경우에는 증거가 명백하다. 최종 스코어 21-0으로 ‘사랑’이 ‘악의 무리’를 무찔렀다. 그러니 확신이 안설 때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기를. 그들 모두를.

(에필로그. 1년 뒤, 이 믿기 어려운 결혼식의 1주년이 다가오던 날, 나는 카리브해를 향해 중인 유람선에서 발송된 엽서를 한 장 받았다. 신랑 신부가 보낸 것일 테지, 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그 엽서는 신랑 신부의 부모가 보낸 것이었다. 이제는 서로 절친한 사이가 된 그들의 부모가.)

25) 19세기 유럽에서 유행한 빠른 춤곡으로 현대에 이르러서도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인기가 많다.



결혼은 현실이 잠시 중단 된 동화 속 시간으로 여겨지곤 한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가능할 듯도 보이나, 그러한 이야기는 단 하루 동안만 유효할 뿐이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나는 아이들을 재우려고 들려준 이야기의 끝을 해피엔딩으로 맺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매번 한 아이가 이렇게 묻곤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거기다 대고 어떻게 신데렐라는 발 페티시²⁶⁾가 있는 남자와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유리 구두를 신으면 발에서 불이 날 정도로 아팠다고 할 수 있었겠는가? 그게 아니라면 개구리는 공주의 입맞춤으로 왕자가 되었을지는 모르나 여전히 개구리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여 아침 식사로 시리얼 대신 파리를 먹는다고 어떻게 말해줄 수 있었겠는가? 내가 아는 현실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위의 내용이 마냥 터무니없지만은 않다.

나는 결혼을 앞둔 연인들에게 짐짓 심각한 체하며 결혼허가증 *Marriage License*의 보증기간은 24시간이라고 말한다. 요새는 혼인이 지속될 확률이 반반이다. 이는 목사들이 혼인당사자 일방 또는 양방이 재혼인 결혼식의 주례를 부탁 받을 때가 비일비재하다는 뜻이다. 이들의 첫 결혼생활은 오래도록 행복하게 지속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이제 알고 있다. 자신에 대하여, 현실에 대하여,

26) 무생물 혹은 성기가 아닌 신체부위에 대한 애착

그리고 결혼에 대하여. 재혼은 재혼 당사자의 지혜를 반영한다.

우선 이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진짜 결혼과 진짜 혼인서약은 사람들 앞에서 식을 올리는 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안다.

대개는 청혼을 하고 수락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뒤, 또는 결혼 발표를 하고 결혼 날짜며 그 밖의 것들이 정해지고 나서 며칠 뒤,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때가, 그리고 서로가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때가 있다. 이 대화는 며칠, 심지어는 몇 주에 걸쳐 이루어진다.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와중에 하기도 하고, 저녁 식사 후 식탁에 앉아서 하기도 하고, 거실 바닥에 앉아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기도 한다. 대화의 내용은 약속과 집, 가족, 자녀, 소유물, 일, 꿈, 권리, 양보, 돈, 개인적 공간, 그리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 때 체계 없이 뒤죽박죽인 형태로 약속을 하는 것이 언약을 맺는 행위이다. 서로에게 책무를 다하겠다는 보이지 않는 언약 말이다. 단 둘이서 서로가 원하는 바와 믿는 바, 그리고 서로에게 바라는 바를 합의하는 것이다. 이들은 눈빛으로 서로의 진심을 묻고 확인한다. 그리고는 공개적으로 보게 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입맞춤과 포옹으로 그 서약을 봉인한다. 그것이 전부이다. 식은 끝났고, 이제 어떤 식으로든 공개적으로 축하하는 일만 남았다.

이 말이 이단으로 들릴 것을 안다. 교부(敎父)²⁷⁾들은 동의하지 않을 이단 말이다. 하지만 결혼을 하였다면 이것이 사실임을 알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결혼예정자들에게 식을 올리기 전 결혼 상대와의 대화중에 무슨 내용이 오고가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라고 말한다. 그들만의 결혼식을 깜빡 놓치고 싶지는 않을 것이기에.

그런데 재혼을 하려는 연인들이 나를 찾을 때에는 언제나 서로 간에 대화하는데 많은 시간과 힘을 쏟은 뒤이고, 식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초혼이었을 때보다 훨씬 신경을 덜 쓴다. 이들은 저녁식사 시간에 주방에서 서로의 벗이 되어주는 것이 신부 들러리들의 드레스 색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다. 그리고 서로에게 좋은 동반자이자 벗이 되어주는 것이 외모보다 더 중요함을 안

27) 사도들의 뒤를 이어 기독교 신앙의 정통성을 고수하며 신학의 발전에 공헌한 지도자들을 ‘교회의 아버지’ 즉, ‘교부’ 라고 칭한다.

다. 개구리를 정말로 많이 좋아한다면 개구리와 결혼하는 것이 멋진 일임을 알고 있으며, 개구리가 왕자로 바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재혼이 아니더라도 현재의 결혼생활이 안정적이며, 결혼을 한 지 5년의 세월이 흘렀고, 앞으로도 결혼을 유지할 생각인 경우에도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된다.) 재혼은 초혼만큼 낭만적이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사랑이 없는 결혼인 것도 아니다. 이 때의 사랑은 한층 진하고 깊고 성숙한 경우가 많다.

위 몇 단락은 어느 멋진 이야기의 배경이 된다. 한 형제가 서로 비슷한 나이 (20대 초반)에 다코타 주의 어딘가에서 결혼을 하였다. 형은 동네에서 인기가 많은 미남이었으나, 아우는 땅딸막하여 실로 두꺼비 같은 추남이었고, 두꺼비 같은 목소리로 노래 부르길 좋아하였다. 미남 형은 미녀와 결혼을 하였고, 두꺼비는 개구리와 결혼하였다. 형제 부부는 가까이 살면서 서로를 보살펴 주었다. 그러나 두 부부는 모두 불행하였다. 큰 문제는 없었으나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들 부부를 모르는 이들로서는 결코 진실을 알 리 없었다. 아이들은 장성하여 결혼을 하였다. 그리고 미남 형은 나이 50에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하였고, 두꺼비의 아내는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내가 이 모든 사정을 알게 된 때는 홀아비가 된 아우와 과부가 된 형수가 시애틀까지 와서 나와 상담을 하던 도중이었다. 이들은 여러 해 동안 서로를 그저 바라만 보았다. 변치 않는, 그러나 비밀스러운 사랑을 품고서. 형과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두꺼비 동생은 말벗이나 되어주려고 형수의 집에 들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도 하였고, 부엌에서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옛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였다. 이따금 함께 형수네 정원을 돌볼 때면 잡초를 뽑으면서 몇 시간이고 인생 전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들 중 어느 누구도 감정을 말로 내색하지 않았다. 이들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서는 사별을 한 인척간에 사랑을 한다든가 그래서 무엇이라도 해보려는 것에 대하여 보는 시선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두꺼비는 접시를 닦다가 ‘당신을 진정 사랑하오’ 라는 노래를 불렀다. 형수가 따라서 부르기 시작하자 두꺼비는 형수의 눈을 바라보았고, 형수도 두꺼비를 바라보았으며, 그렇게 둘은 깨달았다.

그리하여 이들은 그 긴 대화를, 진짜 결혼식을 시작하였다. 이들의 첫 관심사

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이들의 아이들은 자식이자 조카가 된다. 또한 자식들끼리는 사촌이면서 이복 형제자매가 된다. 게다가 자식들 중에는 혼인을 하였으나 결혼생활이 평탄치 아니한 아이들도 있었다. 이 결합으로 인해 이미 풍랑을 만나 거세게 흔들리는 배들이 전복될 수도 있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사랑은 길고 지혜로웠으며, 인생은 짧고 외로웠다. 그리고 이들은 가장 깊은 의미에서의 결혼을, 서로 함께하겠다는 언약을 이미 한 상태였다.

이들은 사랑의 도피를 결정하였다. 도망가서 결혼하는 것을 상상해보시길. 친구의 친구를 통해 시애틀에 살고 있는 나를 찾은 이들은 나에게 비밀리에 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르고 있었다. 자식들이 내내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불행하였던 결혼생활과 침묵의 인내, 그리고 꽃처럼 피어난 사랑과 부엌에서 치러진 결혼식을 말이다. 자식들은 알았고, 지켜보았으며, 그 과정에서 사랑과 결혼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웠다. 자식들은 일어날 지도 모르는 일에 대하여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다가, 꼭 이루어지리라 간절히 바라는 쪽으로 돌아섰다.

자식들이 알고 있었음을 알게 된 연유는 그들의 부모와 이야기를 나눈 바로 그 날 저녁 딸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엄마와 삼촌의 행적을 추적하여 찾아낸 그녀는 내가 그들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볼 것인지와 식은 언제 올리게 될 것인지에 대해 알고자 하였다. 어떻게든 가족 모두 결혼식에 참여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 결혼에서 동화 속 이야기가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이 결혼을 축복해주려고 신랑과 신부의 자식들이 저 멀리 노스다코타 주의 파고 Fargo에서 카라반²⁸⁾ 열대를 연결한 차를 타고 왔다. 신랑과 신부가 조출하고 조용한 식이 될 것을 예상하면서 일요일 오후 우리 집 앞문을 들어섰을 때, 신랑 신부의 자식들과 손주들은 우리 집 부엌과 뒷문가에 숨어있었다. 신랑과 신부가 내 앞에 섰고, 그때 가족들이 방 안으로 조용히 들어왔다. 미소 띤 얼굴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살면서 이런 순간은 또 없었다.

28) 침실과 화장실까지 갖춘 이동식 주택, 또는 캠핑카.

손주 하나가 “짜잔! 깜짝 놀랐지?” 라고 큰 소리로 외치자, 댐의 수문이 열리듯 감정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가족들 모두는 누가 더 많이 사랑하나 대결이라도 하듯 기쁨의 포옹과 입맞춤을 나누었다.

장내가 정리되고 조용해지자 신랑과 신부, 그리고 자식들과 손주들은 식이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방금 있었던 일보다 더 멋진 식을 생각해낼 수 없다고 말하고는, 신랑과 신부를 부부로, 그리고 큰 엄마와 작은 아빠로 선언한다고 하였다. 그러자 다시금 포옹과 입맞춤과 환호가 시작되었다.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다.

수년 간 나는 재혼을 하는 남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결혼을 하는 이유가 서로에게 반해서 또는 돈이나 사회적 지위 때문에 또는 심지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결혼을 하고 나면 대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혼이란 미로 속을 헤매는 일이라는 것이다. 설거지를 할 때 노래하는 두꺼비, 또는 손을 잡아주는 것으로 두꺼비로 하여금 왕자가 된 듯한 느낌을 주는 미녀처럼 훌륭한 동반자가 있을 때 가장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미로 말이다. 당신이 믿어도 되는 동화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이다.



‘레모네이드 5센트’. 큼직한 빨간 글씨로 야심차게 쓴 여름철 대표 팻말. 우리 집 근처에 그 변치 않는 모습의 노점이 들어섰다. 까무잡잡하게 탄 아이 셋과 카드 테이블, 주방 의자, 큰 음료용기, 종이컵, 그리고 집 울타리에 붙여 놓은 팻말. 처음에는 할머니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다. 걸리적거리는 아이들을 내보내어 한 자리에 좀 오래 앉아 있어보게 하려는 심산이었다. *(부엌 창문으로 아이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할머니의 얼굴이 보인다.)*

아이들은 처음엔 머뭇거렸다. 김새가 이상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돈을 벌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기초적인 자본주의적 욕구에 사로잡혔다. 아이들이 매일 판을 벌인지도 벌써 일주일이 되었고, 심지어는 수익을 늘리려고 레모네이드에 물을 타기 시작하였다.

그 사실을 아는 이유는 내가 근 5일 간 이 아이들의 최고 단골손님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 역시 어렸을 때 레모네이드를 팔아서 용돈벌이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괜스레 길을 돌아 그 가판대 앞을 지나곤 하였다. 그것은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좋은 거래였다. 나는 5센트로 레몬향이 나는 물 한 잔과 새록새록 떠오르는 추억을 살 수 있었고, 아이들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나는 인기 손님이었다. 문을 닫을 무렵에 가면 아이들은 용기 아래에 남아 있는 레모네이드를 공짜로 주었다. 그제야 나는

설탕이 여태 어디 있었는지를 알았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내가 그 또래였을 때보다 장사수완이 좋았다. 제일 어린 아이는 손님을 졸졸 따라다니다가 종이컵을 버리기 전에 회수하는 것이 일어났다. 나는 손님들이 종이컵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겠거니 하고 여겼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종이컵들을 재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건 좀 비위생적이지 않니?” “왜요? 병에 걸리셨어요?” 여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나는 아이들에게 판매 상품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쿠키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내가 아이들에게 쿠키를 5센트에 팔면, 아이들은 10센트에 되파는 식이었다. 이 아이들은 어른이 호의를 베풀면 큰 의구심을 품고 바라 볼 나이였다. 그러나 다음 날 이들의 가판대에는 쿠키가 놓여있었다. 게다가 개당 15센트였다. “할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공짜로 주셨어요.” (부엌 창가에서 할머니가 미소를 머금고 내게 손을 흔든다.) 나는 대적할 수 없는 시장의 힘과 나보다 똑똑한 두 녀들과 맞서고 있었다. 내가 할 일은 지갑을 여는 것이었다. 중간 상인은 끼지 마시라.

그런데 내가 조손(祖孫)간의 장사 수법에 걸려든 호갱 노릇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어느 여름 코르시카 섬의 고원에서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운전하던 중, 한 거리의 부랑아가 내 차를 멈춰 세웠다. 아이는 팔을 흔들며 바구니에 담긴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차를 세워서 보니 아이 뒤에 한 노인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긴 녹색 병들이 놓여 있었다.

아이가 벌어진 앞니를 드러내며 10달러짜리 미소를 싱긋 날린다. “아저씨, 영어 할 줄 아시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 쪼그만 장사꾼이 다가와 비밀스러운 일을 꾸미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저희 할아버지가 아몬드랑 와인을 팔고 계세요. 아몬드는 직접 재배하신 거고요, 와인도 직접 만드세요. 아몬드는 맛이 괜찮아요. 그런데 와인 맛은 형편없어요. 하지만 싸요. 불쌍한 할아버지가 기뻐하시도록 조금만 사주세요. 알았죠?”

또 다른 레모네이드 장수였다. 그리고 ‘레모네이드 상인 연맹’은 단결해야

지 않나. 그래서 나는 1달러를 주고 아몬드를 작은 자루로 한 자루, 그리고 와인 두 병을 샀다. 아이가 웃었고, 노인이 웃었고, 나도 웃었다. 음모는 무사히 성사 되었다.

그리고 아이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 어떤 허위 광고도 없었다. 아몬드는 맛이 꽤 좋았으나, 와인은 소름끼칠 정도로 역했다.

그런데 몇 마일을 더 가보니 또 다른 아이와 노인이 나타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우연이겠거니 하여 나는 또 다시 1달러를 주고 아몬드 한 자루와 ‘최고급’ 싸구려 술 두 병을 더 샀다.

그런데 몇 마일을 더 가보니 또 다른 아이와 노인이 나타났고, 몇 마일을 더 갔더니 또 보이는 것이었다. 20마일을 가는 동안에 이 친근한 노상강도들이 무릇 열한 패나 되었다.

그날 밤 마을에 가서야 나는 알게 되었다. 노인들이 학교에서 영어를 배운 소년들을 고용하였다는 것을, 그리고 소년들이 관광객들을 멈춰 서게 한 후 이야기를 들려주면 항상 먹힌다는 것을. 또한 노인들은 외환 거래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소년들은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 부랑아 녀석들이 관광객들에게 받아가는 것과 노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았다.

녀석들의 수법을 이해하기가 노인들에게 그렇게까지 힘든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하지만 물에 와인 식초를 탄 것을 와인이라고 속여 팔고 있는 처지에 젊은 세대에게 조금 사기를 당하였다고 하여 불평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모두가 사기를 친다.

심지어 나도. 나는 어느 택시 운전기사에게 와인 두 병을 톱으로 주었다. 호텔에서 선착장으로 데려다 주고는 내게 바가지요금을 물렸으나 그와 실랑이를 벌일 만큼 나의 불어가 유창하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그는 와인을 받고 기뻐하였다. 어쩌면 그 와인이 어떤 와인인지를 알게 되어 소년과 함께 있는 그 길가의 노인에게 돌려줄지도, 그러면 와인은 돌고 돌기를 반복할 것이다.

1년 후, 크레타 섬에 있는 헤라클리온 시의 뒷골목. 아이 둘과 흔들거리는 테이블, 유리컵, 큰 음료용기, 그리고 팻말. 예의 그 용품들.

“아저씨, 영어 하시죠?”

또 시작되었다.

“물론이지. 무얼 팔고 있니?”

“ ‘수퍼 콜라’ 라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만드신 거예요.”

내가 기억하기론 수퍼 콜라는 단지 그리스식 탄산음료이다.

“얼마니?”

“미국 달러로 1달러예요.”

“수퍼 콜라 한 병에 1달러라고? 아주 비싸구나.”

“한 번 드셔보시고 말씀하세요.”

‘레모네이드’ 동업자를 실망시킬 수는 없는 노릇, 그리하여 나는 1달러를 주고 수퍼 콜라 한 병을 집어 들어 크게 한 입 들이켰다.

병 안에 든 것은 라키 *raki* 라는, 화이트 라이트닝²⁹⁾과 비슷하고 별도의 가공처리를 하지 않은 독한 술이었다.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술을 마시고서 공중 부양을 했다고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술을 마시고서 어떠했는지를 말해주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란단다.

나의 경우에는 자리를 뜨면서 몸이 후끈 달아오르고 입술이 살짝 마비되는 듯 하였으나 긴장이 느슨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졌다. 이런 게 바로 레모네이드지!

만약 당신이 여름철에 우리 동네를 찾게 되어 ‘아주 특별한 레모네이드, \$1’ 라고 쓰인 팻말 아래 놓인 카드테이블에 축 처진 모자를 쓰고 앉아있는 중년 남성이 보인다면, ‘레모네이드’ 상인 국제 연맹의 이름으로 잠시 들려서 한 잔 마셔 보는 게 어떨지.

29) 알코올 도수가 높고 저렴한 사과주 브랜드



1969년. 팻말에는 ‘이곳만 아니라면 어디든’ 이라고 쓰여 있다. 방랑 길에 오른 ‘꽃의 아이들’³⁰⁾ 셋이, 거대한 모험의 ‘강’을 건너는 중에 차를 얻어 탈 요량으로 고속도로 입구에서 팻말을 들고 서있는 것이었다. 그 시대의 흔한 팻말이었다. 보기도 여러 번 하였고, 사람들에게서 느낀 적도 많았다. 그것은 불만 섞인 방랑기였다.

최근 그 고속도로 입구에서 그러한 팻말을 또 보았다. ‘어디로든 떠났다가 제자리로’. 그 팻말의 정신이 마음에 들었다. 트럭을 세우자 여행자들이 고마워하며 착착 올라탔다. 젊은 대학생들이었고, 남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 이렇게 둘이었다. ‘이곳’에 답답함을 느낀 그들은 한 학기를 쉬면서 어디로든 가서 다 보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자리로’라고 적지 않았나.”

“음, 저희에겐 이곳이 고향이기도 하고, 여기가 좋아요. 그냥 잠시 동안만 다른 곳에서 살아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 충동을 느껴본 적이 없으신가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런다네.”

사람들에게 복권에 당첨되면 무엇을 하겠느냐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각종 고지서 등을 처리하고 나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한다고 한다. 세상을 보고 오겠다고, 어디로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이다. 우리의 가슴에는 유목민의 피

30) 히피 청년들을 말함

가 흐르고 있다. 나는 인류학자들이 갑작스레 버려진 듯한 문명의 유적을 발견할 때마다 흥미를 느끼곤 한다. 무엇이 원인이었을까? 어디로 이동하였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사실 문제는 없었다. 그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단체로 어딘가 다른 곳에서 살아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을 뿐이고, 그래서 떠났으며, 그리고 나서는 돌아오지 못하였을 뿐이다.

살면서 이제껏 살아본 지역의 개수를 세어보라. 나의 경우 51년 동안 37개 지역에서 살아보았고(현재 나의 기록이다.), 아내와는 또 다시 ‘어디로 갈 것이며, 이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좀이 쑤시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며, 그 근질근질함을 긁어 해소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어디로든 떠났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꽤 여러 번 해본 지금, 아래에 내가 알고 있는 단순한 진실 두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사실 울타리 저편의 잔디가 항상 더 푸른 것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울타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가장 푸른 잔디는 물을 준 잔디이다. 그러니 울타리를 건너려거든 물을 가지고 가서 어디에서 머물게 되든지 간에 그곳의 잔디를 가꾸어라.

둘째,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카누 여행의 핵심이다.’라는 ‘리버 러너’³¹⁾의 경구가 있다. 이 경구는 나의 친구이자 카누타기의 고수인 바즈에게서 카누로 급류 타는 법을 배우다가 들었다. 하류로 내려가면서 수시로 멈춰 서 카누를 강기슭에 대고 조용히 앉아보라. 그리고 강을 바라보면서 그 동안 어디를 지나왔고 앞으로는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그곳에는 왜 가야하며 어떻게 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

그래서 그대가 강기슭에 올라 내 곁에 앉거든, 나는 어느 곳의 잔디가 푸른지, 그리고 강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이야기 할 것이다. . . .

31) 래프트나 카약 등 소형배를 이용해서 강의 급류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



‘그리스 철학은 살아있다!’ 아크로폴리스 석벽 아래 포근하게 안긴 모양새로 자리한 고대 시장이자 아테네의 중심인 플라카 *Plaka*의 입구에 영어로 이렇게 낙서되어 있었다. 이 말은 사실이다. 그들은 계속해서 철학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리스인들 말이다. 철학은 기원전 4세기에 완전히 매장되지도, 대학 2학년생들의 짐이 되도록 전공서적 속에 파묻히지도 않았다. 그리스 철학은 살아있었다. 그리스인들 자신이 살아있듯이.

대세인 철학 풍조는 실용주의 *pragmatism* 였다. ‘실행’을 뜻하는 *pragma*가 어원인 실용주의는 명제의 진위가 그 명제의 실용적인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는 철학적 교리이다. 무엇을 말하고 생각하는지에 개의치 마라. 무엇을 하고 그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중요하다. 철학 서적을 읽어보면 실용주의의 전반에 대해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인들이 사는 모습을 살펴보다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아래의 이야기들은 관찰에서 나온 것이다.

크레타 섬의 서쪽 끝에 위치한 하나 *Chania* 공항, 올림피아 항공 여객기가 백여 명의 승객들을 토해냈다. 승객들은 혼잡한 터미널로 들어서면서 고함을 질러댔다. 아수라장이었다. 주먹을 내지르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여성들, 울어대는 아이들. 승객 두 명은 승무원을 한 대 치려고 카운터를 뛰어넘었다. 그러자 경찰이 도착하였다. 손에는 곤봉을 들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사정인즉슨, 이 승객들은 전부 섬의 반대편 끝에 있는 헤라클리온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다. 예정대로 이들의 수하물은 다른 항공기로 헤라클리온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들의 여객기가 다른 도시에 착륙하였고, 그 바람에 승객들은 목적지까지 150마일을 버스로 힘들게 가야만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승객들은 피를 보고 싶었고, 비행기를 압수하여 멋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승객들이 책임자들에 대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곳에 활자화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 표현이 상당히 거칠었으며, 올림피아 항공 경영진의 부모와 출생, 그리고 이들이 죽고 난 후에 가게 될 장소가 언급되었다는 정도로 해두자.

승객들 가운데 덩치가 크고 옷을 잘 차려입은 독일인 관광객이 있었다. 그는 이 아수라장의 언저리에서 작은 원을 그리며 걷고 있다가 느닷없이 독일어와 영어로 번갈아가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였다.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GOTT IM HIMMEL, HELP ME! (하늘에 계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의 절실한 외침이 너무도 강렬하였던 탓에 군중이 잠잠해졌고 우려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들 중 미친개라도 있다는 양 말이다.

그때 군중 너머에서 올림피아 항공 지상직 매니저가 영어로 그의 말을 받았다. “선생님! 선생님! 그것들은 아주 오랜 질문들입니다. 저희 그리스인들은 2천 년 동안 그 질문들에 골몰해 왔습니다만, 예나 지금이나 답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신들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테지만 올림피아 항공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헤라클리온으로 모시고 갈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버스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군중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승객들은 줄을 지어 버스에 올랐고, 버스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헤라클리온으로 출발하였다. 계속해서 질문들을 중얼중얼하며 합리적인 답을 요구하는 독일인 관광객은 맥이 빠진 채로 내버려 두고서.

그날 오후 하냐 시의 해안 길에 자리한 카페에서, 나는 미국 청년 두 명이 인간의 본성이 선한지 악한지를 두고 논쟁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다. 로스쿨 신입생들이었다. 한 청년이 와인 잔을 가리키고는 짐짓 점잔을 빼며 주장했다. 이 문제는 와인 잔이 반쯤 찻는지 아니면 반쯤 비었는지를 묻는 것과 같다고, 단어 선택

과 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말이다. 함께 있던 젊은이는 반대하였다. “아니, 아니, 그렇지 않아. 잔에 와인이 정확히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과학적 도구로 측정할 수 있어. 찬 것과 빈 것의 정의에 대해서도 합의를 할 수가 있고. 이제는 그 케케묵은 논리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어!”

그리고는 웨이터를 불러 빈 잔 두 개와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요청하였다. 과학이 해답을 줄 것이다. 논리적 사고가 인간의 본성이라는 더 큰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듯이.

그 웨이터는 품위와 지혜가 묻어나올 나이에 접어든 그리스 태생의 노인이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그러한 요청의 이유를 물었다. 설명을 듣고 난 그는 두 젊은이와 진실을 검증받을 와인 잔을 차례로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와인 잔을 들어 올려 자신의 코로 가져가서는 그 향을 음미하였다. 그리고 잔을 치켜 올려 두 젊은 여행자들에게 잇달아 무언의 건배를 하고는 와인을 들이켰다. 한껏 풍미를 느끼면서. 웨이터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걸어 나갔다.

실용주의. 소리칠 때와 버스에 탈 때. 논쟁을 할 때와 와인을 마실 때.

멀리 아테네 서남단에 위치한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암석해안에는 스투파/레프크트론 *Stupa/Lefktron* 이라는 마을이 있다. 일반적인 여행지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나,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그리스 실용주의를 가장 잘 그려낸 근대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곳으로 유명하다.

투르크인의 지배(1883년 이전) 이후로 두 개의 이름으로 분열된 스투파/레프크트론은, 오늘날 35개의 정당으로 분열되어 있다. 이 말인즉슨 마을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35명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도 다음의 두 전선에서는 한마음 한뜻이 된다.

하나는 7월과 8월에 관광객들로부터 가급적 많은 돈을 긁어모으려는 불타는 열망이다. 그리고 결속을 이끄는 또 다른 하나는 종교, 즉 그리스 정교회이다.

관광 성수기에는 경제와 종교가 대립하기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전세계 버스 관광객들의 δρα크마³²⁾를 짹짹 쓸어 담으려고 너 나 할 것 없이 카페와 공예품 가게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때, 일요일 오전을 교회에서 허비하려는

32) 고대 그리스의 화폐이자 유로가 통용된 2002년 이전에 사용된 현대 그리스의 통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아무런 문제없다.

이른 아침 고요한 때, 마을 언덕에 자리한 교회 안뜰에다 카세트테이프 테크와 스피커를 설치해 놓은 미카엘리스 신부가, 의자에 앉아서 마을의 어느 카페에서 내온 커피를 마시면서 마을로 미사를 중계하기 때문이다.

3시간 동안 이어지는 미사는 매번 똑같은 내용이라서 누구나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각자 일을 보면서 중계를 듣고 마음속으로 따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하여 오전 9시부터 정오 사이에는 마을이 교회가 된다.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미카엘리스 신부가 말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문제 될게 없어요. 그들에게도 나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하지만 만약에 아테네 주교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요?”

“누가 그 분께 이르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른다고 해도 혹시 모르지요. 이러한 생각이 널리 퍼지게 될지도 몰라요. 마을 사람들이 교회로 와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9월이 오면 그렇게 될 것이예요. 하지만 지금은 마을 전체가 교회가 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결국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종교에 대해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그리스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는가? 그리스 태생이 아닌 이들 중 오직 소수만이 한 번에 두 잔 이상 마시고 살아남아 그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당신이 커피 없인 못사는 커피 마니아라면, 48시간 동안 완전히 각성된 채로 있어도 괜찮고,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혀와 치아에서 새장 바닥 같은 맛이 느껴져도 개의치 않는데다가 극심한 속쓰림에 익숙하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그리스 커피를 좋아할 것이다.

내가 처음으로 그리스 커피를 마신 것은 시애틀에 있는 성 데메트리오스 그리스 정교회 성당의 가을 바자회에서였다. 그리고 그 커피는 콘스탄지아 그레고 코포올로스라는 아테네에서 손주를 보러 온 84세의 할머니가 만들어 준 것이었다. 성당에서 제공하는 커피를 맛본 그녀는 야단법석을 떨며 제대로 된 그리스 커피를 내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 날 오후 할머니는 온통 검

은색 옷차림을 한 채, 낫쇠 냄비와 버너와 마찬가지로 검게 로스팅된 원두에 둘러싸여 있게 되었다. 할머니는 마치 마법사처럼 냄비 위로 상체를 숙인 채 통역사에게 중얼거리듯 말하였다.

“커피 한 잔 주시겠습니까?” 내가 말했다.

“Πρέπει νά περιμένεις.” 그레고코포울로스 할머니가 말했다. (귀가 거의 안 들리는 터에 나와 통역사에게 약간 소리치듯 말했다.)

“할머니께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이유를 물어봐 주시겠소?”

“Οί Άμερικανοί ὄλο θέλουν άμέσος, άλλά δέν εἶναι ὄλο άμέσος καλά.”

“미국인들은 언제나 지금 당장 가지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갖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Ὁ Θεός ἔκανε ἑπτά μέρες γιά νά κάνη τόν κόσμος καί τόν ἔκανε ὀρέα διόση δέν διάστικε.”

“하나님께서 7일간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이 보기에 흠족하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느긋하게 보내시고 조급해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Ἐγώ, Κωνστανζια Γρεγοκόπουλος, θέλω άκριβός ἑπτά λεπτά γιά τόν καφέ εἶς τό ὄνομα τόν Θεού.”

“할머니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커피를 만드는 데 정확히 7분이 걸린다고 하십니다.”

“Θά περιμένεις καί θά τό φτιάσο καί θά τό πινίς καί θά σου αρέσει.”

“기다리면 커피를 만들 것이고 그렇게 해서 커피를 마시면 만족스러운 것이라고 하십니다.”

“네, 할머니.”

그래서 나는 기다렸고 할머니는 커피를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마신 커피는 정말로 만족스러웠다.

“어때 맛이 좋지?” 할머니가 내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다.

“네, 할머니.” 내가 말했다.

“Θά μάθεις νά περιμένεις καί ὁ Θεός θά σε εὐλογίση ποιό συχνά καί θά

ζίσης νά γεράσης χαρούμενος.”

“할머니께서는 기다리는 법을 배우면 하나님께서 더 자주 축복해주실 것이고 그러면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할머니는 듣성듣성 빠진 치아를 보이며 웃었다. 그리고는 지혜를 찾을 가능성이 아직은 있는 바보들에게 줄 법한 애정 어린 손길로 나의 볼을 꼬집었다.

“질문 있습니까?” 대학 강의나 길었던 회의가 끝날 무렵 들어오는 제의. 이 제의는 청중에게 정보가 과다 투여되었을 뿐 아니라 어쨌거나 남아 있는 시간이 없을 때 들어온다. 이럴 때 여러분은 분명 묻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가도 됩니까?” 라든지, “이 회의는 대체 왜 한 겁니까?” 라든지, 또는 “마실 것은 어디에 있나요?” 라는 등의 질문 말이다.

질문을 받겠다는 의사 표시는 화자의 개방성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하나, 당신이 정말로 질문을 하였다가는 화자와 청중 모두의 아니꼬운 눈초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어떤 바보(어떤 성실한 바보)는 항상 질문을 한다. 그리고 화자는 항상 답을 한다. 이미 말한 내용의 대부분을 반복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시간이 다소 남아 있고 이 질문으로 인하여 일말의 침묵이 흐를 경우, 나는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곤 한다.

혹시 모를 일이다. 누군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그리고 그 답을 들을 기회를 놓친다면 나는 정말로 억울할 것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질문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억눌려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그 질문을 하고나면 사람들은 대개 부조리³³⁾하고 시답잖은 질문을 했다고들 생각한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짐을 챙기고는 우스꽝스러운 분위기로 해산하고 마는 것이다.

한 번, 딱 한 번, 나는 그 질문을 하고서 성의 있는 대답을 들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아직도 나의 가슴 깊이 새겨져 있다.

우선 이 질문을 한 장소가 어디인지를 말해주어야겠다. 왜냐하면 그곳은 그곳만의 특수한 역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의 한 지역이다.

33) 인간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길 바라지만 그럴 가망이 없음을 이르는 말.

크레타 섬의 바위 해만에 위치한 고니아 *Gonia* 마을 근방에 그리스 정교회 수도원이 있다. 그리고 그 옆, 수도원에서 기증한 땅에는 어떤 교육시설이 세워져 있다. 인간의 이해와 평화, 그리고 특별히 독일인들과 크레타 섬 주민들 간의 화해를 위하여 설립된 것이다. 전시에 쌓인 원한의 잔재를 감안할 때 도무지 가능할 법하지 않은 일을 위하여.

이 장소가 중요한 이유는 말렘 *Maleme* 의 작은 활주로가 내려다보이기 때문이다. 그 활주로를 통해 나치의 낙하산 부대가 크레타 섬을 침략하였고, 부엌칼과 낫을 휘두르는 농민들의 공격을 받았다. 이에 대한 나치의 보복은 참혹하였다. 히틀러의 최고 부대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크레타 섬에 있는 온 마을의 주민들을 줄을 세워 총살한 것이다. 이 학교 너머에는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곳에는 크레타 섬의 민병을 위한 공동묘지임을 표시하는 십자가가 하나 꽃혀 있다. 그리고 만 저편의 또 다른 언덕에는 나치 낙하산 부대원들이 열병을 하듯 줄지어 매장되어 있다. 이 묘지들이 지금의 위치에 조성된 이유는 모두가 볼 수 있게 하여 영원히 잊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크레타 섬 주민들이 선택한 단 하나의 무기는 증오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무기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놓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렇듯 무거운 역사적 배경에 맞서, ‘증오의 돌’ 이 견고하고 두터운 이곳에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시설의 존재는 깨지기 쉬운 역설이다. 어떻게 이곳에 설립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의 답은 한 사람, 알렉산더 파파데로스라는 사람이다.

알렉산더 파파데로스는 철학 박사이자 교사이자 정치인이며, 아테네 주민이지만 이 땅의 아들이다. 전쟁이 끝나자 그는 독일인들과 크레타인들이 서로에게 베풀 것이 많고 배울 점이 또한 많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창조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이렇다. 파파데로스는 해냈다. 공포의 현장에 모임의 장인 학교가 설립되었고, 실지로 이 학교를 통해서 양국 간의 생산적인 교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곳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으로써 어떠한 꿈

이 실현되었는지에 대한 서적들이 나왔다.

내가 여름 강좌를 들으러 이 학교에 왔을 무렵, 알렉산더 파파로스는 이미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한 번 쳐다보기만 해도 그의 강인함과 강렬한 기운이 전해져 왔다. 정력과 육체의 강인함, 용기, 지성, 열정, 그리고 생동하는 기상이 그에게서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그와 이야기하고 악수를 하고 그가 강연을 할 때 같은 장소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의 보기 드문 인간애가 진한 감동을 주었다. 가까이에서 봤을 때 명성이 기대에 부응하는 이는 드물다. 그러나 알렉산더 파파테로스는 예외였다.

파파테로스가 그리스 전역에서 불러 모은 지식인들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그리스 문화를 주제로 2주에 걸쳐 진행한 세미나가 끝나는 날 마지막 오전 시간, 강의실 뒤에 앉아 있던 파파테로스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열린 창으로 쏟아지는 그리스의 밝은 햇살 아래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시선을 따라 만 저편으로 눈길을 돌리자 독일인 묘지임을 나타내는 철 십자가가 보였다.

그가 돌아섰다. 그리고 그 의례적인 제의를 하였다. “질문 있습니까?”

고요의 장막이 강의실을 감쌌다. 지난 2주 간 일생 동안 고민하게 될 만큼의 물음들이 생겼으나 그 순간에는 오로지 침묵만이 있었다.

“질문 없습니까?” 하며 파파테로스는 강의실을 훑어보았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파파테로스 박사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의 그 웃음이 뒤따랐고, 장내는 나가려는 사람들로 소란스러워졌다.

파파테로스는 손을 들어 소란을 잠재우더니 오랫동안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내가 진심으로 그 질문을 하였는지를 묻고 있었고, 그것이 진심이었음을 내 눈빛에서 읽어냈다.

“그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그는 바지 뒷주머니에서 가죽 지갑을 꺼내어 아주 작은, 25센트짜리 동전만한 크기의 원형 거울을 꺼집어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어려서 전쟁 중이었을 때 우리는 매우 가난했고 외딴 마을에서 살았

습니다. 하루는 도로에서 깨진 거울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독일제 오토바이가 작살이 나있었지요.”

“깨진 조각을 전부 찾아서 붙여 보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조각만 남겼습니다. 이것을요. 그리고 돌에 놓고 갈아서 둥글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장난감 삼아 가지고 놀기 시작했고, 깊은 구멍과 틈새와 어두운 옷장과 같은 해가 들지 않는 어두운 곳에도 빛을 반사하여 비출 수 있다는 사실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가장 빛이 도달하기 힘든 장소를 찾아 빛을 비추는 것이 저에게는 일종의 게임이 되었지요.”

“나는 그 작은 거울을 버리지 않았고, 바쁘게 자라면서도 한가할 때마다 꺼내어 그 도전을 계속하였습니다. 어른이 되자, 이것은 단순히 어린아이의 놀이가 아니라 내 인생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은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 자신은 빛이 아니며, 빛의 근원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과 이해, 지식이라는 빛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었고, 내가 그 빛을 반사해서 보내야만 어두운 곳에서도 빛이 나게 되는 것이었지요.”

“나는 거울의 조각입니다. 그 거울의 전체 디자인과 모양은 알지 못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세상의 어두운 곳, 인간의 어두운 마음속으로 빛을 보낼 수가 있고, 그리하여 일부 사람들의 일부분에는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따라하게 될 수도 있지요. 이것이 나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의 의미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 작은 거울을 조심스럽게 들더니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햇살의 광휘를 붙잡아 내 얼굴과 책상 위의 모은 나의 두 손에다 비추었다.

그해 여름 그리스 문화와 역사에 관하여 습득한 정보라고 할 만한 것의 대부분은 기억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내 마음의 지갑 속에 작고 둥근 거울을 지니고 있다.

질문 있습니까?



언젠가 하지 전야에 프랑스 남부의 엑상프로방스 근방에 있는 푸리카르드 *Puyricard* 라는 농촌마을에서 열리는 성 요한 축일 축제에 누가 아내와 나를 데리고 갔다. (어느 성 요한인지는 모르겠다. 성 요한이라 불리는 이가 많기에. 누가 되었든 음악과 춤으로 축제를 별일 이유를 제공했으니 그에게 감사할 일이다.)

밤하늘에 첫 별이 보이자 마을 주민들이 학교 후 운동장에다 화톳불을 크게 피웠고, 민속음악단은 기타와 큰북, 목동의 피리, 콘서티나³⁴⁾를 연주하기 시작하였다. 현대적이면서 동시에 고전적인 음악이었다. 커플들은 세계 공통의 투스텝³⁵⁾을 추면서 그 커다란 불, 그들의 유일한 빛, 그 주위를 둘러쌌다. 아름다웠다. 소설이나 영화, 또는 장밋빛 상상 속에서나 나올법한 장면이었다.

첫 번째 막간 휴식에 커플들은 다과를 먹으러 자리를 뜨는 대신 그 화톳불을 서서 응시하였다. 그때 별안간 체격 좋은 젊은 남자가 서로의 손을 부여잡고 달려가 허공을 높이 날아오르더니 그 맹렬한 불길을 뛰어넘었고, 숲의 가장자리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무사히 착지하였다. 구경꾼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두 연인은 서로를 껴안았고 아찔한 기쁨의 표정을 나누며 걸어 나왔다. 이들은 서로의 운명을 시험하였고 상처 없이 빠져나와 다시 한 번 춤을 출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말기를, 이들이 한 일은 상당히 위험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불을 뛰어넘는 것이 성 요한 축일의 핵심이었다.

34) 육각형의 초롱 모양을 한 아코디언

35) 4분의2 박자의 사교댄스

방식은 이러하였다. 연인(결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이 또는 친구사이더라도 언약을 맺고 싶은 경우, 서로 평생 이별하지 않도록 함께 소원을 빈 다음 달려나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화롯불을 뛰어넘는 것이다. 불이 뜨겁고 불꽃이 높이 피어날수록 오래 두고 가까이 사귀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불을 잘못 판단하여 그 불에 그슬리거나 건너 쪽의 숯을 밟거나 아니면 뛰어 오르다가 서로의 손을 놓치는 경우에는 당신과 당신의 인연에 악운이 찾아온단다.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이것은.

그리하여 마음만은 청춘인 사람들과 발이 재빠른 사람들이 먼저 뛰어 넘었고, 날이 저물어 어두워지고 불길이 사그라들자 좀 더 신중한 사람들이 시도하였다. 어떤 이들은 불을 뛰어넘지 못하였다. 너무 일찍 뛰거나 너무 늦게 뛰거나 달려가다가 바로 앞에서 멈추거나 하였고, 한 명은 뛰어 올랐으나 다른 한 명은 마지막 순간에 뒤로 물러서면서 서로의 손을 놓치기도 하였다.

웃음과 환호와 놀림이 가득하였으나 분명 이것은 엄숙한 고대 의식이었다. 그저 그런 축하 파티가 아니었다. 일 년에 한 번, 한여름의 늦은 밤, 음악과 춤으로 정신을 고양시키고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아 그와 함께 운명의 불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저녁이 끝날 무렵 별건 숯만 남았을 때 마지막 춤을 알리는 전통 가락이 연주되었다. 목동의 피리에서 울리는 마지막 음이 잦아들자 마을 사람들은 잿불의 부드러운 광채를 둘러쌌고 침묵에 잠겼다. 그때 마을에서 결혼한 지 가장 오래된 부부가 서로의 손을 잡았고, 기쁨 있게 그리고 엄숙하게 함께 걸어가 불이 타고 난 자리를 넘었다. 그 축도의 신호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포옹하였고 별이 빛나는 밤을 건너 집으로 걸어갔다. 그리하여 모든 사랑의 불길은 영원히. . . .



미국인들은 확실한 대답을 선호한다고 한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예스 아니면 노. 애매한 것은 제발 삼가해 달라.

인도네시아에서 흔히 쓰이는 말로 ‘혹과 백’으로 대답해야 할 상황에서 세련되게 에둘러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 *belum* 이라는 단어인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뜻이다. 지금은 몰라도 앞으로 실현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멋진 단어이다. “영어 할 줄 아시나요?” “*belum*”. 아직 못합니다. “아이는 있나요?” “*belum*”. “삶의 의미를 아시나요?” “*belum*”. 딱 잘라서 ‘아니오.’라고 하는 것은 무례하고 비관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택시에 불이 났나요?” “*belum*”. 아직이요.

그 옛날 보더빌 *vaudeville* ³⁶⁾ 식 농담 뒤에 감춰진 것과 동일한 태도이다. “바이올린 연주 할 줄 아나?” “모르지. 한 번도 안 해봤으니.”

아마도. 어쩌면. 만약에. 긍정과 부정의 극단이 아니라 무엇인지가 분명치 않은 영역. 버스를 타고 떠나는 장대한 여행과 같은 인간의 모험에서는 애매한 경계가 환영받는다.

현재 이 세상이 모든 가능한 세상 가운데 최선인가요? *belum*.

이 세상은 끝으로 치닫고 있나요? *belum*.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belum*.

36) 음악과 코미디, 춤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결합한 극장용 예능·오락 쇼로서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한 버라이어티 쇼가 등장하기 이전인 1880년대부터 1930년대 사이에 유행하였다.

전쟁의 무기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헛된 희망을 품는 일인가요?

뻔뻔. 아직 아닙니다.



독일 울름 시에 자리한 대성당의 첨탑은 높이 529 피트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738개의 돌계단을 올라야 첨탑의 꼭대기에 다다른다. 내가 직접 세어보았다. 만약 당신이 정상에 이른 뒤에도 여전히 숨을 쉴 수 있고 눈의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면 눈에 띄는 명소 두 곳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마을 남쪽 바이에른 알프스의 산기슭과 마을 동쪽 다뉴브 강가에 우뚝 솟은 절벽이다.

16세기 말 한스 루드비히 바블링어 *Hans Ludwig Babblinger* 가 이곳에 살았다. 그는 의수족 제작자였고 특별한 기술을 소유한 장인이면서 그러한 기술로 지역 내에서 유명세를 떨치는 사람이었다. 절단 수술이 질병과 부상을 치료하는 흔한 방법이였기에 그는 무척이나 바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손이 일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정신은 딴 데 가 있을 때가 많았다. 바블링어는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상상했던 사람들 중 하나였기에.

적당한 때가 되어 그는 자신의 기술과 꿈과 공방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날개를 만들었다. 운이 좋았는지 그는 상승기류가 잘 발생하는 바이에른 알프스의 기슭에서 그 날개를 시험해보기로 하였다. 어느 날, 어느 기적 같은 날, 믿을만한 사람들이 목격하는 가운데 한스가 높은 언덕에서 뛰어 내렸고, 기류를 타서 안전하게 착지하였다. 세상에 맏소사! 바블링어가 날 수 있다니!

시간과 무대를 달리하여, 1594년의 봄. 루드비히 왕과 궁정 신하들이 울름시를 방문하기로 하였고, 시의 지도자들은 왕을 감탄케 하고자 하였다. “한스 루

드비히 바블링어를 대령하여 전하를 위해 날아보이도록 하라!” 당연한 수순이었다.

운이 나쁘게도 바블링어는 왕과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가까운 다뉴브 강가의 절벽을 시연 장소로 골랐다. 그곳의 바람은 하강기류였다.

대망의 그 날이 왔다. 음악인들, 왕과 그의 신하들, 시의 지도자들, 수천 명의 평민들이 모두 강가에 모였다. 바블링어는 절벽 위의 높은 단상에 올라서서 손을 흔들었고 몸을 웅크렸다가 공중으로 내던졌다.

그리고 대포알처럼 강물 속으로 곤두박질쳤다.

대사고였다.

돌아오는 일요일 울름 대성당의 설교단에서 울름 주교는 설교 도중에 바블링어의 이름을 대면서 오만의 죄를 지었다고 치욕을 주었다.

주교는 “인간은 하늘을 날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라며 규탄하였다.

주교의 분노에 찬 비난에 위축이 된 바블링어는 성당에서 걸어 나와 집으로 돌아간 뒤 다시는 대중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죽었다. 자신의 날개와 꿈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서.

최근 나는 5천 피트의 상공에서 파도형 기류³⁷⁾를 타고 비행하는 글라이더³⁸⁾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 바블링어와 울름 주교가 떠올랐다. 아래로 열기구와 초경량 항공기, 다른 글라이더들, 그리고 반원을 그리며 하강하는 패러슈티스트³⁹⁾들 세 명이 보였다. 위로는 747 여객기가 시카고를 향해 동쪽으로 선회하였고 고도 38,000 피트로 상승하기 위해 기수를 들어 올렸다.

나는 한스 바블링어를 그의 무덤에서 불러내어 글라이더에 탑승하게 한 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른다. “보세요! 보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인간은 하늘을 날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37) 강한 바람이 산악지대를 통과하면서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파도치듯이 연달아 발생하는 기류

38) 무동력 비행기

39)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낙하산을 착용한 채 뛰어내리는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

역사적으로 불 때 설교단이 상징하는 것은 지탄의 손가락이었다. 인간의 죄와 실패, 불의, 부정한 행위,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각하는 오만을 정죄하는 손가락.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러한 것을 설교하면 희망이 있을 수 없다. 이생에는 영광이 있을 수 없다.

나는 설교단이 상징하는 것이 날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천사나 독수리의 날개 또는 당신이 본 적이 있는 여느 날개가 아니다. 마음과 정신을 고양시키는 거룩한 인간영혼의 날개이다. 우리들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바블링어들, 이 날개를 보고서 인간의 가능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계속해서 도전할 의욕이 고취될 그 바블링어들을 위한 날개이다.

그러한 날개는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날개의 존재를 믿어야 상상 속에서나 보일 것이고, 그 날개가 작동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곳에서 모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요새 울름 성당을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관광객이다. 일요일 미사 때 이 오래된 설교단 밑에 착석하는 소수의 성실한 사람들보다, 세속의 대성당에서 저 언덕 너머 밝은 아침 하늘을 무리지어 비행하는 행글라이더들이 더 많다.

한스 루드비히 바블링어씨, 당신이 어디에 있든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슬람 전통에서 수피교도들은 신비주의자들이다. 수피 지도자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담은 이야기들로 유명한데, 이 짧은 일화들은 처음 들었을 때에는 가볍고 단순해 보이지만 위대한 지혜의 씨앗을 품고 있다. 이 이야기들은 결코 지루한 설교로 들리지 않는다.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 이야기들을 탐구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수준의 의미를 취하도록 이끈다.

그렇다고 스위스를 여행하던 중에 버스에서 만난 이슬람 학자가 설명해 주었다. (그는 알제리 출신의 은퇴한 수피 스승이었는데, *더운 평지에 진저리가 나서 산지에서 잠시 살아보고 싶어 하였다.*) 아래는 수피 수도승들의 여행에 관한 일화 중 그가 가장 좋아하는 두 편의 이야기라 한다.

유명한 수피 스승이면서 사실상 성인의 경지에 오른 어떤 이가 어느 작은 마을을 지나고 있었다. 그는 삶의 의미를 이해하게 해 줄 비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한 소매치기가 다가가서 그의 손재주로 성인의 몸을 뒤졌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섰다. 그가 발견한 것은 오로지 주머니뿐이었다.

어느 유명한 수피 스승이 왕자로부터 함께 사자 사냥을 가자는 청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사냥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경이로웠

지요!” 그렇다면 사자는 몇 마리나 잡았을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소. 그래서 경이로웠다는 말이지요.”



이 세상 밖 어딘가에는 한 젊은 여성이 있다. 아래의 편지를 읽게 된다면 “어, 이거 나잖아. 이걸 내 이야기야!” 라고 외칠 이가. 이 편지는 나를 비롯하여 나에게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성된 것이다. 한 사람의 ‘코미디’와 같은 절망의 순간에서 모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생겼기에.

친애하는 동료 순례자에게

아가씨는 1984년의 여름이 끝날 무렵 홍콩 공항에서 내 옆 자리를 불안한 듯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집으로 돌아가는 젊은 미국 여행자’였지요. 당시 아가씨는 청바지와 티셔츠를 사롱⁴⁰⁾과 샌들로 맞바꾼 상태였고, 손질이 편하였을 짧은 머리는 길게 자라 풀어헤쳐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옆에 놓인 배낭은 힘든 여행으로 인해 헤어지고 흠이 묻어 있었으며, 세상을 구경하고 얻은 신기한 기념품들로 울퉁불퉁 불거져 있었습니다. 행운아, 라고 나는 생각했지요.

아가씨의 턱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나는 아가씨가 실연을 당했거나 아니면 대학 수업 때문에 모험을 그만둬야하기에 슬퍼하고 있겠거니 하고 막연히 생각했지요. 그런데 아가씨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을 때, 나는 아가씨의 슬픔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가씨가 한동안 매우 외로웠고 또 매우 용감하였

40)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남녀 구분 없이 허리에 둘러 입는 천

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컷 우는 것이 마땅했지요. 그래서 아가씨는 눈물을 펄펄 쏟았습니다. 나에게 말이지요. 감당하기 힘든 불안의 몬순 폭우, 그 홍수를 말리려면 나의 손수건과 아가씨의 손수건과 거의 한 통의 휴지와 아가씨의 양 소매가 필요했습니다. 마침내 모두 쏟아내기 전에 말이지요.

실제로 아가씨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더 멀리 가고 싶었지요. 하지만 아가씨도 아가씨의 친구들도 돈을 모두 써버리고 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공항에서 마냥 대기하고 있었어요. 먹을 것이 거의 바닥이 났지만 자존심 때문에 구걸하지도 못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아가씨의 항공편은 곧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탑승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또 다시 나에게로 울음을 쏟았지요. 아가씨는 그 한 자리에 세 시간을 앉아 있으면서 어뢰를 맞은 화물선처럼 차가운 절망의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때로 아가씨는 죽어서나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가씨의 눈물을 말리고 난 뒤에 나는 밀물처럼 들이닥친 아가씨의 눈물에 함께 휩쓸린 시카고 출신의 친절한 노부부와 더불어 아가씨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겠다, 그리고 항공사의 권한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해서 도와줄 방도를 찾아보겠다, 라고 하였지요. 아가씨는 우리와 함께 나서려고 자리에서 일어섰고, 돌아서서 소지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아가씨가 총에 맞기라도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 . . 탑승권이었어요. 아가씨가 탑승권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아가씨는 탑승권을 깔고 앉아 있었던 것이었어요. 세 시간 동안 말이지요.

지옥의 문턱에서 구원받은 죄인처럼, 아가씨는 웃고 울고 우리 모두와 포옹한 뒤 급히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모험을 위해 비행기를 타러 떠나간 것이지요. 라운지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가씨의 코미디에 참여한 뒤 뿔 듯이 기쁜 한편 맥이 빠지도록 남겨놓고 말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했습니다. “자기 탑승권을 깔고 앉아 있었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마치고 나면 듣고 있던 사람은 항상 씩씩한 자기 인식과 함께 웃음을 터뜨립니다.

종종 나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탑승권을 깔고 앉아있었다는 사실, 혹은 나를 일으켜 세워 새로운 모험에 나서게 할 무언가를 깔고 앉아있었다는 사실을 깨달

을 때면, 나는 아가씨를 생각하며 우리 둘을 향해 환한 웃음을 짓고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가씨는 특별한 인연으로 만나 나의 여행 도우미가 되었어요. 아가씨가 모든 탑승권을 찾아 어디로든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나는 60대 후반의 많은 서양인들과 마찬가지로 나의 종교적 여정에서 어딘가 다른 곳에 머물러 보고 싶었다. 혼란이 내 마음의 왕국을 지배하였고, 현재의 문화적 도구를 넘어선 듯 보이는 이해의 틀을 만들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이곳”에서는 “그곳”으로 다다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나는 선(禪)과 선적 깨달음에 끌렸다. 가만히 앉아 마음을 비우고 언어를 넘어선 거대한 이해의 물결에 불현듯 휩싸인다는 것 말이다.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큰 이치를 깨우쳐 “그것이로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하여주기.

나는 일상을 내려놓고 제대로 선적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일본으로 떠났다. 어느 사찰과 한 선사를 알게 되었고, 머리를 깎고 면도를 하고 수련자용 괴색(壞色) 승복을 입은 다음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줄을 섰다. 단숨에, 약 6주 후면 상당한 영성을 갖추게 되리라 예상하면서. 사실 그 6주는 귀국 항공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었다.

하지만 당연히 그것이 가능할 리가 만무하였다.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 환각과 경련이 생겼을 뿐 깨달음은 없었다. 그곳의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으며, 나무 바닥에서 자다보니 요통이 생겼다. 그리고 나의 동료 승려들은 나를 서양인 바보 취급을 하였고 등 뒤에서 나를 비웃었다. 말하자면, 나만 모르는 무언가가 있음을 눈치 채고는 있으나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그러

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나는 떠나야 할 때가 왔음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찰의 선사가 나와 문답을 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것은 마치 매장 진열 아르바이트생이 회사 사장으로부터 점심을 같이 하자는 요청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내가 특별히 그 사찰을 선택한 이유는 상당 부분 그 선사의 명성 때문이었고, 더욱이 그는 나와 같은 관광객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 드물었기에 그의 제의는 특별한 영광으로 느껴졌다.

마나부 코하라. 도쿄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공안(公案)⁴¹⁾을 전부 풀어냈고, 기업 총수들의 고문이며, 다수의 책을 출간하였고, 일곱 개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알며, 위대한 스승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다. 현명하고, 훌륭하며, 널리 존경을 받고, 재주가 많은 선사. 만일 그가 ‘그것’을 모두 깨우치지 못하였다면, 아무도 해내지 못한 것이다.

내가 그의 개인 서재로 안내를 받아 들어간 뒤, 우리는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허리 굽혀 상호 존중의 인사를 하였다. 그는 예의에서, 나는 경외감에서 그리 하였다. 오랫동안 그는 나를 보고 내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매우 조심스럽게 몸의 무게중심을 한쪽 무릎으로 옮겼고, 또한 마찬가지로 조심스럽게 자신의 엉덩이로 손을 가져가 굽었다. 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하는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곳에 말이다.

“저는 치질에 걸렸습니다. 아프고 가렵습니다.”

나의 머릿속에는 첫 만남에서의 그러한 발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다. 나는 입을 다물고 생각에 잠긴 채 하였다.

“아시다시피, 치질은 스트레스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관광객들 때문에 화재에 취약한 이 사찰이 불에 타 무너지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지요. 사찰의 유지보수를 위해 기업가들로부터 충분한 기금을 확보해야 할 걱정 때문이기도 하고, 나만큼 ‘영성’이 충만하지 않은(이 부분에서 그는 미소를 지었다.) 아내와 아이들과 말싸움을 하는 때문이지요. 또한 승려가 되려고 하는 게으르고 어리석은 젊은이들의 자질로 인하여 체념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때로 저는 하와이에

41) 마음을 수행키 위한 수수께끼 같은 선문답

조그마한 집을 얻어 골프나 치며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한쪽으로 몸을 기울여 다시 굽었다.

“ ‘깨달음’ 을 얻기 전에도 이러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난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말을 멈추어 던지시 내가 그의 말과 행동을 곱씹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일어서면서 나더러 따라오라는 몸짓을 하였고, 우리는 사찰 입구의 움푹 들어간 곳으로 가서 내가 자주 지나치곤 하였던 아주 오래된 족자 앞에 섰다. 그는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는, 그가 느끼기에 그곳에서 나는 “마실 물을 구하는 목마른 이였으나 내내 무릎께 깊이로 흐르는 개울에서 있었다.” 고 하였다. 예.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족자의 글귀를 우선 일본어로 천천히 읽은 뒤 조심스럽게 영어로 옮겼다.

그대가 진정 머물러야 할 상태가 없거니와

해야 할 것도 없도다.

그대가 진정 소유해야 할 것이 없거니와

알아야 할 것도 없도다.

그대가 진정 되어야 할 것도 없으나

타고나면 재가 되고 비가 오면 땅이 젖음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될지니 . . .

“모든 것이 인과율을 따릅니다. 이 범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선사가 말했다.

그리고는 내게 워크한 뒤 돌아서서 걸어 나갔다. 조심스럽게 엉덩이를 굽으면서.



책의 처음과 영화의 마지막에는 ‘크레딧’이 나온다. 그 책과 영화가 나오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되었을 사람들의 목록, 그래서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할 사람들의 목록 말이다. 그와 같은 마음가짐에서 어느 여름이 끝날 무렵 나만의 크레딧을 작성해보았다. 이 사람들(그리고 곤충과 개들)은 놀라운 재주로 내 삶을 신명나게 만들었다.

빨간색 덤프트럭에 타고 있던 우람한 체격의 남성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그는 신호가 청신호로 바뀌어서도 한참을 앉은 채 공상에 빠져있던 나에게 경적을 울리지 않는 인정을 베풀어 주었다.

자신보다 덩치가 훨씬 큰 연상의 암컷에게 필사적으로 구애하던 작은 강아지에게 감사한다. 그 강아지는 사랑에 빠지면 희망에 부풀게 되며 성적 욕망은 종종 눈을 멀게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상대를 참을성 있게 받아주는 것 또한 박수 받을 만하다. 손해 될 게 무엇인가?)*

그해 여름 가장 무덥던 날, 공원에서 색이 바랜 푸른 수영복을 입고 소형 어린이 풀장에 앉아 오는 사람 모두와 침병침병 물놀이 한 판을 벌인, 몸집이 육중하고 피부는 주름 진데다 머리는 희끗하게 섰 할머니에게 감사드린다. 할머니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와 영원히 아이로 사는 것이 가능함을 되새겨 주었다.

식료품 가게에서 나의 무릎계를 등 뒤에서 잡아채어 껴안고는 “아빠” 라고

부른 조그만 소년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그 아이는 내가 아빠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고 안 이후에도 나를 다시금 껴안았다. 덕분에 나는 작은 기쁨을 공짜로 맛볼 수 있었다.

15번가의 도로가에 금잔화를 심어 놓은 이웃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당신은 임자 없는 작은 땅을 아름답게 가꾼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여 다음과 같은 글귀의 팻말을 세워 놓았습니다. “꽃입니다. 몇 송이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호숫가에서 농구 선수 뺨칠 정도의 실력을 갖춘 흑인 청년들과 함께, 기민하고 대담한 움직임 보이면서 실수해도 봐주는 것이 없고 물러섬 또한 없는 경기를 펼친 세 명의 젊은 백인 여성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또한 이 여성들이 농구를 잘 할 수 있음을 알고 함께 경기를 하자고 먼저 손을 내민 흑인 청년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들은 남녀평등 헌법 수정안 *Equal Rights Amendment* 이 이 땅의 모든 코트에서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휴매나⁴²⁾ 관계자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주택을 재건축하는 일로 여름 한 철을 보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에게 감사를 드린다. 당신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어떠하였는지는 역사의 판단에 맡겨질 것이나 당신의 인격은 많은 이들의 귀감으로서 지금 빛납니다.

토요일 시장에서 수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던 네 명의 청각 장애인들에게, 그 말없는 웃음에 나를 끼워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을 전한다. 나는 그들이 농담을 하고 있었음을 알았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나 알 수 있었다.)

일요일 오후 그저 재미로 연주하러 공원에 나왔다가, 지구상 모든 이들의 생일 파티라도 되는 양 연주를 하여 준 디시랜드⁴³⁾ 밴드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덕분에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었다.

시내 드리그스토어 앞에서 하모니카를 연주하고 있던 괴짜 할아버지에게 감사를 드린다. 돈을 어디다 넣느냐고 누가 묻자 할아버지는 돈 때문이 아니라 그 업체를 위해서 연주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언덕 너머 승승장구’ 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덕분에 나이를 먹는 것이 기다려지게 되

42) 미국의 의료 보험 회사

43) 20세기 초 미국 남부에서 태동한 초창기 재즈 스타일

었다.

떡을 감는 개울가에서 상의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과다노출 범칙금 딱지를 발부받았으나, 용감하게 자신의 입장을 견지한 빈약한 가슴의 젊은 여성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그리고 그녀가 이 이상 난처하지 않도록, 더욱 풍만한 가슴을 드러낸 여성들에게 딱지를 발급하면서 그녀에 대해 체포 절차를 밟지 않은 경찰관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존엄성을 헤치지 않으면서 얼마간의 정의를 지켜준 것에 대하여.

이전에 살던 동네의 우편집배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는 이사를 한지 꽤 되었음에도 나의 이름을 기억해주었으며, 따뜻한 정을 우선 건넨 후에 편지를 전해 주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동 중이던 장애인 남성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의 휠체어 뒤에는 ‘발정난 분만 경적을 울리세요.’ 라고 쓰인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덕분에 좋은 유머의 용기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 집 정원에서 밤낮으로 줄곧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피면서 천천히 걷게 만든 8월의 거미들에게 감사한다. 덕분에 그들의 일을 관찰하면서 나 자신의 일을 돌아보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호숫가에서 내 곁으로 와 가만히 앉아 있던 늙은 잡종견에게, 나를 선택하여 말없이 그리고 아무런 요구 없이 함께 있어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녀석이 내 곁에 앉곤 할 때면 나는 영광으로 여겼다.

내가 일하는 건물의 복도에서 노래하는 수위 아저씨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는 하루가 끝날 무렵 “양지로 나아가요.” 라는 가사를 나의 머릿속에 심어주었다.

셀프 주유기 앞에서 있었음에도 내 차의 창문을 닦아 준 주유소 직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그는 어디를 다니든지 주위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되새겨 주었다.

이 말고도 많다. 그 여름의 선물이 풍성하였던 데다가 일간지에는 보도되지 않는 세상 이야기들이 많기에. 그 이야기들은 훈훈하며, 그 선물들은 공짜이다.



내가 사는 도시에 어떤 벤치가 있다. 그것의 구조는 단순하다. 15센티미터 두께의 매끄러운 잿빛 화강암 판 세 개로 되어 있다. 좌판은 폭이 40센티미터이고 길이는 105센티미터이다. 두 개의 지지다리는 높이가 40센티미터이다. 확실히 하려고 나침반으로 확인해보았더니 벤치의 두 긴 면은 동쪽과 서쪽을 향하고 양 끝은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도록 정성스레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견고한 의자는 우리 도시에서 가장 높은 언덕의 가장 높은 장소에 의도적으로 놓여졌다. 그래서 여름날 아침에 하늘이 맑을 때 이 벤치에 앉아 있으면 세 방향으로 거의 100킬로미터를 내다볼 수가 있다.

서쪽으로 푸젯사운드 만(灣)이 자리하고—
동쪽으로는 캐스케이드 산맥이 자유로이 달음질치며—
북쪽으로는 대학이 있고—
남쪽에는 커다란 나무가 있다네.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사랑하였소.

이 글귀가 벤치의 가장자리에 새겨져 있다. 비명으로. 이 벤치는 사실 어느 공동묘지의 묘비이다.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 번 앉아 보게 하고 싶다.

앉았을 때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장담한다. 처음에는 그것이 묘비인지조차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이 벤치는 묘지들을 가로질러 휘어 돌아가는 좁은 포장길의 끝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러한 위치에 놓였다는 것은 분명 쉬었다 가라고 권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생물은 메타세콰이아 나무로, 그것의 까마득한 수령과 거대한 몸체에서 당신은 위안을 얻을 것이다. 그 나무는 풍채가 의젓하며 덕이 있는 벗이다.

벤치의 배치와 가장자리에 새겨진 글귀, 조망 좋은 곳의 선정은 모두 그이가 죽은 뒤에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적잖이 애를 썼다는 것을 말한다. 그는 말없는 배려로 작별의 인사를 대신하였다.

25년이 넘는 세월을 목사로 지내는 동안 나는 수백 번의 장례식에 참여하여 임종을 지켜보는 때와 이후 시신을 매장하는 때에 함께하였다. 그 와중에는 어쩔 수 없는 나르시시즘이, 즉 자기 자신에 대한 몰두가 있게 마련이다. 나의 장례식에는 무엇을 바라고 나의 육체에는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며 나의 비명으로는 무엇을 바라는지, 숨이 다하고 화강암이 닳도록 너무나 인간적인 자아에 대한 집착이 있다. 그리고 그 성역화한 땅에 남겨진 묘석들은 죽은 자와 산자의 사이를, 그리고 죽은 자들 서로의 사이를 가로막는 데 이바지 한다. 나에게서는 묘비가 외로움의 표식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 벤치는 이야기가 다르다. 유일무이하다. 이름이 없고, 상투적인 비문이 없고, 생물 날짜가 없다. 그저 누구든 와서 앉아 사색에 잠겨 보라는 무언의 권유가 있을 뿐. 이 무덤이 표상하는 것은 외로움의 간극을 메우는 말없는 벗이란 선물이다. 내가 가본 세계의 어느 묘지에서도 이와 같은 것, 이처럼 고아(高雅)한 것은 보지 못하였다.

이 벤치는 수년 간 나에게 영적인 쉼터가 되어 주었다. 그리고 나는 이 벤치를 사용하는 이가 나뿐이 아님을 안다. 일찍이 그 벤치 아래에서 어떤 쪽지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나에게로 온 것은 아니었다. 한 젊은이가 연모해 온 아가씨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그의 연심을 들푹 담아 쓴 서투른 시를. (아니, 나는 몰래 엿본 것이 미안하지 않다. 쪽지는 발견한 곳에다 도로 붙여 놓

왔고, 누가 그 쪽지를 가지러 오는지 보려고 수풀에 숨어 있지도 않았다. 비밀 연애를 하는 이들은 현재의 상황만으로도 근심할 거리가 많을 테니까.)

두 번, 나는 모르는 사람들과 그 벤치에 합석하였다. 그 벤치가 서로에게 소중한, 그리고 함께 해도 좋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는지 나는 설명할 수 없다. 그냥 알았을 뿐이다.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제각기 갈 길을 갔다.

그리고 바로 이 벤치에 앉아 있었을 때였다. 나의 50번째 생일이 하루 지나고 난 여름의 아침, 나는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관념적인 지식이 나도 죽는다는 현실적인 인식으로 바뀌는 그러한 삶의 순간을 맞이하였다. 머지않아, 나, 풀겜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을 걸어 나오면서 그렇게 되어도 괜찮다, 라는 생각을 하였다.

나는 그러한 깨달음의 순간을 그 벤치로 된 기묘한 성역과 그 성역을 제공한 이와 연관 지어 생각한다. 그 이름 모를 기증자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나 또한 개인 소유지임을 표시하는 쓸모없는 돌 대신에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무언가의 선물을 남기리라.

그 벤치는 수백 년을 살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앉아 주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 달콤한 생의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죽음의 신비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리고 방법은 알지 못하나 때로는 딱 들어맞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음을 생각할 것이다.



2월의 어느 목요일 밤, 1989년의 마흔 번째 날에 이 편지를 쓴다.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은 겨울이고, 청명한 하늘에는 초승달이 걸렸다.

삶과 이야기 그리고 글쓰기는 계속되는 것이나 지금 나는 이 책에 대한 나의 작업이 마무리되는 지점에 와 있다. 내일이면 원고가 뉴욕에 도착하여 출판 과정을 거쳐 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떠나보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마치 아이를 피니싱 스쿨 *finishing school*⁴⁴⁾에 보내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어떤 독자들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의 마지막 장에서 약속한 이야기 몇 편이 이 책에는 수록되지 않았음을 알아챘을 것이다. 어째서냐고? 해명을 하자면 이렇다. 구입할 물품을 길게 작성한 목록을 가지고 장을 보러 가 놓고는 다른 것들만 잔뜩 사 가지고 온 경험이 있는가? 그러면 가족 중 누군가가 장 본 물건들을 풀어 놓으면서 왜 이것은 사고 저것은 사지 않았는지, 그리고 사온다고 했던 것들은 대관절 어디 있는지를 알고자 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내가 잘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기쁜 일 아닌가요?” 라고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면 물건들을 꺼내보던 이는 “다음번에는 목록에 적혀 있는 것들을 사오세요.” 라고 할 것이다. 그래, 다음번에는 개구리와 아이다호 주 포커텔로 시에 있는 식료품 가게의 팻말과 구세해군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서커스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약속한다.

곧 나는 취침 의식 모드에 들어간다. 당신이 하는 것과 다르지는 않을 것이

44) 젊은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사회 윤리와 상류층의 의례 문화 등을 배우는 신부학교

다. 집안을 돌면서 불을 끄고, 문의 걸쇠를 확인하고, 난방 온도를 낮추고, 냉장고 안을 한 번 더 확인해서 마지막으로(한 9시 쯤) 확인한 이후로 초콜릿 아이스크림과 같은 것이 기적적으로 나타났는지를 확인한다. 그런 다음에는 항공기가 자동조종장치로 비행하듯 어둠 속을 더듬어 계단을 오른 뒤 자고 있는 아내의 옆에 몸을 누인다. 이 순간에는 언제나 소리 없는 웃음이 있다. 아내는 까만색 눈가리개를 착용하고 있어서 마치 론 레인저 *Lone Ranger*⁴⁵⁾ 옆의 침낭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다. 그러나 나는 항상 론 레인저를 좋아했기에 매번 이렇게 혼잣말을 한다. “충실한 인디언 톤토가 여기 있소!” 이것은 나 혼자만의 농담인데, 이제는 더 이상 크게 소리 내어 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생각은 한다. 그리고 나서 히죽 쪼개며 잠자리에 든다. 유치한 농담이든 아니든, 취침 방식으로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나는 베개들을 내 식대로 몸 이곳저곳에 끼고 알람을 설정한 뒤에 도로 누워서 각성과 수면의 중간 상태로 들어간다. 깨어 있으려는 정신은 계속해서 수신 메일을 정리하고 할 일의 목록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생각할 것이다. 기억이 닿는 한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온 그것을. 오늘은 꼭 찻고 내일 일은 내일의 것이다, 그 사이 내게 필요한 것은 잠이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고 있다, 나라고 자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잘 자야 다음 날의 일도 잘 돌아간다, 자라, 풀겹, 자. 그리고 나는 잠에 든다.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잠자리 기도라고는 할 수 없으나 밤이 지나는 동안의 안녕과 내일의 알찬 삶에 대한 희망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 기도로 충분하지 않을까 한다.

오늘 이 밤 나는 마음에 웃음을 머금고 잠자리에 든다. 마지막으로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았는데 여러 번 읽어 보았음에도 아직도 재미난 구절들이 있어 놀랐다. 하지만 유머는 좀 미심쩍다. 통념상 유머는 진지한 글을 깎아내린다고들 하지 않나. 그래서 우스운 부분들을 잘라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본다. 그러나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이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삶을 현실적으로만 바라보면 문제가 생긴다. 고통과 죽음 그리고 우리의 지구가 수명이 다해가는 태양에 빨려 들어가게 됨으로써 맞

45) 미국 서부영화의 주인공. 눈을 가리는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이하게 될 최후의 종말 등, 삶에는 어둡고 악하며 절망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무엇도 중요치 않다.

반면 우리 인류의 가장 훌륭한 면은 가능한 한 지금 삶을 의미 있게 살고자 다짐한다는 것, 스스로의 운명에 도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중요하다. 모든 것이.

이 두 가지 관점 사이에서 간혀 버리기란 쉽다. 두 관점이 모두 똑똑히 보여서 어떤 행동과 태도를 취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한 교차로에서 나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웃음이다.

우리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유일한 생명체이다. 나는 그것이 우리가 현재의 상태와 가능한 상태의 불일치를 보는 유일한 생명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눈물로 떨어내고, 웃음으로 풀려난다.

몇 해 전 나는 ‘참을 수 없는 웃음’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표현 ‘아즈베스토스 엘로쉬 *asbestos gelos*’ 를 발견하였다. 찾아보니 호머의 『일리아스』에서 유래하였으며, 신들의 웃음을 묘사하는 데 쓰이고 있었다.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웃음이다. 그리고 웃는 자는 영원하다.

그럼 안녕히. 편히 주무시기를.

저자에 대하여

그에게 명함을 달라고 하면 풀검 이라고만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명함은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열린 생각을 보여준다. 로버트 풀검은 카우보이, IBM 세일즈맨, 전문 예술가, 포크 싱어, 교구 목사, 바텐더, 미술 교사, 작가, 아마추어 철학자로서 살아왔다. 그리고 아직도 자라서 무엇이 될 것인지를 고민한다. 현재는 아내와 함께 시애틀의 선상가옥에서 살고 있다.